

LHRI magazine

북한건설 개발동향

2026년
1,2분기

| 이슈진단 |

-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개선이 북한 경제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 북한 노동당 제8차와 제9차 대회 국가경제발전계획의 성과와 과제: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 건설·개발 주요동향 |

- 2026년 국가예산 계획
- 2026년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황
- 2026년 1,2분기 살림집 건설 현황
- 북한 건설업 총괄 현황과 전력산업 동향
- 내국인 복지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관광지 개발 현황

| 건설·개발동향 분석 |

- 분석대상 시설 유형 분포
- 유형별 주요 건설·개발 동향
-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 종합 및 시사점 |

-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 유형별 동향분석 요약과 시사점
- 1,2분기 종합 시사점

| 부록 |

- 조사 개요
- '26년 1,2분기 북한건설·개발동향 자료

NORTH KOREAN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END

「북한건설·개발동향」은 북한 건설·개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함께 북한의 건설인프라 동향 파악을 위해 북한 등 발행매체(노동신문, 조선신보)의 관련 기사를 시설유형별, 단계별, 지역별로 집계·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북한의 주요 학술논문과 한국의 매체 등도 검토하여 연 2회(8월, 2월) 발간됩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글로벌/북한연구센터

이승지 수석연구원(총괄), 정연우 센터장, 최상희 선임연구위원, 김두한 연구위원,
송상훈 연구위원, 이승은 주임연구위원, 신수민 기간제연구위원, 이하연 인턴사원

※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필자의 의견을 따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2026년 1, 2분기 「북한건설·개발동향」을 발간하며

북한은 2026년 2월 제9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6~2030)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외적으로 북중·북러 관계를 축으로 대외경제 공간을 넓혀가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지난 5개년계획의 성과를 다지는 '점진적인 질적 발전'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새 계획의 첫 반년, 북한이 실제로 무엇을 짓고 어디에 자원을 투입하는지는 이러한 정책 전환의 실체를 가늠하는 유용한 창(窓)이 될 것입니다.

〈2026년 1, 2분기 북한건설·개발동향〉에서는 새 5개년계획 원년의 국가예산과 건설투자 흐름, 3차 연도를 맞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패키지형(공장·병원·종합봉사소 동시건설) 추진 현황, 평양 화성지구 4단계 준공과 5단계 착공을 비롯한 상반기 살림집 건설 동향,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건설업과 만성적 병목인 전력산업 현황을 다루었습니다. 아울러 대형 관광지구 중심에서 벗어나 내국인 복지를 위한 중소형 시설이 확산되는 흐름과, 도소재지 개건이라는 새 과업의 등장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도 두 편의 외부 전문가 원고를 수록하였습니다.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개선이 북한 경제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세종연구소, 최은주)은 북중·북러 관계 확대가 북한 경제에 주는 기회와 그 한계를 짚고 남북경협을 새 조건을 분석합니다. '북한 노동당 제8차와 제9차 대회 국가경제발전계획의 성과와 과제: 건설부문을 중심으로'(지역과환경연구소, 김미숙)는 두 계획의 건설부문 과제를 비교하여, 신규시설 조성에서 공정개선과 지방 생활기반 확충으로의 이동을 밝힙니다.

이번 호가 북한의 건설·개발 현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그리고 북한 건설·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북한건설·개발동향 편집팀



CONTENTS

이슈진단

- 006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개선이 북한 경제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 023 북한 노동당 제8차와 제9차 대회 국가경제발전계획의 성과와 과제: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개발 주요동향

- 042 2026년 국가예산 계획
- 045 2026년 《자방발전 20×10 정책》의 자방공업공장 건설 현황
- 049 2026년 1, 2분기 살림집 건설 현황
- 054 북한 건설업 총괄 현황과 전력산업 동향
- 065 내국인 복지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관광지 개발 현황

건설·개발동향 분석

- 070 분석대상 시설 유형 분포
- 072 유형별 주요 건설·개발 동향
- 096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종합 및 시사점

- 104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 107 유형별 동향분석 요약과 시사점
- 109 1, 2분기 종합 시사점

부록

- 112 조사 개요
- 118 '26년 1, 2분기 북한건설·개발동향 자료

2026년
1, 2분기

북한건설·개발동향

발행처 LH토지주택연구원 | 주소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전민동) | 전화 042-866-8400 | E-mail sjlee268@lh.or.kr | 홈페이지 lh.lh.or.kr | 발행인 김용운 | 편집인 글로벌/북한연구센터 | ISSN 2951-1488 비매품 | 발행일 2026년 8월 31일 | 디자인·인쇄 (주)에이퍼브

PART 1

이슈진단

I s s u e R e v i e w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개선이 북한 경제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와 남북 경제협력의 여건 변화를 중심으로

최은주(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I. 문제제기

2026년 2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향후 5년간 북한의 대외관계와 대외 경제정책의 기본방향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익수호를 기본 원칙으로 주변국 및 우호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는 대외무역을 활성화하는 한편 관광업을 경제성장과 문명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를 단행한 후 2022년부터 북중 화물교역이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2023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었다. 2026년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무역뿐 아니라 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의료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중국과 러시아 이외 국가들과의 외교 및 고위급 교류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경제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외부자원과 경제협력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북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구조적인 개선으로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외교역과 협력의 확대는 원료·물자와 외화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지만, 북한 내부의 생산성·기술·에너지와 경제관리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변화는 남북관계와 남북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조건을 제기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대외경제 선택지가 확대되고 북한의 대남정책도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수요가 곧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접근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한이 산업현대화와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야의 협력 필요가 새롭게 커질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먼저 제9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을 살펴보고, 북중·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최근 대외경제 여건

의 변화를 정리한다. 이어 이러한 변화가 북한 경제의 회복에 제공하는 기회와 한계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변화한 대외경제 환경이 남북경제협력의 조건과 경제적 기능, 향후 협력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본다.

II.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

1. 제9차 당대회 이후 대외정책과 대외경제 정책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국익을 중심으로 대외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당대회 보고는 모든 대외활동을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전개하고 주변국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우호적인 국가들과 정치·외교활동과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국가의 모든 대외활동을 당중앙의 직접적인 지도와 관여 아래 추진 하도록 하면서 대외활동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도 강조하였다. 이는 외교와 대외경제를 국가전략의 틀 안에서 함께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은 제8기(2021~2025년) 동안 변화한 국제환경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도 연결되어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확대와 중국과의 관계 회복, 우호국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사회주의건설에 보다 유리한 대외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베트남·라오스·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의 교류도 확대

하였다. 특히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에서 경제관리와 대외경제, 수출입 경험의 공유까지 논의한 것은 대외관계 확대가 정치·외교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외경제는 이러한 대외정책과 국내 경제발전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설정되고 있다. 제9차 당대회는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에 대외무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관광업을 경제 성장과 문명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북한이 대외무역과 관광을 기간공업·건설·지방발전·과학기술 등과 함께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대외경제를 국내 발전계획과 분리된 영역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화와 원부자재·설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대외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의 구체적인 운영에서는 활동의 확대와 국가관리의 강화가 동시에 나타난다. 대외무역의 상대와 품목을 확대하고 가공무역·기술무역·봉사무역을 발전시키며 물류와 기술거래의 기반을 개선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수출입 허가과 할당, 물자의 가격과 반출입, 무역주체와 거래질서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강조되고 있다.¹

이는 제9기 경제관리의 전반적인 변화와도 연결된다. 북한은 대외무역에서 확보한 외화와 수입상품, 거래단위와 통로를 국가경제 전체의 우선순위에 맞게 관리하려 하고 있으며, 기간공업·농업·지방경제와 주민생활 사이의 생산·공급 연계를 안정시키는 문제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제9기 대외경제정책은 대외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성과를 국내 발전계획과 국가관리체계에 연결하려는 방향을 특징으로 한다.

1 김동식, “대외무역규율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 『경제연구』 2026년 제2호, pp.52~54.

2. 북중 경제관계의 회복과 협력 범위 확대

중국은 여전히 북한 대외경제의 기본적인 축이다. 코로나19 기간 북중무역은 급격히 축소되었지만 2022년 화물교역 재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회복되었으며 2023년 이후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소비재 공급처일 뿐 아니라 북한의 산업생산과 설비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원료 및 부품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하다.

2025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약 4억 4,100만 달러, 수입은 약 22억 9,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25.4%, 21.9%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2026년 1~7월 누계 대중 수입 및 수출액은 각각 약 13억 5,400만 달러와 3억 6,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7%, 50.7% 증가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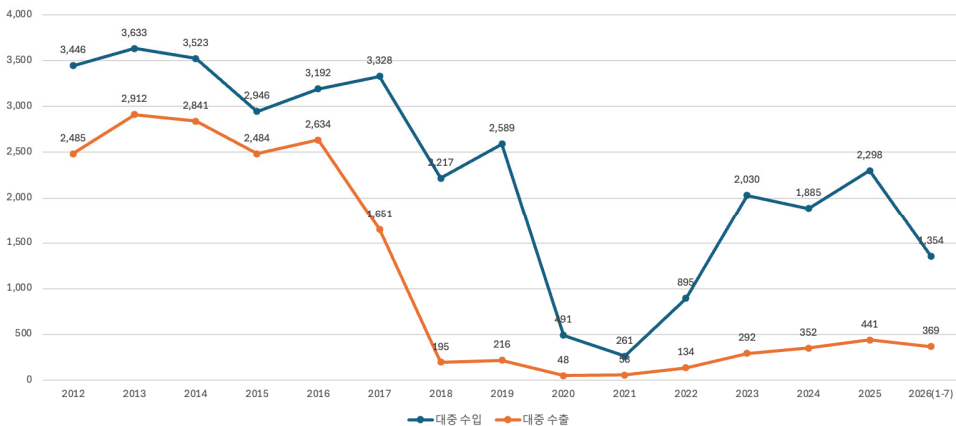
북중무역의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수입의 역할이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중간재

와 부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원료와 부품 부족으로 충분히 가동되지 못했던 기존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대중 수입의 회복은 소비재 공급을 늘리는 효과와 함께 북한의 산업생산을 정상화하는 기본조건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중 수출의 증가는 북한 수출산업의 경쟁력 개선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2026년 1~5월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약 68% 증가한 2억 8,700만 달러였지만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텅스텐에서 발생하였다. 텅스텐 수출액은 약 900만 달러에서 8,800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었으며 수출량 증가보다 국제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³ 따라서 최근의 수출 증가는 북한의 외화획득 확대라는 의미를 갖지만, 광업의 생산성과 수출경쟁력이 같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6년 6월 북중 정상회담은 이러한 상품교역의 회복을 협력범위의 확대와 연결하

그림 1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의 대중 수출·수입 추이(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CtrlImpExpList.screen>>, (검색일: 2026년 8월 20일).

3 남진욱, "North Korea's Economy, H1 2026: A Sliding Won and a Tungsten Windfall", 『38 North』, 2026.7.15.

려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중국 측은 양국의 발전전략 연계와 함께 경제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확대를 밝혔다. 북한의 새로운 5개년계획이 기간공업 뿐 아니라 지방발전, 농업 현대화, 보건의료, 관광과 과학기술까지 경제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북중 경제협력도 상품과 원료 공급을 넘어 일부 기술·교육·운영경험의 교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협력분야가 넓어지는 것과 대규모 투자·산업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유엔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합작투자와 금융, 첨단설비 이전,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상품교역·물류·관광·인적교류와 농업·보건·교육·과학기술 등에서 협력이 먼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산업개발은 제재환경의 변화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3. 북러 경제관계의 확대와 협력 기반의 확장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의 역할 확대이다. 북러 교류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되었고 2023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정치·군사관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2024년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과학기술·교육·보건·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북러 경제관계는 공식 상품무역만으로 규모와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

는다.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 군수물자와 병력·인력 제공 및 이에 대한 반대급부처럼 일반 무역통제에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DI 분석에서도 군수공장과 중화학공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경제활동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식품가공 등 일부 경공업에서는 개선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러 협력이 군수·중화학공업 등 특정 국가부문의 생산과 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⁴

러시아는 북한에 외화와 물자,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도 제공한다. 특히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 확대는 수송·건설·농업기계·군수생산 등에 필요한 연료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군수물자와 인력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의 규모와 형태, 러시아산 물자와 에너지가 북한 내부에서 어떠한 부문에 배분되는지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러관계가 북한 경제에 제공하는 경제적 효과의 전체 규모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26년에는 군수와 에너지 이외의 경제협력 기반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월에는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약 850m 길이의 북러 도로교 연결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교량은 1959년 개통된 기존 철도교에 더해 차량을 이용한 국경수송 기반을 처음으로 추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러시아 측은 교량이 무역과 관광, 인적 왕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하루 최대 약 300대의 차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당초 6월 완공·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러시아 측 세관시설 공사가 늦어지면서 실제 운영 시점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4 김규철·남진욱, 『북러 밀착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KDI, 2025.12.

되고 있다.

보건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이 시작되었다. 2026년 4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는 조려친선병원 착공식이 열렸으며 러시아 보건장관과 천연자원·환경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병원 건설뿐 아니라 무역경제·과학기술과 보건 분야의 실무협력 확대를 함께 논의하였다. 이는 북러협력의 범위가 군사와 자원교환을 넘어 보건 인프라와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적교류의 확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비자는 2025년 3만 6,413건으로 2024년 9,23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대부분이 교육 목적 비자로 집계되었다. 교육·연수와 노동력 이동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북러 간 인적 이동의 규모 자체가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최근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북러 경제관계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현재 협력의 규모와 별개의 문제이다. 군수물자와 인력에 대한 러시아의 수요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 향후 전쟁 상황이나 러시아의 군수수요가 변화할 경우 북한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일부 경제적 이

익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현재 형성된 정치·군사관계가 도로와 철도, 에너지·자원, 관광·보건, 교육과 과학기술 및 극동지역 협력 등 자체적인 경제성을 갖는 분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의 역할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북러 경제관계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현재의 특수수요가 일반적인 경제협력으로 어느 정도 전환되는가에 있다.

현재 단계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하기보다 북한의 대외경제 선택지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산업과 주민경제 전반에 필요한 폭넓은 원료·중간재·부품과 상품을 공급하는 기본적인 경제관계라면, 러시아는 군수·에너지·노동·자원과 일부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북중 경제관계와 북러 경제관계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제3국과의 대외관계 확대와 경제관계 다각화 가능성

북한의 대외활동 확대는 중국과 러시아에 한정되지 않는다. 2025년 이후 베트남과 라오스를 비롯한 전통적인 우호국과 정상급 교류가 확대되었고 벨라루스와의 경제협력

표 1 최근 북러 경제협력의 분야별 주요 동향

분야	최근 주요 변화	경제적 의미
군수·산업	군수물자·인력 협력 및 관련 생산 확대	중화학·군수부문 생산수요와 외화·현물 확보 가능성
에너지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 확대	수송·건설·농업·산업의 연료제약 완화
교통·물류	두만강 도로교 건설	철도 중심의 국경물류에 도로수송 기반 추가
보건	원산 조려친선병원 건설	보건 인프라와 의료·인력교류 확대
인적교류	교육·연수 목적 이동 확대	전문인력 교류와 노동 활용 가능성 확대
관광	러시아 관광객의 북한 방문	관광시설 재가동과 서비스·외화획득 경로 확보

자료: 북한 매체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채널도 이어지고 있다. 2026년에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벨라루스공화국 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공보, 농업, 교육,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하였다.⁵

이러한 흐름은 북한 내부의 대외경제 논의와도 연결된다. 우호국과 경제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상대국 시장에 맞는 수출입 품목을 선정하고 상품인증과 관세·비관세 조건, 결제조건을 개선해야 하며, 외국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보호와 특수경제지대의 운영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⁶

그러나 외교관계의 확대를 경제관계의 실질적인 다각화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실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경쟁력을 가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물류·결제·계약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상대국 기업에도 북한과 거래할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있어야 하며 대북제재 준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중국·러시아 이외 국가들과의 관계 확대는 경제협력의 외교적·제도적 기반이 넓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농업·관광·보건·교육·과학기술 등 일부 분야에서 제3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대외경제 여건 개선과 북한 경제 회복의 기회와 제약

1. 최근 경제회복의 성격과 대외경제의 역할

최근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기간의 심각한 위축에서 벗어나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 북한 스스로 제8기 동안 진행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기본적으로 완수’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추계에서도 북한 실질 GDP는 2023년 3.1%, 2024년 3.7%, 2025년 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에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⁷

다만 최근 경제회복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먼저 2022년 이후 북중 교역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국경봉쇄로 부족해졌던 원료·중간재와 소비재를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된 정상화 효과가 존재한다. 이는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복이다.

여기에 2023년 이후 북러 관계 확대와 북중관계 개선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대외경제 효과가 더해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군수·에너지·인적협력은 중화학공업과 일부 국가부문에 새로운 수요와 외화·물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중무역의 확대는 산업생산에 필요한 각종 투입물들을 보다 안정적으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와 벨라루스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동지 사이에 회담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벨라루스공화국 사이의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식 진행”, 『노동신문』, 2026.3.27.

6 김홍일,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발전을 도모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 제71권 제2호, 2025, pp.33~38.

7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26.7.31.

로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2020~2022년 국경봉쇄기에 경제성장률과 재정지표가 함께 부진했던 반면 2023년 이후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점은 최근의 생산회복을 내부 동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대외경제 정상화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주택건설과 지방발전 20×10, 농촌주택, 기간공업 및 군수생산 등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사업도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방공업공장뿐 아니라 병원·종합봉사소·양곡관리소와 같은 생활시설이 계속 확대되면서 필요한 철강과 시멘트·기계·전력·수송 및 운송물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즉 최근 북한 경제의 회복은 국경 정상화에 따른 교역 재개 효과, 새롭게 확대된 대외경제관계, 국가주도 투자와 생산 확대가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세 요인의 지속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국경 정상화 효과는 코로나19 이전의 교역조건에 가까워질수록 추가적인 효과가 줄어든다. 북러 군수수요는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투자 역시 이를 지속할 원료·외화·전력·재정과 운영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의 회복이 제9기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판단하려면 생산량의 증가 자체보다 이러한 회복이 새로운 생산능력과 생산성·품질의 향상으로 연결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산업생산 정상화의 기회와 생산성 향상의 제약

대외경제 여건 개선이 산업에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회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

와 중간재·부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으로부터 합성수지와 섬유원료, 화학제품, 기계 및 전자부품 등의 공급이 회복되면 원료와 부품 부족으로 충분히 가동하지 못했던 기존 공장의 생산활동과 설비 유지·보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 산업에서는 생산설비 자체의 부족뿐 아니라 원료·부품·연료 부족으로 이미 설치된 생산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료·중간재와 부품 공급의 정상화는 대규모 신규투자가 없어도 일부 산업에서 가동률과 생산량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북러관계는 다른 방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의 군수수요는 금속·기계·화학을 비롯한 군수 관련 중화학공업에 새로운 생산수요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물자의 제공은 해당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부 공급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효과가 경공업과 일반 소비재산업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서 기존 설비의 가동률 회복과 생산성 향상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원료가 부족해 절반만 가동되던 공장에 더 많은 원료가 공급되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 경제회복이지만, 동일한 원료와 노동·에너지를 사용해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거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성 향상과는 다르다.

따라서 최근 생산과 수출의 증가를 평가할 때에는 투입재 공급 정상화에 따른 가동률 상승, 새로운 대외수요의 발생, 국제가격 변화, 설비·기술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텅

스텐은 가격변화가 수출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례이며, 이러한 증가를 산업의 질적인 개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제9기가 강조하는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설비현대화와 생산공정 개선,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효율, 노동생산성, 품질·원가관리, 신제품 개발과 기술수준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최근 설비관리와 기술집약형 기업, 품질비용과 지식관리를 경제정책의 주요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대외경제 여건 개선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기존 생산능력의 정상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중장기적인 성과는 이러한 회복이 설비현대화와 기술·품질·생산성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농업·에너지의 여건 개선과 구조적 제약

농업에서도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은 일부 생산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비료와 농약, 농업용 연료와 농기계·부품의 조달여건이 국경봉쇄기에 비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9기에도 농업기계화와 과학농사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확보하는 일부 생산요소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요소의 조달여건 개선이 실제 농업생산 증가로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농업생산은 비료와 농기계뿐 아니라 토지생산성, 관개와 수리시설, 종자, 영농기술과 기후

등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도 가뭄·고온·큰물·태풍과 같은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우량종자와 토양관리, 과학적인 영농체계를 발전시키는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⁸

따라서 농업에서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은 부족한 생산요소의 조달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의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농업생산성의 구조적인 문제는 토지·관개·종자·기술 등 내부 조건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에서도 유사한 관계가 나타난다. 러시아를 통한 정제석유 공급 확대는 수송과 건설, 농기계, 일부 산업과 군수부문의 연료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건설과 물류, 농업기계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석유계 연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운영의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석유제품의 공급 증가와 북한의 구조적인 전력문제 해결은 구분해야 한다. 공장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의 능력뿐 아니라 송배전체계, 발전설비의 유지·보수, 전력손실, 석탄과 수자원 등 발전원 자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행 추계에서도 제조업과 건설업의 회복과 달리 2025년 전기가스수도사업의 부진이 나타났으며, 북한 역시 석탄 증산과 발전·기계설비 현대화를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과 에너지에서 확인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이 투입요소 부족에 따른 당장의 제약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내부의 생산성·기반시설 문제를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8 한정민, “과학농사제일주의의 철저한 구현으로 농업생산의 안정적, 지속적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 제72권 제1호, 2026, pp.16~22.

4. 국가 중심의 경제운영 강화와 시장·주민경제의 불안정

최근 북한 경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식경제와 대외무역의 회복이 시장의 안정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DailyNK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북한 시장가격을 보면 2026년 1월 이후 원화가격과 쌀 가격의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⁹ 평양의 시장 달러환율은 1월 4일 1달러당 3만 9,200원에서 5월 10일 7만 2,100원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8월 1일에도 6만 7,100원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평양의 쌀 가격은 1월 4일 1kg당 1만 8,000원에서 8월 1일 4만 5,000원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7월 5일 3만 1,200원이던 쌀값이 7월 19일 4만원, 8월 1일 4만 5,000원으로 다시 크게 높아지는 등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상품공급의 부족이나 대외교역 규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북중무역이 확대되고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도 증가하는 가운데 시장환율과 일부 상품가격이 동시에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대외경제에서 확보되는 외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상품이 어떠한 유통망을 통해 배분되는지, 국가가 시장과 외화거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은 생산물뿐 아니라 상품의 공급·유통과 외화거래를 국가의 관리범위 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포괄하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양곡관리소와 국영상점·수매상점 등의 공식적인 유통망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 간 외화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식 환전채널을 확대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배급체계를 그대로 복원하는 방식보다 국가가 관리권을 강화하면서 가격과 유사거래 등 시장에서 형성된 운영방식을 일부 결합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제9차 당대회 이후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DailyNK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국영상업망을 장마당보다 우위에 두기 위해 장마당으로의 상품유통을 제한하는 조치가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가격의 변동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최근의 높은 환율과 물가를 대외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시장과 비공식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던 외화와 상품의 유통 일부를 국가가 공식 무역·상업망 안으로 편입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외화와 수입물자를 기간공업과 건설, 국방과 주요 정책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시장으로 유입되는 외화와 상품의 통로를 제한한다면 대외경제활동이 확대되어도 시장의 외화사정과 상품공급은 같은 속도로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통이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공식 상업망의 운영에서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상품조달 방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6년 8월 DailyNK가 평안북도 한 수매상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수매·판매 가격을 관리하지만 실제 상품 확보와 판매 과정에서는 장마당 시세를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이는 최근 북한 경제의 변화를 국가가 관

9 DailyNK, 북한시장동향 <<https://www.dailynk.com/market/>> (검색일:2026년 8월 23일).

10 DailyNK, “수매상점, 형식상 국가 가격제 따르지만 실상은 장마당 시세가 기준”, 2026.8.14.

리하는 공식경제의 확대와 주민들의 시장활동 위축이라는 단순한 대립관계로 보기보다, 국가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경제활동의 일부를 공식적인 생산 및 유통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관리하는 과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는 무역과 유통·외화를 공식체제로 더 많이 포괄하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시장가격과 상업적 거래방식을 일정하게 활용하고 있다. 국가관리의 강화와 시장적 운영방식의 부분적인 흡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주민생활에 대한 영향 역시 균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외화를 보유하거나 외화 소득을 얻는 경제주체는 원화 가치 하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지만, 북한 원화 임금에 크게 의존하는 주민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구매력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 국가가 공급하는 식량·소비품과 각종 생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도 체감생활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환율과 가격의 상승만을 전체 주민의 생활수준 변화와 일대일로 연결하는 것도 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경제를 평가할 때에는 공식경제의 생산, 국가의 투자와 공급능력, 시장의 환율과 상품가격, 주민의 실제 구매력과 공공서비스 이용을 서로 다른 지표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경제회복의 지속 가능성과 제9기 발전 전략

최근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은 북한 경제가 국경봉쇄기의 위축에서 회복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북중무역의 정상화는 산업투입재의 조달조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북러관계의 확대는 일부 산업에 새로

운 수요와 외화·물자·에너지 확보경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발전과 주택건설, 기간공업과 보건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에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제9기 경제발전전략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회복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가 특히 중요하다. 제9차 당대회는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을 '안정공고화단계, 점진적인 질적 발전단계'로 규정하였으며, 8기에 확보한 생산기반과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생산성·품질·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외경제의 성과는 외화와 수입물자의 증가와 함께 그것이 국내 생산기반과 주민생활 개선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외부에서 확보한 자원을 기간공업과 지방공업의 생산기반 강화, 설비현대화와 기술개진, 농업생산성 향상, 보건과 생활서비스의 정상운영으로 얼마나 연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향후 북한 경제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생산량 증가가 기존 설비의 가동률 회복을 넘어 생산능력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성장의 기반이 군수·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건설에서 경공업·농업·서비스와 주민생활 관련 부문으로 확대되는지, 전력과 에너지 기반이 경제활동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지, 시장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주민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대외경제의 구성도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중국은 북한의 구조적인 대외경제 기반이지만 높은 대중국 집중도 자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취약요인이다. 러시아가 최근 제공하는 일부 수요와 경제적 기회는 국제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외경제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사실과 그 선택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결국 최근의 대외경제 여건 개선은 북한에 생산을 정상화하고 국가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생산성·기술·농업·전력·시장안정이라는 기존의 구조적인 제약은 계속 남아 있다. 북한이 대외경제를 통해 확보한 추가자원을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재의 회복이 제9기가 지향하는 점진적인 질적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V.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조건

1. 남북경제협력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개선은 남북경제협력에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가져오는 변화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발전 수요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협력분야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남북경제협력에서 한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었던 주요 경제적 기능은 자본과 외화, 설비와 원부자재, 시장이었다. 북한이 국제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을수록 이러한 기능 자체가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북한이 일상적인 산업생산과 경제운영에 필요한 폭넓은 원료·중간재·부품과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군수수요와 에너지·자원, 외화와 인

적교류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단순히 자본이나 물자를 제공하는 방식의 남북경협에 대해 북한이 느끼는 경제적 필요성은 과거보다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은 회복되고 있는 반면 남북 간 반출입은 사실상 사라져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대외경제 회복과 남북경제관계의 복원은 서로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치적 제약도 더욱 커졌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해 왔던 기존의 정치적·제도적 기반도 크게 축소하였다. 대북제재도 여전히 대규모 투자와 금융, 산업설비와 기술 이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발전수요가 존재하고 한국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남북경협 사업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건은 과거에 일정 부분 전제되었던 '북한 경제 악화 → 외부협력 필요 증가 → 남북경협 필요 증가 →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선형적인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일정한 외부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자체가 대남정책 변화를 유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대외경제 공간의 확대와 경제의 일정한 회복은 단기적으로 북한이 현재의 대남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지를 높일 수도 있다.

반면 기회요인도 존재한다. 북한이 제9기 동안 정상가동과 생산성·품질, 지방발전과 주민서비스, 과학기술·정보화, 관광과 대외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단순 물자확보와 다른 유형의 기술·서비스·운영 역량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북중·북러 경제관계 확대는 남북협

력의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역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측면도 있다. 북한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관광·교통·물류가 확대되면 남북교통과 관광 역시 장기적으로 한반도 내부 연결만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망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의 가능성은 북한의 발전수요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북한의 수요와 한국의 역량, 북한의 정책적 수용성, 제재와 제도적 조건, 상호 편익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실제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2. 북중·북러 협력 확대와 남북경제협력의 역할 변화

북중·북러 경제관계 확대를 한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단순한 경쟁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각 국가가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적 기능과 북한이 이들과 관계를 맺는 정치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광범위한 산업기반, 대규모 시장과 오랜 물류·교역관계를

토대로 북한의 일상적인 경제운영에 필요한 원료·중간재·부품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한국이 동일한 방식으로 대체해야 할 이유도 현실적인 가능성도 크지 않다.

러시아는 현재 에너지와 군수수요, 자원과 인력 등을 중심으로 북한에 추가적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도로교와 관광·보건·과학기술 등 일반경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면 그 역할도 넓어질 수 있지만, 현재의 경제적 기능 중 일부는 국제정세와 군수수요에 민감하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단순한 비교보다, 북한의 발전수요 가운데 한국이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다른 대외협력 상대를 통해 이미 충족하고 있는 수요와 그렇지 못한 수요를 구분하고, 후자의 영역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북한이 제9기에서 생산의 정상화에 더해 생산성·품질·기술수준을 높이고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설

표 2 남북경제협력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구분	주요 변화	남북경협에 대한 의미
기회요인	산업현대화·품질·생산성 중시	기술·품질·운영관리 협력 수요 확대 가능성
	지방·보건·서비스정책 확대	농업·보건·환경·지역서비스 등 협력영역 확대
	관광·교통 대외연계 확대	장기적 초국경·지역협력 가능성
	대외활동 정상화	국제사업·교류를 운영할 경험과 기반 회복
제약요인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북한의 정치적 수용 가능성 저하
	대북제재 지속	투자·금융·설비·기술협력 제한
	북중·북러 협력 확대	한국과의 단기적 협력 필요성 감소
	국가관리 강화	사업주체·가격·유통·거래방식에 대한 통제 가능성
	정치·안보 불확실성	경제성이 있는 사업도 중단될 위험

자료: 저자작성.

비 자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설비진단과 유지보수, 생산공정, 품질과 안전관리, 표준, 정보화, 인력교육과 시설운영 등은 제품이나 원료의 단순 공급과는 다른 유형의 경제협력이다.

앞으로는 북한의 산업과 생활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협력의 가치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기존 사업의 재검토와 협력분야·방식의 다양화

북한 경제와 대외경제 환경이 변화한 만큼 기존 남북경협 사업도 현재의 조건에 맞게 경제적 기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성공단의 기존 모델은 북한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한국 기업의 자본·기술·원부자재를 결합한 노동집약적인 임가공 방식이었다. 이는 북한에는 고용과 외화소득을, 한국 기업에는 생산비 절감이라는 이익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가공무역과 품질 향상, 기술·기능인력 양성과 경제개발구 운영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저임금 임가공 중심 모델이 변화한 발전수요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성공단이 다시 논의된다면 생산기지의 단순한 복원뿐 아니라 설비현대화와 생산기술, 품질관리, 전문인력 교육과 기업운영을 함께 결합하는 산업협력 모델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경제개발구 개발을 본격화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최근 관련 문헌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의 운영을 뒷받침할 기술·기능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외부 기술·자금의 연계 등이 논의되는 등 경제개발구의 향후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¹¹

관광협력의 환경도 달라졌다. 북한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해 새로운 관광시설을 확대하고 관광 자체를 경제성장과 문명발전을 촉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도 과거보다 확대되었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광의 경제적 가치는 한국 관광객의 규모와 함께 관광상품 개발, 숙박·교통·의료·휴양 서비스, 관광인력 교육과 시설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검토하고, 관광협력의 범위에 북한 관광산업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능력을 높이는 방향까지 포함할 수 있다.

철도·도로 역시 남북 간 물리적 연결을 복원하는 데만 목적을 두기보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확대하는 교통·물류체계 및 동북아시아 지역경제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러도로교 건설 등 북한의 북방 교통망이 확대되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남북 교통망의 경제적 기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협력분야는 북한의 발전수요뿐만 아니라 북한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시설과 물자 제공, 기술·운영·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대형사업과 분야별·지역별 사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11 김경렬, “경제개발구 로력관리개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 제71권 제1호, 2025, pp.90~96.

수 있다.

농업·식품 분야에서는 종자와 비료·농기계 같은 개별 생산요소의 제공뿐 아니라 생산-저장-가공-유통을 연결하고, 농기계 유지관리와 식품 품질관리를 결합하는 협력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생산량 증가가 실제 주민공급과 지역 식품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영역이다.

보건의료에서는 병원과 의료기기 제공을 넘어 의료장비 유지관리, 의약품의 품질과 유통, 병원운영과 의료정보, 전문인력 교육 등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북한이 지방병원과 의료서비스를 확대할수록 시설을 건설하는 것과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의 차이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산업분야에서는 생산설비와 함께 품질·표준, 공정관리, 원가와 에너지 효율, 생산정보화와 전문인력 교육을 검토할 수 있다. 관광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품개발과 운영관리, 인력교육, 서비스 표준이 중요하다. 지방개발이 확대될수록 상하수도과 폐기물, 산림과 수자원, 재난대응과 도시관리도 중요한 수요가 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공장과 공공시설의 에너지효율 개선, 설비 유지관리와 분산형 에너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력의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을 반드시 남북 양자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협력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산업공정과 기업협력, 개성공단과 같이 양측 기업과 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이 핵심적인 사업은 남북 양자협력이 중심이 될 수 있다. 반면 보건의료·감염병·식량·재난 등에서는 WHO, UNICEF, FAO 등 국제기구가 보유한 전문성과 사업관리 경험, 국제

적인 기준을 결합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국제기구 참여의 의미는 전문성·재원·사업경험과 국제규범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관광·교통·환경·수자원 등은 중국·러시아와 같은 제3국을 포함한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관광과 교통·물류망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참여도 기존 지역경제관계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 대기오염과 수질·산림·하천관리처럼 국경을 넘어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문제와 재난 대응, 관광노선, 철도·물류 등에서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보다 지역 전체의 경제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다자협력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자협력은 사업의 성격과 경제적 기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인 협력 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 사업의 내용과 경제적 기능에 따라 양자·제3국·국제기구·지역협력을 선택하거나 결합하는 것이 새로운 남북경협의 중요한 설계원칙이 될 수 있다.

4. 추진조건과 중장기 전망

현재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대북제재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규모 사업의 재개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보다 북한의 경제정책과 산업수요, 북중·북러 관계와 제3국 협력, 대북제재와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방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발전수요와 실제 협력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북한이 특정 분야를 정책적으로 중시한다고 해

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한국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경제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수요, 한국의 협력역량, 북한의 수용 가능성, 제재와 제도, 사업의 상호 편익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협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정치적 여건이 개선될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를 조절하기 쉽고 성과와 운영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농업·보건·환경·재난과 인력 양성, 기술·교육과 운영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공동관리와 정보공유, 물자와 재정의 정산, 성과 평가 등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완결과 남북관계가 더 개선되면 농식품과 보건, 관광·지역개발, 산업기술과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와 금융에 대한 제약이 크게 완화될 경우에는 산업단지와 교통·물류, 대규모 에너지·인프라와 산업현대화 같은 장기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협력의 단계와 순서는 분야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건·환경·재난 분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건이 마련될 수 있는 반면, 산업설비와 금융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상당한 제재완화 이후에야 가능할 수 있다. 관광과 초국경 환경처럼 주변국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도 남북관계만으로 추진 시점을 결정하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은 상대적인 위상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상당 기간 북한 대외경제의 기본적인 축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지만 러시아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능은 북러관계가 군사적 특수수요에서 일반경제 관계로 얼마나 확장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의 산업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외부협력에 대한 수요도 원료·자본 중심에서 기술과 생산관리, 품질·표준과 산업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은 특정 시점의 북한 경제 수준을 전제로 고정된 사업목록을 만들어 두기보다 북한의 발전전략과 대외경제 선택지, 제재와 정치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은 코로나19 국경봉쇄기에 비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2022년 이후 북중 교역과 북러 교류가 단계적으로 회복·확대되었고, 2026년 제9차 당 대회는 대외무역과 관광을 활성화하면서 우호국과의 관계를 국가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방향을 공식화하였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산업과 주민경제에 필요한 원료·중간재·부품과 상품을 공급하는 기본적인 대외경제 기반이며, 러시아는 군수수요와 에너지·자원·인적교류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변화의 핵심은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외부자원과 경제활동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상품 무역의 높은 대중국 집중, 러시아 협력 일부의 국제정세 의존성, 제3국과의 제한적인 경제관계는 여전히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은 북한 경제 회복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북중 무역의 정상화는 산업투입재의 조달조건을 개선하고 북러관계의 확대는 일부 산업에 새로운 수요와 외화·물자·에너지 확보경로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 설비의 가동률 상

승과 생산성 향상은 구분해야 하며 농업과 전력의 구조적 제약, 시장환율과 물가의 불안정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제9기 북한 경제를 평가하는 핵심은 대외무역과 외화수입의 규모 자체보다 외부에서 확보한 자원을 생산기반 강화와 설비현대화, 생산성과 품질 개선, 주민생활 향상으로 얼마나 전환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제9차 당대회가 제시한 '점진적인 질적 발전'도 실제 경제변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조건을 제기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공하는 경제적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한국이 자본이나 원부자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북한에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갖기는 과거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대북제재가 남북경제협력의 정치적·제도적 제약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남북경제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선형적인 접근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가 회복되는 동안에도 남북 반출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두 과정이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남북경제협의 경제적 가치는 북한의 발전수요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북한이 현재의 생산회복을 산업현대화와 질적 발전으로 이어가려 할수록 생산기술과 품질·표준, 설비운영과 유지관리, 산업서비스, 전문인력과 정보화 등 보다 복합적인 발전수요가 중요해질 수 있다. 지방발전과 주민생활 정책이 확대될수록 보건의료와 농업·식품산업, 관광서비스, 환경·재난과 도시관리 등의 수요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발전수요를

그대로 남북협력 사업목록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다. 향후 협력 가능성은 북한의 실제 수요가 무엇인지, 중국·러시아 등 다른 협력 상대를 통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 한국이 어떠한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재·경제성·지속 가능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협력의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과 기업협력에서는 남북 양자협력이 중심이 될 수 있고, 보건·환경·재난과 같은 분야에서는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사업경험을 결합할 수 있다. 관광·교통·물류·초국경 환경에서는 중국·러시아 등 제3국과의 지역협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다자협력을 양자관계의 대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참여구조를 선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제협력 정책의 핵심은 기존 사업을 언제 재개할 것인가에만 두기보다 변화한 북한 경제에서 남북경제협력이 담당할 수 있는 경제적 기능을 다시 설정하는 데 있을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과 관광, 철도·도로와 같은 기존 사업도 과거 사업모델을 그대로 복원하기보다 북한의 산업·관광·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동북아 지역경제 구조를 반영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개선이 남북경제협력에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의 경제적 부족 자체가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만들어주던 조건에서,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대외경제 선택지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이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조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도 북한 경제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고정된 사업목록보다 북한의 발전전략과 산업구조, 대외경제 선택지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변화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발전수요와 한국의 기술·산업·서비스 역량을 결합

하여 양측에 실제적인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의 특성에 따라 남북 양자협력과 국제기구, 제3국 및 지역협력을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방식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경렬, “경제개발구 로력관리개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 제71권 제1호, 2025.
- 김규철·남진욱, 『북러 밀착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KDI, 2025.12.
- 김동식, “대외무역규율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 『경제연구』 2026년 제2호.
- 김홍일,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발전을 도모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 제71권 제2호, 2025.
- 남진욱, “North Korea's Economy, H1 2026: A Sliding Won and a Tungsten Windfall”, 『38 North』, 2026.7.15.
- 한정민, “과학농사제일주의의 철저한 구현으로 농업생산의 안정적, 지속적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 제72권 제1호, 2026.
- 신문·통계자료
-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2026.2.26.
- 노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와 벨라루시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동지 사이에 회담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벨라루시공화국 사이의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식 진행”, 2026.3.27.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5년 북한 경제성장을 추정 결과”, 2026.7.31.
- DailyNK, “수매상점, 형식상 국가 가격제 따르지만 실상은 장마당 시세가 기준”, 2026.8.14.
- DailyNK, 북한시장동향 <<https://www.dailynk.com/market/>> (검색일:2026년 8월 23일).

북한 노동당 제8차와 제9차 대회 국가경제발전계획의 성과와 과제: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김미숙(지역과환경연구소 소장)

I. 서론

023

북한은 지난 2026년 2월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제8차 당 대회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년) 이행 등을 평가하고, 향후 5년의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6~2030년)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지난 5개년계획이 경제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완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공업부문들의 정비보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제의 적지 않은 분야가 노후와 침체에서 벗어나 계획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토대와 잠재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수도와 지방을 다같이 변모시키고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대한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하였다.¹

북한이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 동안 이룩했다고 하는 경제분야의 성과는 건설사업과 매우 밀접하다.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공사, 어랑천 3호발전소 등 새로운 동력기지 건설, 수도건설과 농촌살림집 건설,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등 대부분이 건설사업이거나, 또는 건설사업을 매개로 하는 것들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 전망 계획기간은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에서 추진되었던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과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언급하였다.² 새로운 5개년계획에서도 건설사업을 계속 전개하여 국력강화의 토대를 다지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어,³ 앞으로도 건설사업

1 노동신문, 2026.02.20. 2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 김정은".

2 노동신문, 2026.02.20. 2면, 위의 기사

3 노동신문, 2026.02.26. 1면, "불굴의 개혁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제8차와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계획 경제분야의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계획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5개년계획 건설부문의 성과와 새로운 5개년계획 건설부문의 과제를 검토하고, 두 계획 건설부문의 비교를 통해 변화와 향후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⁴

II. 제8차 당대회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1.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과 평가

가. 계획의 기본방향과 과제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년) (이하 ‘5개년계획’,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차 당대회 계획’ 또는 ‘지난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5개년계획의 기본(총적)방향을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두었다. 5개년계획의 중심과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 부문의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을 늘리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금속부문 핵심사업으로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의 건설과 주요 제철제강소 생산공정의 선진기술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화학공업에서는 기술역량 강화와 화학공업 구조개선 및 화학제품 생산확대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핵심 사업으로 탄소하나(C1)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규모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을 제시하였다. 전력, 석탄, 기계, 광업, 임업, 교통운수, 건설, 건재, 체신, 국영상업, 국토환경·생태, 도시경영, 관광에 대한 추진방향도 제시하였다. 전력부문에서는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 완료를 핵심 과제로 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조수력발전소 건설과 핵동력공업 창설로의 본격적인 진입’ 등을 제시하였다. 기계, 석탄, 철도운수, 육해운 부문 등에서는 현대화와 생산능력 확충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나. 제9차 당대회에서 평가

북한은 지난 5개년계획의 기본적 완수 결과 인민경제 각 부문의 기술복원과 보강, 발전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생산장성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다져지고 주저앉았던 부문들이 정상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전반을 동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

표 1 제8차 당대회 5개년 계획의 경제부문 기본방향과 과제

구분	내용
기본방향	경제발전 중심고리에 역량 집중 → 인민경제 활성화, 인민생활 향상 토대 구축
과제	· 금속공업, 화학공업 투자 집중 →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 정상화 · 농업부문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 알곡증산 · 경공업 부문의 원료자재 국산화, 재자원화 → 인민소비품 생산확대

4 이하 이 글에서 제8, 9차 당대회 계획 관련 내용은 노동신문 등의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사업총화보고 전문과 당대회 결정서는 당내본으로 출판, 당조직에만 배포된다고 함.

성이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계획기간 동안 12개 중요고지들을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집중하여 경제전반을 성장할 수 있게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농업생산력이 개선되었고, 낙후된 전국의 농촌마을들이 새롭게 변모되어 가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전국의 시, 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⁵ 수도와 지방을 다같이 변모시키고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대한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하였다.⁶

제15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2026.03.22.~23) 김정은 시정연설에서는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 동안 투자증가와 생산규모 확대 정도를 밝히고 있다. 2020년에 비하여 주요 경제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2.4배로, 그중 핵심부문은 8배 이상 늘었다고 언급하였다.⁷ 생산도 크게 늘었는데, 주요공업부문에서 주체철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면서 주체철은 3.2배, 질소비료는 1.5배, 유색금속은 1.9배, 시멘트는 1.4배, 수산물은 1.9배 늘었다고 언급하였다. 알곡생산량도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하였다. 강냉이 대신 밀재배로 알곡생산구조를 전환하고 있는데, 정보당 소출량이 강냉이에 비해 2~3배 늘었다고 언급하였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으로 전국 40여 개 시군에서 현대적 지방공업공장이

건설되어 가동중이고, 병원과 종합봉사소가 최상의 수준에서 시범 건설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평양과 농촌에서 살림집 건설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결과 전국적으로 5년 동안 35만 6,900여 세대가 건설되었고,⁸ 주민생활과 관련된 2,100여 개 대상이 신규 건설 또는 개건되었다고 하였다. 과거보다 건설속도가 크게 증가한 덕택에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건설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지난 5년간 교육부문과 보건부문, 정보통신부문, 국토환경부문과 도시경영부문, 수산부문을 비롯 모든 부문이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⁹

2. 건설부문 과제와 평가

가. 건설부문 기본과업과 주요과제

지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건설부문의 기본과업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기본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⁰ 평양에 연간 1만 세대씩, 5년간 5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비철금속광업 중심지인 검덕지구에 2만 5,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건설장비, 기공구 등의 개발 및 생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건재공업의 기본과업으로 시멘트 공급을 연간 800

5 노동신문, 2026.02.26. 1면, 앞의 기사

6 노동신문, 2026.02.20. 2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 김정은”.

7 노동신문, 2026.03.24. 1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8 노동신문, 2026.02.26. 1면, 앞의 기사

9 노동신문, 2026.03.24. 7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10 노동신문, 2021.01.09. 7면,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만 톤으로 확대하고, 마감건재의 자급자족 실현을 제시하였다. 시멘트 생산능력 확대와 관련, 시멘트공장을 개건하고, 입지조건을 고려해 선진기술을 갖춘 대규모 시멘트공장 신설을 제시하였다. 마감건재 자급자족과 국내원료에 의한 칠감 등 외장재생산기지 강화 및 관련 기술발전을 언급하였다. 탄소 및 에너지절감 건물 건설, 각 도들의 자체원료에 기반한 지방건재생산기지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¹¹

5개년계획 발표 이후 추가된 건설사업은 전국의 농촌살림집과 지방경공업공장 등의 건설이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전면적·균형적·동시적 발전'을 선포하고,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당면한 과제로 결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지역 간, 도·농간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새 시대 사회주의 농촌건설강령'(이하 새시대 농촌강령)을 채택한 후 전국의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수준으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1월에 발표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에 경공업공장을 조성하는 건설사업이다.¹² 매년 20개 시, 군에 김화군 수준의 현대적 지방공업공장과 함께 3대 필수시설(양곡시설, 병원 등 보건시설, 과학기술보급 등 문화적 거점)을 병행건설하여 10년 내에 모든 시, 군 인민들의 초보적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제8차 당대회에서 모든 시, 군들을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시·군강화노선을 채택하였는데,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이를 구체화한 실천전략이다(이정균 외, 2025: 4).

나. 건설부문 성과와 평가

(1) 살림집 건설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평양 5만 세대 공급을 초과 달성하였고, 검덕지구 수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에서 5년간 농업근로자들을 위해 11만여 세대를 건설하였고,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수해지역에 수만 세대 새 살림집을 완공하였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전국에 35만 6,900여 세대 살림집을 공급하였고, 주민생활관련 대상을 2,100여 개 신규건설 또는 개진하였다고 밝혔다.¹³ 북한은 8차 당대회 5개년계획에서 살림집 건설부문의 기본과업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도 평양에서는 평양 5만 세대외에도 경루동 800세대(2022.4.14. 준공), 대평지구 1,400세대(2023.5.21. 준공), 서포지구 4,100세대(2024.5.14. 준공) 등 총 5만 6,300세대¹⁴가 공급되었다고 한다. 새시대 농촌강령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농촌살림집 공급이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언론 보도를 활용하여 추정한 연구에 따르면 대략 공급목표량은 20만 세대이다. 이 경우 목표달성률은 약 55.0%로 목표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¹⁵ 살림집이 많이 건설

11 노동신문, 2021.01.09. 7면, 앞의 기사 및 토지주택연구원(2020: 3-4).

12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2024.01.25.) 김정은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발표.

13 노동신문, 2026.02.26. 1면, 앞의 기사

14 토지주택연구원(2025: 49)에서 집계한 것임.

15 김혁(2026: 51-54)은 언론보도를 활용하여 2022~2025년 4년간 공급목표량은 20만 세대, 공급물량은 11만

되어 공급되었다 해도 북한의 주택노후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주택부족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¹⁶

(2) 시멘트 및 마감재 생산 확대

대표적인 과제가 연간 시멘트 800만 톤 생산이다. 시멘트생산이 2020년 대비 1.4배 확대되었다고 밝혔다.¹⁷ 구체적인 생산량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8기 제9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2020년의 1.4배를 생산했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2023년과 2024년 12개 중요고지 성과발표에서는 시멘트 생산량이 목표의 101%를 달성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북한 시멘트 생산량은 2020년 569.0만 톤, 2023년 705.5만 톤(2020년 약 1.24배), 2024년은 720.1만 톤(2020년의 약 1.27배)이다. 2023년 대비 2024년은 약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¹⁹ 국가데이터처 자료와 북한 발표를 종합하면 계획기간 동안 800만 톤 생산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표 2 참고).

시멘트 보장을 위해 기존 시멘트공장의 개건현대화 및 신설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총화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천내리세멘트공장의 경우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공정 개선(새로운 부유가소식소성계통 확립) 보도가 있다.²⁰ 2022년 1월 제정된 「시·군건설세멘트보장법」에서는 상원, 승호, 천내리, 강동지구에 총 연간 675만 톤의 세멘트생산능력 신규조성 규정이 있으나, 관련 실적은 보이지 않는다.²¹

시멘트를 제외한 건재와 관련하여, 석재와 유리 등 마감건재제품생산이 확대되었다고 언급하는 수준으로 그쳤다.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된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에 마감재 공급을 위해 마감재 생산능력 보장을 위한 생산공정 보수 및 능력확장공사, 신규조성사업이 지방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기사를 기준으로 보면, 2022~2024년 동안 점차 집계가 늘어나고 있다. 2025년에는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있으나, 이는 2022~

표 2 북한의 연간 시멘트생산량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생산량(만 톤)	569.0	596.0	655.1	705.5	720.1
전년대비 증가율(%)	-	4.7%	9.9%	7.6%	2.1%
2020년대비 증가율(%)		4.7%	15.1%	23.9%	26.6%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 『2025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p.26에서 구성

3,000 세대, 달성률은 약 56.5%로 추정하였음. 이 글에서는 공급물량을 북한 발표를 따라 11만 세대로 계산함.

¹⁶ 조선중앙연감의 주택공급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멸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노후도 40년이상 즉 1954년부터 1984년까지 건설된 주택수는 대략 300만~334만 세대로 추정됨(최상희 외, 2018: 41에서 추정).

¹⁷ 노동신문, 2026.03.24. 7면, 앞의 기사

¹⁸ 국가데이터처(2025) 자료인 2020년 569만 톤을 기준으로 1.4배는 약 800만 톤이나, 국가데이터처와 북한의 시멘트생산량 추정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1.4배하여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¹⁹ 통일부(2025: 180)는 대규모 시멘트공장의 생산증가와 지방 마감건재공장의 생산 등으로 2025년에는 약 5% 내외의 생산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²⁰ 노동신문, 2024.04.28., “주체적인 세멘트공업발전에 이바지할 뚜렷한 성과”.

²¹ 「시·군건설세멘트보장법」(2022년 제정) 제12조 (세멘트생산능력조성).

표 3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 건설부문 사업 주요성과

부문		주요성과
건설		·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전국에 35만 6,900여 세대 살림집 공급 · 평양 5만 세대 공급 초과 달성, 검덕지구 수만 세대 살림집 건설 · 전국 시군에 5년간 농촌살림집 11만여 세대 건설 ·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수해지역에 수만 세대 새 살림집 완공 등
건자재		· 시멘트생산 2020년 대비 1.4배 확대 · 석재와 유리 등 마감건제품 생산 확대 등
기간 공업	금속	· 김책,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보수공사(주체철생산체계 전면 확립) 등
	기계	·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현대화(첨단기계설비 계열생산토대구축) · 금성트랙터공장 1, 2단계 개건현대화(능률높은 농기계생산 가능) · 중요기계공장 생산능력 강화 등
	화학	·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영양액비료공장 준공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탄산소다생산공정 등 여러 화학공장 개건 공사 완료 등
	전력	· 강원도에 6개 발전소 완공 등 신규발전소 건설 · 어랑천 3호발전소 준공 등
경공업		· 주요경공업공장 개건 · 평성점화일용품공장 신규건설 · (지방발전 20×10 정책) 전국 40여 개 시군에 현대적 지방공업공장 건설(평안남도 은산종이공장 등)
농업		· 수십만 정보 농경지 관개체계 완비 · 연포, 강동, 신의주지구 대규모온실농장 건설 등
수산업		· 신포시와 낙원군 바다기양식사업소 건설 등
교육		· 학생교복, 학생용품, 신발공장 건설 등
보건		· 평양종합병원 완공 등
관광사업		· 명사십리, 온포온천지대 관광지, 휴양소 조성 등

자료: 노동신문, 2026.02.26. 1면,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 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및 노동신문, 2026.03.24. 7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함에 대하여 -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및 관련 기사를 정리

2024년의 활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²²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공정개선, 생산능력확장, 신규 건설 등으로 생산능력은 보다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건설사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건설역량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을 것이다. 각 도에서는 전시회²³, 강습회를 통한 건설 기자재 질제고, 건설역량 강화를 꾸준히 모

²² 관련 보도기사는 다음과 같음. 전국적으로 백수십 개의 건재생산공정을 조성하거나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음(노동신문, 2022.07.16., “전국, 농촌살림집 건설 적극 추진 중”),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마감건재생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생산공정 보수 및 능력확장공사, 신규조성을 진행(노동신문, 2023.02.22., “올해 농촌살림집건설을 위한 준비사업 힘있게 진척”), 전국에서 800여 개 마감건재생산기지가 신설 또는 증설, 생산단위의 능력확장, 정비보강사업 추진 등(노동신문, 2024.11.27., “사회주의리상향으로 끝없이 진흥하는 새시대의 문화농촌”), 40여 개의 마감건재생산기지가 새로 조성되었고, 60여 개의 마감건재생산기지가 능력확장(노동신문, 2025.12.19., “올해 많은 지역들에서 마감건재생산공정을 신설 및 능력확장하였다”) 등.

²³ 북한은 2019년경부터 매년 12월에 ‘각 도건재전시회’를 개최, 성과와 경험을 공유, 기술 교류 장으로 활용(최은주, 2023: 55).

색하고 있다. 농촌살림집 건설을 위해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시군농촌건설건설장비 및 기공구전사회, 건설기능공실기강습을 조직하고 진행하였다. 도단위는 물론 시군단위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하고, 건재생산단위의 기술자, 기능공 역량을 높이는 사업, 건재생산단위간 기술교류 등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다. 타부문 건설 관련 사업 성과와 평가²⁴

(1) 기간공업부문

기간공업부문에서 건설된 산업대상으로는 금속부문에서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보수공사로 주체철생산체계 전면 확립, 기계부문에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공사, 금성트랙터공장 1, 2단계 개건현대화공사, 전력부문에서 어랑천 3호발전소, 강원도에 6개 발전소 등의 완공을 제시하고 있다.

김책 및 황해제철소 에너지 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준공으로 복한 금속생산능력이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금성트랙터공장 1, 2단계 개건 현대화,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1단계 현대화 등으로 기계공장의 현대화와 생산능력 확충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2025: 115).

탄소하나(C1)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규모 메탄을 생산공정 건설은 언급이 없었고, 관련 보도도 거의 없어 진척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전력생산과 관련 어랑천 3호 및 지방의 중소형수력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졌으나, 핵심사업인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는 계

획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다.²⁵ 기간공업부문의 대상 건설은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금속과 기계 등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2) 인민생활부문

경공업부문에서는 주요경공업공장 개건, 학생교복, 학생용품, 신발공장 건설, 평성점화일용품공장 신규건설,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에 따라 전국 40여 개 시군에 현대적 지방공업공장 건설 등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연포, 강동, 신의주지구 대규모온실농장 건설, 수십만 정보 농경지 관개체계 완비, 수산부문에서는 신포시와 낙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²⁶

인민생활향상부문의 대상건설은 계획에서 언급한 사업들이 대체로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3) 사회문화부문

교육부문에서는 학생용품 공장 건설, 보건부문에서는 평양종합병원 완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시설이 지방공업공장과 함께 조성해야 할 필수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조성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4) 관광사업 및 기타

관광사업의 건설대상으로는 명사십리(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온포온천지대에 관광지, 휴양소를 조성했다고 하였다. 계획에서

²⁴ 건설부문은 살림집이나 인프라 건설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조성도 포함된다. 특히 산업대상의 시설조성 및 공정개선, 개건에 많은 건설활동이 수반된다. 따라서 5개년계획에서 언급한 건설부문은 물론 타부문 건설관련 과제도 함께 검토함.

²⁵ 제8차 당대회 5개년계획 기간이 지난 2026년 5월에 1단계 준공 보도가 있음(노동신문, 2026.05.27. 1면, “경제발전을 담보하는 동력기지”).

²⁶ 노동신문, 2026.03.24. 7면, 앞의 기사

는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따라 5개년 계획 기간에 연차별, 단계별로 진행하여, 금강산지구를 북한식 현대적 문화관광지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성과에서는 언급이 없었다. 또한 동서해안 건설사업이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총화에서 언급하지 않아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II. 제9차 당대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1.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6~2030)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기본과업은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인민생활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⁷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은 안정공고화 단계, 점진적 질적발전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9기 사업의 기본(총적) 목

표이자 원칙이라고 하였다. 제8차와 제9차 당대회 5개년계획 기간의 연속선 위에서 제8차 당대회 5개년계획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경제발전을 질적으로 심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 경제부문의 과업은 기간공업부문의 생산토대를 다져 경제 전반의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중요과제는 기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전반의 기술개진 사업에 국가적 투자를 집중하여, 국가경제의 기동인 금속, 화학, 전력, 석탄부문의 생산잠재력을 더욱 다지는데 힘을 넣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전력부문과 석탄부문의 생산실적에 따라 경제성장 폭이 좌우되므로 전력과 석탄생산증대에 실제적 효과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에 전반적 공업부문의 발전토대를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공업부문 생산액을 1.5배 늘릴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²⁸

경공업부문에서는 현존 경공업공장들의 설비와 공정 갱신, 인민소비품의 질제고, 품종 확대를 경공업발전의 기본과제로 제시하였다. 학생교육과 관련된 소비품의 공급 등 사회주

표 4 제9차 당대회 계획 경제부문 기본과업과 과제

구분	내용
기본과업	·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의 성과 공고화와 안정적, 지속적 경제성장 발전토대 구축 · 인민생활 실제적 개선
사업의 목표와 원칙	· 안정공고화단계, 점진적인 질적발전단계 이룩
과제	· 핵심적인 기계제작기지 개건현대화로 기간공업부문 기술하부구조 갱신 · 기간공업(금속, 화학, 전력, 석탄)부문 생산잠재력 강화, 금속, 화학부문의 새로 조성된 생산능력 최대로 발휘하도록 여건조성, 전력과 석탄생산 증대 조치 · 공업부문 생산액 1.5배 증대

자료: 노동신문, 2026.03.24. 1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었다”에서 구성

²⁷ 노동신문, 2026.02.26. 1면, 앞의 기사

²⁸ 노동신문, 2026.03.24. 1면, 앞의 기사

의적 시책들을 정확히 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된 농업,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에 알곡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과업으로 국가 차원의 관계 체계 완비, 영농기계화, 간석지개간으로 경지면적 확대 등, 농업생산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질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밀 농사 생산량 증대와 밀 가공능력 확장을 제시하였다. 전국에 현대적인 남새온실, 축산기지, 가공기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수산물 생산도 늘릴 것을 강조하였다.

2. 건설부문 과제

북한은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에도 살림집 건설을 비롯하여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을 계속 창조하기 위한 건설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수도의 화성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보다 현대적이고 편리한 살림집들과 새 거리들을 계속 건설하고, 도 소재지와 농촌, 그리고 탄광마을들에도 살림집을 건설하여 계획기간 동안 37만 세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인 탄광도시로 탈바꿈하고, 매년 2만여 세대씩 4년간 총 8만여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하였다.²⁹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의 풍격을 갖춘 훌륭한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년 동안 화성지구를 정치, 경제, 문화적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행정구역의 표본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건설을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전국의 도

소재지들에 대해서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변시키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재와 관련해서는 시멘트공장들의 생산공정을 정비보강하고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활용하여 시멘트생산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리와 석재를 비롯한 마감건재의 국산화,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⁰

새로운 5개년계획에는 고속, 관광 및 주요도로 기술개선을 포함하는 국토환경관리, 도소재지의 생활용수생산능력조성 등 도시경영부문,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의 집행 관련 인재육성기지 조성, 기존 교육시설 개건, 수도와 지방에 현대적인 병원 조성 등 건설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³¹

IV. 제9차 당대회 5개년계획 건설부문의 변화와 전망

1. 제8차 당대회 5개년계획 건설부문과 비교

가. 살림집 공급목표량 설정, 공급지역과 공급대상 확대

제8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평양 5만 세대 등 계획기간 동안 특정지역 공급목표량을 제시하는 수준이었으나,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5년 계획기간 동안 전체 살림집 공급목표량을 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 계획과 비교시 소폭 증가에 그치나,

²⁹ 제8차 당대회에서도 석탄증산의 선결과업으로 탄부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개선에 대해 언급함(노동신문, 2021.01.09. 7면,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³⁰ 노동신문, 2026.03.24. 7면, 앞의 기사

³¹ 노동신문, 2026.03.24. 1면, 앞의 기사

공급가능성 등을 고려한 목표치라고 보인다. 다음으로 살림집 건설 지역과 수혜대상이 다양화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에는 평양과 농촌살림집 등이 중심이었지만,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도소재지 개변과 모든 탄광마을 살림집 건설이 추가되었다. 제8차, 제9차 당대회 계획 공통으로 살림집 공급의 목적은 수혜대상 집단의 생산성 제고와 밀접하다. 농촌살림집 건설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농업생산성을 높여 절박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배경이다. 탄부살림집 건설도 이와 유사하다. 석탄 생산실적에 따라 경제성장 폭이 좌우된다고 판단하고, 석탄 생산증대 방안으로 탄부 생활여건 개선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신규 시설조성보다 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한 생산증대

제8차 당대회 계획과 비교시 산업대상에서는 신규시설 조성도 있지만, 이미 완수된 경우는 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한 생산증대를 꾀하고 있다. 기간산업인 금속, 기계의 경우 제8차 당대회 계획에서 완수한 주철생산체계 활용 또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 개건현대화 경험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 토대구축에서 중요하나 미완성인 과제는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만성적으로 부족한 전력의 생산증대를 위해 신규발전소 건설이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건재부문에서는 제8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시멘트 생산량 증대를 위해 양적 목표 및 선진적인 대규모 시멘트공장 신설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시멘트공장 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한

생산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 동안 기존 대규모 시멘트공장의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지방에 마감건재 생산기지가 조성되면서 지방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건재의 비중이 높아져 중앙의 건재 공급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2025: 180).

다. 지방발전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건설 확대

지방발전정책은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 사업내용과 사업추진가능성에서 다소 진전되고 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2024년 시작되어, 2년이 경과되었고, 3대 필수시설 등이 시범 건설되는 수준이었다면,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매해 20개 시군 모두에 연초 착공, 연말 준공이라는 사업기간을 제시하고, 지방공업공장, 병원, 종합봉사소 등 건설해야 하는 시설과 함께, ‘어김없이 건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계획된 건설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본격적 추진에 따라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조성된 지방경공업공장의 가동여건을 갖추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다.

라. 기타 여러부문, 전국 각지 개발 제시

제8차 당대회 계획에서 동서해안 건설이라는 대형 건설사업을 제시했지만,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일상적인 국토관리를 중심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관광사업에서는 제8차 당대회 계획에서 금강산지구 개발이라는 대형 건설사업을 제시했지만,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관광을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의 명소 관광문화지구화, 전국각지 문화휴양지 조

성 등을 제시하여 관광지 조성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보건부문은 제8차 당대회 계획에는 치료예방기관, 제약 및 의료기구공장 개건 등 시설을 제시했으나,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시설조성 대상 지역을 전국 100개 시군이라고 언급하면서

각 지방에 보건시설 조성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마. 종합

두 계획의 건설부문 및 타부문 건설 관련 과제 비교를 종합하면, 제9차 당대회 계획의 특징은 대규모 신규시설 조성보다는 공정개

표 5 제8, 9차 당대회 5개년계획 건설부문 및 타부문 관련 주요과제 비교

부문	제8차 당대회 5개년계획 (2021~2025)	제9차 당대회 5개년계획 (2026~2030)	주요 변화
건설	· 살림집(평양시, 연간 1만 세대, 5년간 5만 세대,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 시군소재지 면모 일신 · 농촌살림집	· 살림집 5년간 37만 세대 건설(농촌과 도시지역, 탄광마을 등) · 수도건설 · 전국도소재지 개변 연차별 추진	· 살림집 공급 목표량 제시(실적 대비 소폭 증가) · 살림집 공급지역과 대상 확대 · 소재지 개발 · 변화(시군→도소재지)
건재	· 800만 톤 시멘트고지 점령 · 기존 시멘트 공장의 개건 현대화 및 능력이 큰 공장 신설 · 마감건재 국내생산 증대 및 마감재 수입대체 등 · 지방건재수요 자체 보장 등	· 건재부문 생산잠재력 확대 · 시멘트공장 생산공정 정비보강, 생산확대 · 마감건재 국산화·다종화·다양화	· 양적 목표 및 대규모 시멘트공장 신설 계획 보이지 않음
기간 공업	금속	· 김책, 황해제철소 에너지 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 제8차 당대회 계획에서 완수한 주체철생산체계 활용
	화학	· 탄소하나(C1)화학공업 창설 · 대규모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	· 목표 미달성 과제 지속 수행
	전력	·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 완료 · 조수력발전소 건설	· 신규발전소 조성 지속 등 제8차 당대회 계획과 유사
	석탄	· 현대화, 생산능력확충	· 탄부 후방사업 추진 (석탄증산 조치)
	기계	· 현대화, 생산능력확충 · 용성기계연합기업소 개건현대화 공사	· 용성기계연합기업소 개건현대화 경험 확산
	철도	· 철도 현대화 · 철길 안정성 확보, 중량화 표준철길구간 확대 · 평양지하철도 기술개건, 평양지하철도역 현대화 공사	-

부문	제8차 당대회 5개년계획 (2021~2025)	제9차 당대회 5개년계획 (2026~2030)	주요 변화
경공업	· 현대화 및 공정개선 ·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지방경공업공장 건설	· 새로조성된 지방공업공장 원료기지 조성	· 조성된 공장 가동 기반조성
농업	· 알곡고지점령과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 새땅찾기, 간석지개간 등	· 밀가공능력 확장 ·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건설 · 관개체계 완비 · 간석지개간 목표달성	· 알곡생산구조 변경 대응
수산업	· 수산사업소, 선박수리기지 조성	· 양어와 양식 대대적 전개	-
국토·생태계	· 치산치수로 자연재해 예방 · 도로건설과 관리 · 동서해안건설	· 국토환경보호사업 개선, 산림복구 및 개조사업 추진 · 고속, 관광 및 주요도로 기술상태 개선	-
도시경영	· 강력한 살림집보수대책 · 먹는물생산능력 확장 및 질 개선 · 신규 오수정화장 건설 · 원림설계 수준 향상	· 살림집, 공공건물, 도시군 소재지의 포장도로 및 다리보수 · 생활용수생산능력조성 및 녹지확대 등 · 대중교통운수, 도시난방문제 해결 등	-
관광사업	·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따라 금강산지구를 현대적 문화관광지로 전환	· 관광지구건설, 관광자원개발 등 · 삼지연지구 및 지방의 명소 관광문화지구화, 전국각지 문화휴양지 조성 등 · 경제성장 추동 새로운 산업	· 각 지방의 관광자원 활용 개발(내외국인 대상) · 관광의 중요도 격상
교육	· 학교건설 및 교육환경 일신 등	· 전반적 교육토대 현대적 완비 · 인재육성기지조성, 기존 교육시설 개건 등	-
보건	· 치료예방기관, 제약 및 의료기구공장 개건 등	· 향후 5년간 지방에 현대적 보건시설 조성, 전국 100개 시군에 선진적인 병원 건설, 필수의료기관 추가설치, 도소재지 종합병원 건설, 평양에 종합병원 추가건설	· 보건시설 조성 대상 지역 확대
지방발전 정책	·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 경공업공장과 병원, 과학기술 보급 거점, 양곡시설 등 건설	· 매해 20개 시군에 지방공업 공장, 병원, 종합봉사소 반드시 건설(연초 착공, 연말 준공)	· 사업추진일정 제시 · 병원, 종합봉사소 시범조성에서 대상 시군 전체로 확대

자료: 계획내용은 토지주택연구원, 2020, 『북한건설개발동향』, 2020년 4분기, pp.5~6, 노동신문, 2021.01.09.7 면, 앞의 기사, 노동신문, 2026.02.26. 1면, 앞의 기사, 노동신문, 2026.03.24. 7면, 앞의 기사에서 정리

선 등을 통해 기존 시설의 생산능력 제고, 특정지역에서 대형 건설사업 추진보다는 전국 각지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추진으로 무게중심이 다소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살림집, 지방공업, 병원, 종합봉사시설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시설의 경우에는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도 신규 건설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대규모 공장의 신규 건설보다는 공정개선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각지에서 시설 조성을 강조하는 과제 설정은 제9차 당대회 계획이 확장보다는 점진적 발전을 지향하고, 지방의 발전, 균형발전의 계획 방향과도 맞닿아 보인다. 제8차와 제9차 당대회 5개년계획의 건설부문 및 타 부문 건설 관련 과제의 주요 변화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2. 제9차 당대회 5개년계획 건설부문 전망

제9차 당대회 5개년계획 건설부문은 제8차 당대회 계획 기초와 연속성을 가지면서 역할과 사업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살림집 공급을 대표적인 건설사업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건설의 지속이 예상된다.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 동안 살림집공급량과 제9차 당대회 계획기간의 공급목표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만큼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사업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에는 지방경공업공장과 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병원, 종합봉사소 등의 건설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대상시설을 반드시 건설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추진 일정도 제시한 만큼 건설대상시설

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 건설이 예상된다.

셋째, 공간적으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보다, 전국 각지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단위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시의 살림집 건설과 관광지구 개발 등 일부 특정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도 예상되나,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을 강조함에 따라 건설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전국의 시·군 단위로 확대되는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일부 기간산업에서는 신규 대규모 산업대상의 건설보다는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증대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 가운데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에 완료되지 못한 과제는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9차 당대회 계획 과제 수행에는 몇 가지 제약요건이 수반될 것이다. 첫째,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자재, 인력 그리고 생산시설의 설비투자 등을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이다. 건설사업의 수요가 제8차 당대회 계획과 비교했을 때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향후 5년간 매년 20개 시군에서 시설조성은 제8차 당대회 계획보다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다. 중요한 전자재인 시멘트 생산을 보면, 12개 중요고지 결과 발표에서 시멘트 생산이 2023년과 2024년에는 목표량을 101% 달성하였다고 한다. 2025년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다만 지방에 마감건재생산기지가 조성되면서 건재 수요의 일부를 지방이 자체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시멘트 수급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자재 등 투입요소의 적절

한 배분과 재정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설비투자 등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사업추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둘째, 조성된 시설의 정상운영 여건이 얼마나 갖춰지느냐이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주민생활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조성된 시설의 정상운영이 필요하다. 즉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조성된 공장, 병원 등 보건시설, 과학기술보급거점 등은 조성보다 가동이 더 중요하다. 이에 ‘지방발전 20×10 정책’ 집행법을 제정하여 운영단계의 지도체계도 규정하고 있어(통일뉴스, 2026.06.30.) 북한 당국도 정상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도체계 규정만으로는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공장 가동을 위해 각 지방의 전력 등 운영 기반의 안정성, 원료원천 기지 개발, 수입의 존도가 높은 경공업중간재 공급 문제 대응 등의 능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보급 거점 등 종합봉사소, 보건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전문적인 관리 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건설과 운영을 동시에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군마다 필수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가동과 운영은 매년 반복되는 과제이므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상운영을 위한 여건이 불충분할 경우, 가시성 있는 시설의 건설은 어느 정도 진행된다 하더라도, 전문성과 인적 인

프라가 필요한 시설 등은 운영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제9차 당대회 계획의 목표 중의 하나가 인민생활향상인데, 살림집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부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인민생활향상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의 증가량은 5년간 약 1만 3,100세대, 약 3.7% 증가하는 정도다. 연간 1%를 밑도는 증가량으로 아주 미미하다. 따라서 살림집 공급부족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다.

농촌살림집과 탄부살림집의 상대적인 공급량 차이가 매우 커서, 농촌마을과 광산마을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지난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농촌살림집 11만여 세대를 농업근로자에게 공급했다. 탄부살림집은 총 8만여 세대를 건설하여 ‘모든’ 탄광마을에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모든 탄광노동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농촌살림집 공급량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종사자수 대비 수혜 대상자 차이가 크다.³² 물론 새로운 계획기간에도 농촌살림집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한된 건설인력, 자재 등을 고려할 때 지난 계획기간에서 공급한 수준을 많이 초과하여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이 글에서는 제8차와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건설부문

³² 국가데이터처 북한통계포털의 ‘2008년 인구일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자 수를 보면, 알곡생산부문 종사자 수는 약 3,468,989명임. 단순히 가구당 종사자 수가 1인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대상자 중 3%만 수혜자가 된 것이고, 종사자 수가 2인이라고 해도 6%임. 반면 탄광부문 종사자수는 321,325명으로, 가구당 종사자수가 1인이라면 25%이고, 종사자수가 2인이라면 50%에 해당함.

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 내각사업보고 등 노동신문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지난 계획기간 건설부문의 성과와 새로운 계획기간의 과제를 살펴보고, 두 계획 사이의 변화와 향후 전망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두 계획은 건설사업을 경제성장과 주민생활 개선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상당 부분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 중에 시작된 사업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본격 반영되고 확장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건설부문의 무게중심이 특정 지역의 대형 사업에서 전국에 분산된 지방 생활 기반 조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계획이 처음 발표될 당시에는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금강산지구 개발, 동서해안 건설, 대규모 시멘트공장 신설 등 특정 지역의 대형 사업이 중심에 있었다. 전국의 농촌 살림집 건설과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지방공업공장 건설은 애초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계획기간 중에 추가된 사업들인데, 오히려 지난 계획기간을 대표하는 사업이 되었다.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 매해 20개 시군의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종합봉사소 건설, 전국 100개 시군의 병원 건설, 모든 탄광마을의 살림집 건설이 계획의 골격을 이루게 된 것은, 지난 계획기간 중에 형성된 이러한 흐름이 계획단계부터 정식 과제에 반영하고 확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발전 정책과 관련된 건설이 계획기간 중의 추가 과제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에서는 중요과제로 변화한 것이다.

셋째, 양적 확대보다 실현가능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조정되었다. 대규모 시멘트공장 신설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시설의 공정개선과 정비보강으로

방향을 바꾼 점, '지방발전 20×10 정책'에서 연초 착공과 연말 준공이라는 사업기간을 명시한 점은 계획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림집 공급목표 37만 세대는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의 실적보다 약 1만 3,100세대, 3.7% 많은 수준으로 증가폭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규모와 건설역량을 고려하면 연간 7만 세대가 넘는 물량을 5년 동안 지속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거와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 계획기간에 끌어올린 건설 속도와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다만 주택노후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의 공급으로 주택부족이 해소되기는 어려워, 인민생활의 실제적 개선이라는 기본과업이 주민들에게 체감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살림집 공급의 범위는 농촌에서 탄광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다.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에 북한이 인식한 병목이 식량이었다면,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전력과 석탄의 생산실적이 경제성장의 폭을 좌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살림집 공급에도 반영되어, 농촌살림집 건설을 계속하면서 여기에 더해 모든 탄광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탄부살림집 건설을 새로운 과제로 추가하였다. 농촌에 대한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순위의 교체라기보다 공급 대상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살림집 건설을 수혜대상 집단의 생산성 제고와 결부해서 추진하는 북한 건설사업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섯째, 계획 이행의 관건도 중앙의 자재 공급 및 설비투자 등의 여건은 물론 지방의 재정과 운영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 조성된 공장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정상 가동하는 일은 지방의 역량에 좌우된다. 제9차 당

대회 계획 건설부문의 성패는 계획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가보다, 건설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그동안 북한의 경제계획을 평가하는데 건설부문이 가시적인 지표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준공 실적보다 조성된 시설의

가동 실태로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계획 이행의 병목이 상대적으로 시설조성여부보다 운영 역량에 있다면, 향후 남북 간 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간 접점이 되었던 대형 인프라건설만이 아니라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 분야도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데이터처, 2025, 『2025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김혁, 2026, “북한의 새시대 농촌주택 건설성과와 한계”, 『2026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 발표논문집』.
- 이정균 외, 2025,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KIEP(KIEP 기초자료 25-4).
- 최상희 외, 2018, 『북한 주택사업 중장기 전략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 최은주, 2023, “김정은 시대 사군강화노선의 등장과 함의”, 『KDI북한경제리뷰』 12월호.
- 통일부, 2025, 『2025 북한경제연례평가』.
- 토지주택연구원, 2020, 『북한건설·개발동향』 2020년 4/4분기.
- 토지주택연구원, 2025, 『북한건설·개발동향』 2025년 3·4/4분기.
- 통일뉴스, 2026.06.30., “[민주조선], '지방발전정책' 집행법 해설... '비상설 중앙추진위가 통일적 지도'”.
- 국가데이터처 북한통계포털, 북한통계 인구일제조사.
<https://kosis.kr/bukhan/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 (접근일: 2026.08.03.).

PART 2

건설·개발 주요동향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ends



I. 2026년 국가예산 계획¹

2025년에는 기본건설투자를 통해 수도건설, 지방발전정책대상, 단철발전소 1단계공사, 용성기계연합 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 공사 등을 추진, 2026년에는 국가예산지출과 하위 인민경제사업비를 큰 폭으로 늘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6~2030년)의 1차 연도 과업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

1. 2025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주요 내용

- 국가재정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5년에는 전년대비 수입규모는 7.2%, 지출은 3.7% 증가하는 등 예년에 비해 예산수입이 크게 증가함
 - 공장, 기업소들의 전례 없는 생산 양상으로 예산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자체 평가

표 1 연도별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 증가율

	예산수입				예산지출	
구분	예산수입계획 집행률(%)			전년대비 수입증가율(%)*	지출예산	전년대비
연도	국가전체	중앙	지방		집행률(%)	지출증가율(%)*
2022	100.7	100.7	100.5	1.5	99.9	1.6
2023	100.5	100.6	100.3	1.5	99.8	0.8
2024	101.6	100.8	103.7	4.3	-	3.2
2025	105.1	104.6	106.5	7.2		3.7

자료: * 연도별 예산계획에서 발표한 증가율임

- 지출 항목별로 국방비 15.7%, 인민경제사업비 13.1%, 사회문화사업비 38.9%를 차지, 이 가운데 인민경제사업비는 5개년계획의 성과적 완수에 초점을 두고 배분했음

¹ 노동신문, 2026.03.24. 7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 제1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표 2 2025년 인민경제부문의 건설관련 주요투자 활동

주요세부항목	건설투자활동	전년대비 지출증가율
기본투자	수도건설(5개년계획 초과완수), 지방발전정책, 단천발전소 1단계공사, 용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 등 국가건설대상사업	1.1%
농업	식량생산(기계화비중 제고 등), 농촌살림집, 관개시설, 간석지 건설 지원 등	1.7%

2. 2026년 국가예산 계획 주요 내용

- 2026년 국가예산은 국방력 강화, 인민경제전반의 올해 생산목표 달성, 인민생활향상 등 새로운 5개년계획 첫째 과업을 성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
- 국가예산수입은 전년대비 0.5% 증가, 세부항목 대부분은 이 값보다 높게 편성
 -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은 예산총수입의 84.4%를 차지하는데,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 증가를 보수적으로 예견, 전년대비 증가율을 각각 0.1%, 0.3%로 계획
 - 고정재산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증가율은 모두 2%를 상회, 지난해 완공된 국가건설대상, 살림집 공급확대, 기관, 기업소 활성화 등 반영 추정
 - 특수경제지대수입은 covid-1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나선특별시에서 외국(중, 러 등)기업의 시설사용료 등의 수입 증가 기대 반영 추정

표 3 연도별 주요부문별 예산 수입계획의 전년 대비 증가율(%)

구분	2012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수입 전체	8.7	4.1	3.1	3.2	3.7	4.2	0.9	0.8	1.0	2.7	2.0	0.5
국가기업이익금*	10.7	4.5	3.5	3.6	4.3	1.2	1.1	0.9	1.2	3.2	2.5	0.1
협동단체이익금*	5.3	1.5	1.6	0.9	1.1	0.4	0.4	0.4	0	0.2	0	1.8
고정재산감가상각금	2.3	-	-	-	-	-	0.1	0	0.7	1.5	0.7	2.7
부동산사용료	1.7	4	2	1.8	0.3	0.1	0	0.3	0	2	0	2.5
사회보험료	1.7	1.1	1.2	1.2	0.2	0	0.3	0.2	1.0	2	1	2.4
거래수입금	7.5	3.3	2.4	2.5	4.1	-	0.8	0.6	0.3	0.5	0.6	0.3
재산판매및가격 편차수입	-	2.5	-	0.5	-	0.3	0.1	0	0.1	0.3	0.1	2.8
집금 수입	-	-	-	-	-	-	-	580.0	0.2	0.4	0.2	2.0
기타 수입	-	1.3	1.2	0.8	0.5	0.2	0.6	0.2	0	0.1	0	4.3
특수경제지대수입	-	4.1	1.2	2.5	1.6	-	0.2	0	0.3	0.6	0.3	1.4

자료: 김정은 집권 연도 및 7차 당대회부터 집계함. 노동신문 각 연도 국가예산 발표기사에서 구성.

* 2021년까지는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으로 명명, 2022년부터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으로 변경함

- 국가예산지출은 전년대비 5.8% 증가하는 수준에서 계획하고, 지출총액의 43.8%를 사회주의 경제건설 투자(전년대비 5.5% 증가)에, 15.8%를 국방비에 할당함
 - 인민경제부문증가율은 6.3%로 국가예산지출증가율보다 큰데, 하위항목인 기본건설은 4.9%, 농업은 5.7% 증가, 따라서 비공개된 공업부문증가율은 매우 클 것임
 -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자립화 현대화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하도록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6% 확대하고, 사회주의문화사업부문에서 교육은 전년대비 6.0%, 보건 5.6%, 체육 2.8%, 문화 3.1% 늘림

표 4 연도별 주요부문별 예산 지출계획의 전년 대비 증가율(%)

구분	2012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지출전체	10.1	5.6	5.4	5.1	5.3	6.0	1.1	1.1	1.7	3.4	3.8	5.8
인민경제발전	-	-	-	4.9	5.4	6.2	0.6	2.0	1.0	0.4	1.6	6.3
-공업 (선행부문)	9.4~	4.8	4.5									
-농업	12.1	4.3	4.4	5.5	5.7	7.2	0.9	-	14.7	0.1	1.7	5.7
수산		6.9	6.8									
-산림	-	7.5	7.2	4.9	6.6	-	-	-				
-기본건설	12.2	13.7	2.6			-	-	-	0.3	0.5	1.2	4.9
과학기술*	10.9	5.2	8.5	7.3	8.7	9.5	1.6	0.7	0.7	9.5	9	5.3
사회주의문화								0.4				
-교육	9.2	8.1	9.1	5.9	5.5	5.1	3.5	2.6	0.7	6	6.4	6.0
-보건	8.9	3.8	13.3	6	5.8	7.4	2.5	0.7	0.4	5.5	5.6	5.6
방역 사업								33.3	0	0	0.2	1.1
-사회보장	7.0	-	-	-	-	5.8	-	-	-			
-체육	6.9	4.1	6.3	5.1	4.5	4.3	1.6	0.8	0.1	5	5.4	2.8
-문화	6.8	7.4	4.6	3	4.1	-	2.7	0.3	0.3	5	5.7	3.1

자료: 김정은 집권 연도 및 7차 당대회부터 집계함. 노동신문 각 연도 국가예산 발표기사에서 구성.

*: 2023년까지 인민경제발전의 하위 항목, 2024년부터는 독자 항목으로 분리함

4. 시사점

- 올해는 새로운 5개년계획(2026~2030년) 첫해로 국가예산지출을 크게 늘렸는데, 특히 경제발전토대구축을 위해 인민경제사업비를 크게 늘림
 - 인민경제부문 하위의 공업부문증가율은 밝히지 않았으나, 인민경제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 기간공업 현대화 등 9기 목표달성을 위해 첫해 성공적 안착 의도
 - 이에 따라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 등 주요경제부문 중요대상들의 기술 개진 및 현대화공사, 신규건설 등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발전과 주민생활개선, 수도건설을 8기에 이어 9기에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기본건설투자비, 농업사업비 등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림
 - 지방발전정책대상, 살림집건설, 관개체계 정비, 간석지 개간 등 농업인프라구축, 화성지구의 행정구역표본화 사업 등의 건설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석탄부문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탄부살림집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인민경제부문은 물론 교육환경개선과 보건현대화 구상을 포함하는 사회주의문화부문의 9기 중점과업의 추진수단의 하나가 건설사업임
 - 예산지출규모 증가에 맞춰 건설부문의 중요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임

II. 2026년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황

3차 연도 사업으로 20개 시·군에서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함께 건설하는 ‘패키지형’ 방식 전면 적용. 1월 29일 은률군을 시작으로 2월 9일까지 모든 대상을 착공, 6월 하순까지 골조 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하여 연내 준공 추진 중. 1·2차 연도 40개 시·군 공장은 제품 가짓수가 준공 초기 대비 근 3배로 늘었으며, 원료기지 조성과 기능공 양성이 생산정상화의 관건으로 부각

1. 《지방발전 20×10 정책》 개요

- (발표·확정)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로 공표하였고, 이후 1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책을 공식 확정하고 인민군 투입을 결정
- (핵심 목표) 10년 동안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세우는 것
 - 소규모 표준형 공장을 전국에 고르게 배치함으로써 생활필수품의 안정적인 공급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
- (추진체계) 과거와 달리 ‘중앙-군대-지방’이 명확히 역할을 분담하는 중앙집권적 방식
 - 중앙: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가 지휘를 맡아, 자금, 인력, 자재를 책임 보장하며 표준 설계와 설비 배치를 지원
 - 군대: 조선인민군 제124연대가 건설의 주역으로 동원
 - 지방: 각 시·군은 공장 운영과 유지를 담당하며, 특히 원료기지(기름작물, 종이원료림, 지역 특산 원료 등) 조성에 주력
- (집행 원칙) 노력·부지·에너지 절약형 건설, 자재(시멘트, 강재, 목재 등) 우선 배정과 수송 조직화,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기한 준수, 기술 인력 양성, 관리기구 정비, 원료기지 조성과 품질 향상 등
- (정책의 확장) 2025년 시범 도입한 보건·문화시설 건설을 2026년부터 모든 대상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제9차 당대회에서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건설하는 것을 새로운 5개년계획의 과업으로 명시

2. 3차 연도(2026년) 추진 현황

- (2차 연도 마무리) 2025년에 착공한 21개 시·군(은산군 종이공장 포함)의 건설 대상은 2025년 12월 중 모두 준공하였고, 2026년 초부터 본격 가동
 - 평안남도 신양군은 1년 전에 비해 지방공업제품 가짓수가 5배 이상, 공업총생산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도(노동신문, 05.07)
- (건설 대상의 패키지화) 3차 연도부터는 20개 전 지역에서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동시에 건설
 - 김정은 위원장은 은률군 착공식에서 올해 사업으로 “전국의 시, 군들의 근 3분의 1이 개벽”되게 될 것이라고 언급(노동신문, 01.30)

- 함경남도 리원군에는 신포시, 락원군에 이어 세 번째 바다가양식사업소를 별도로 건설

그림 1 평원군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 착공식



* 출처: 연합뉴스(2026.02.01.), “북한, 연일 지방공장 착공…“국가의 최우선적인 과업””.(원출처: 조선중앙통신)

- (착공) 1월 29일 황해남도 은률군 착공식을 시작으로 2월 9일까지 20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착공
 - 1.29 은률군(김정은 위원장 참석), 1.31 평원군, 2.3 신의주시(온실종합농장지구)·강남군·맹산군, 2.5 락원군, 2.6 무산·송화군과 대안·판문구역, 2.7 신평·선천군, 2.8 봉산·시중·신흥·통천군, 2.9 화평·평강·리원·명간·삼수군
- (공정 진척) 착공 4개월여 만에 주요 대상의 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
 - 3월 초 기초굴착, 3월 말 기초콘크리트치기를 마치고, 5월 중순 20개 시·군 지방공업공장의 골조공사 결속(노동신문, 05.15)
 - 이어 6월 중순 종합봉사소(노동신문, 06.16), 6월 하순 병원까지 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완료하고 다음 단계 공사에 진입(노동신문, 06.23)
- (운영 준비) 3월부터 공장 기능공과 병원 의료일군 양성을 위한 기술전습 2단계로 진행
 - 시·군에서 선발한 대상을 중앙의 경공업공장과 기존 지방공업공장에서 단계별로 교육하는 방식(노동신문, 04.09)
- (별도 사업) 황해북도 황주군에 전국 시·군 양곡관리소의 본보기가 될 양곡관리소를 시범 건설(노동신문, 06.05)

표 1 '지방발전 20×10 정책' 2·3차 연도 대상 시·군과 착공, 준공일

구분	3차 연도(2026년)			2차 연도(2025년)		
	시·군	건설 대상	착공일	시·군	건설 대상	준공일
평양직할시	강남군	공장, 병원, 봉사소	2.3	강동군	공장, 병원, 봉사소	12.15
남포특별시	대안구역	공장, 병원, 봉사소	2.6	룡강군	공장, 병원	12.29
평안남도	평원군	공장, 병원, 봉사소	1.31	신양군	공장	12.15
	맹산군	공장, 병원, 봉사소	2.3	북창군	공장	12.18
				은산군*	종이공장	12.28
평안북도	신의주시	남새종합가공공장, 병원, 봉사소	2.3	대관군	공장	12.15
	선천군	공장, 병원, 봉사소	2.7	염주군	공장	12.26
함경남도	락원군	공장, 병원, 봉사소	2.5	정평군	공장, 봉사소	12.24
	신흥군	공장, 병원, 봉사소	2.8	신포시	공장	12.19
	리원군*	바다기양식사업소	2.9			
함경북도	무산군	공장, 병원, 봉사소	2.6	길주군	공장	12.23
	명간군	공장, 병원, 봉사소	2.9	부령군	공장	12.15
황해남도	은률군	공장, 병원, 봉사소	1.29	배천군	공장	12.20
	송화군	공장, 병원, 봉사소	2.6	장연군	공장	12.18
황해북도	신평군	공장, 병원, 봉사소	2.7	곡산군	공장	12.20
	봉산군	공장, 병원, 봉사소	2.8	황주군	공장	12.16
	개성시	판문구역	2.6	개풍구역	공장, 봉사소	12.26
강원도	통천군	공장, 병원, 봉사소	2.8	세포군	공장	12.20
	평강군	공장, 병원, 봉사소	2.9	철원군	공장	12.18
자강도	시종군	공장, 병원, 봉사소	2.8	랑림군	공장	12.15
	화평군	공장, 병원, 봉사소	2.9	장강군	공장	12.18
양강도	삼수군	공장, 병원, 봉사소	2.9	김정숙군	공장	12.20

* 공장: 지방공업공장, 봉사소: 종합봉사소.

* 2차 연도 은산군은 종이공장, 3차 연도 리원군은 바다기양식사업소로 20개 시·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관련 사업으로 표에는 포함하였음.

3. 종합과 시사점

- (정책 성과) 3년간 60개 시·군에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착공한 해에 준공하는 건설 방식이 정착
 - 2년간 120여 개*의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였고, 제9차 당대회는 매년 20개 시·군에 공장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건설할 것을 새 5개년계획 과업으로 제시
 - * 일반적으로 1개 시·군에 식료품공장, 일용품공장, 피복·섬유공장을 건설
- (운영 성과) 1·2차 연도 공장의 제품 가짓수가 준공 초기 대비 근 3배로 확대
 - 성천군(밤가공품), 장풍군(생강·분지 가공품), 김형직군(호박씨기름), 우시군(다래·배·살구 단졸임) 등 지역 원료를 이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¹

1 노동신문(2026.01.25.), “새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제품의 가짓수 준공초기에 비해 근 3배 확대”.

- (사회주의 경쟁) 2025년 도(道)간·공장간 사회주의경쟁 총화회의를 개최(3.26)하고 평안남도가 우승
 - 성천군식료공장은 밤가공품 가짓수를 근 2배로 늘렸고, 신양군식료공장은 산과실을 원료로 10여 가지의 새 제품을 개발²
 - 지방공업공장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점이 시·군에 개설되어 지역 상업망을 통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
 - 운산군(잣가공품), 우시군(각종 단졸임), 김형직군(호박씨기름) 등 일부 제품은 다른 지역에서도 주문이 늘고 있다고 함³
- (원료기지가 관건) 제9차 당대회는 시·군 원료기지 조성과 정보당 생산량 제고를 지방공업공장 생산정상화의 '관건적 고리'로 규정
 - 전국 130여 개 시·군에서 수유나무림을 전면 개조하고, 기름작물·당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을 병행
- (인력 양성) 2차 연도에 지방공업공장 종업원의 60% 이상이 기술자·기능공으로 양성되고, 기술기능급수는 평균 0.7~1급 이상 높아진 것으로 보도(노동신문, 01.25)
- (한계와 과제) 제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 꾸린 생산·봉사기지의 관리운영 태만과 무책임성을 강하게 비판하였음
 - 건설보다 운영이 어려운 조건에서 원료·전력·설비 보장과 지방의 운영 역량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됨

² 노동신문(2026.04.22.), “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진다 - 새 지방공업공장들에서”.

³ 노동신문(2026.04.13.), “산골군들의 제품이 지경을 넘어간다”.

III. 2026년 1, 2분기 살림집 건설 현황¹⁾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화성지구 4단계 준공(2.16)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 새 5개년계획의 첫 수도건설 사업으로 2월 18일 화성지구 5단계 착공. 참전열사 유가족을 위한 새별거리도 준공(2.15). 농촌살림집은 4년간 11만 3천여 세대를 건설하였고, 2026년 사업은 새로 60여 개 시·군·구역에서 진행. 도소재지 개건을 새 과업으로 추가, 함흥·강계·해주 등에서 살림집 신축과 개건 중

1.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결속과 화성지구 5단계 착공

-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2026.02.16)으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결속
 - 송신·송화지구와 화성지구에 근 6만 세대 살림집과 공공건물 건설(노동신문, 02.17)
 - 1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공정률 99% 단계의 4단계 건설장을 현지지도하고, 화성지구를 도시행정구역 기능의 표본으로 평가
- 참전열사 유가족을 위한 새별거리 준공(02.15), 3월 14일부터 새집들이 진행
 - 화성지구 안에 고층·중소층 살림집과 상업·봉사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으로 조성되었고, 살림집이용허가증을 참전열사 유가족에게 전달

그림 1 화성지구 5단계 착공식



* 출처: 뉴스1(2026.02.19.), “북, 화성지구 5단계 착공식에 ‘축제’ 분위기”.(원출처: 노동신문)

1 2025년 3, 4/4분기 「북한건설·개발동향」(토지주택연구원)의 “3, 4/4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1, 2/4분기 사업 실적과 평가를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착공(02.18)으로 수도건설이 새로운 5개년계획 단계로 이행
 - 김정은 위원장은 “살림집 수요 해결을 기본으로 하던 단계에서부터 수도의 전반적 면모를 거목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보다 높은 단계”로 이행한다고 언급
 - 4월 기초굴착 결속과 기초콘크리트치기를 거쳐 6월 살림집 골조공사를 추진 중이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성·중앙기관 려단 등이 동원

표 1 2021년 이후 평양 새거리 건설사업 현황(2026년 6월 기준)

구분	사업명 / 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세대 수	비고(입사대상 등)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사업	송화거리/평양 남측의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	2021.3.23. 착공 2022.4.12. 준공	5만 세대 첫 사업, 80층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만 세대	1만	철거지역 주민, 공장 종업원, 무의무탁자 순
	화성지구 1단계/ 금수산태양궁전과 백화원초대소 인근	2023.4.16. 준공	5만 세대 두 번째 사업	1만	국방과학원 연구사들, 평양시 각 부문과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들
	화성지구 2단계 (림흥거리)	2023.2.15. 착공 2024.4.16. 준공	5만 세대 세 번째 사업	1만	일반 노동자, 영예군인, 전쟁로병, 제대군관 등
	화성지구 3단계	2024.2.23. 착공 2025.4.16. 준공	5만 세대 네 번째 사업	1만	교육, 보건, 상업, 급양봉사, 기술, 오락봉사 시설을 갖춘 도시행정구역의 기능 확보
	화성지구 4단계	2025.2.16. 착공 2026.2.16. 준공	5만 세대 다섯 번째 사업 (초과 달성)	1만	
별도 사업	경루동지구/ 본평양 보통강변	2022.4.14. 준공	12만㎡ 부지에 800세대 건설	800	모범 노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인재 등 근로자들
	서포지구(전위거리)/ 평양 북쪽 관문지역	2023.2.25. 착공 2024.5.14. 준공	살림집과 다수 공공건물	4,100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육자 가정과 다자녀 세대 등
	대평지구	2021.9월 시작 2023.5.21. 준공	다층, 고층 살림집, 학교, 진료소 등	1,400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들
	새별거리/ 화성지구 안	2025.10월 착공 2026.2.15. 준공	고층·중소층 살림집과 봉사시설	규모 미공개	참전열사 유가족
새 전망 계획	화성지구 5단계	2026.2.18. 착공 (2026년 준공 예정)	새 5개년계획의 첫 수도건설 사업	1만 2천 ² 이상	2026년 6월 골조공사 진행 중

2.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건설사업

- 검덕지구 2단계 사업: 5개년 계획기간(‘21~’25년) 동안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
 - 당 제9차대회는 검덕지구에 ‘수만 세대의 특색있는 살림집’을 건설하는 사업을 완결한 것으로 총화(노동신문, 05.15)
- 2026년에도 당 제9차대회 결정에 따라 살림집 건설과 수십 개 대상공사를 계속 추진
 - 4월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서 설비·류전기재 출동식과 기공구전시회를 진행하였고, 다리 건설과 도로 이설 공사 등을 병행(노동신문, 04.24)

2 노동신문(2026.07.22.), “당에 펼친 설계도따라 조국은 계속 변모된다”. 보도 기준.

그림 2 검덕지구 전경



* 출처: 뉴스1(2026.05.15.), “북한 “검덕지구, 산악 협곡 도시로 천지개벽””.(원출처: 노동신문)

3.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

- 새시대 농촌혁명강령(2021.12) 제시 이후 지난 4년간 전국 500여 개 농장의 1,860여 개 마을에 11만 3천여 세대의 농촌문화주택을 건설.³ 당 제9차대회도 이를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의 주요 성과로 총화⁴
 - 첫해인 2022년 2만 5,600여 세대, 2025년 3만 2,000여 세대로 연간 건설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도
 - 지난 호에서 4년간 약 10만 5천 세대로 추정하였으나, 북한 발표 기준으로는 이보다 8천 세대가량 많음
- 노동신문 기준, 2026년 1, 2/4분기 농촌살림집 완공(입사) 기사는 34건, 82개 마을 약 17,700세대로 추정
 - 완공 기사가 1월~2월 초에 집중된 것은 2025년에 건설한 살림집의 입사모임이 연초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2026년 건설분은 하반기에 완공될 전망
 - 기사 건수는 황해남도 8건, 평안남도·황해북도·강원도 각 6건 순이고, 추정 완공 세대 수는 평안남도와 황해남도가 각각 3,700세대, 강원도가 3,400세대, 황해북도가 3,100세대 순
 - 평안북도·함경북도·량강도·라선시는 완공 기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지역은 2월 이후 준비사업 기사만 확인됨
- 2026년 농촌살림집 건설은 2~3월 준비사업을 거쳐 4월부터 본격화
 - 4월 초 50여 개, 4월 하순 60여 개 시·군·구역 건설려단이 기초공사에 진입하였고, 6월 말에는 평양시 강남군과 함경남도 락원군·단천시 등에서 마감공사 시작
 - 농촌건설중앙지휘부는 시공의 질 보장과 시멘트·강재 수송 대책을 중점 과제로 제시

³ 노동신문(2026.02.15.), “천지개벽된 새 농촌마을들이 끊임없이 솟아난다”.

⁴ 노동신문(2026.05.15.), “새로운 건설혁명(3): 위대한 손길아래 온 나라 곳곳에 솟아난 사회주의리상향”.

표 2 2026년 1, 2/4분기 농촌살림집 완공 기사 건수와 지역별 현황(노동신문 기준)

시·도	주요 사업 지역	기사 건수	세대 수(추정)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칠골남새농장)	1	200
남포특별시	항구구역, 온천군	1	400
라선특별시	-	-	-
평안남도	개천·순천·덕천·안주 시, 평원·은산·녕원·대흥·문덕·대동·맹산·증산·양덕 군 등	6	3,700
평안북도	-	-	-
자강도	전천·초산·향산·시중·성간·룡림·자성 군 등	3	1,800
황해남도	과일·송화·청단·강령·벽성·장연·태탄·삼천·재령·신천·봉천·신원·연안·은률 군 등	8	3,700
황해북도	송림시, 황주·린산·서흥·상원·연산·신평·승호·평산·중화·신계 군 등	6	3,100
강원도	원산 시, 회양·판교·고산·철원·세포·김화·창도·통천·평강·이천 군 등	6	3,400
함경남도	함흥·단천·신포 시, 요덕·흥원 군 등	3	1,400
함경북도	-	-	-
량강도	-	-	-
합계		34	17,700

* 세대 수는 마을(농장)별로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음: ① 기사에 규모가 명시된 경우 해당 물량, ② '수백 세대', '수천 세대', '천 수백 세대' 등은 '수'를 4로 보아 각각 400세대, 4,000세대, 1,400세대로 가정, ③ 규모 언급이 없는 경우, 과거 알려진 사례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시 지역은 150세대, 군 지역은 230세대로 추정(예: 평양직할시 ○○마을 150세대, 어랑군 ○○마을 230세대). 세대 수 추정에서 100 미만은 반올림하였음

그림 3 함경남도 고산군 설봉농장마을 새 살림집 전경



* 출처: 뉴스1(2026.06.03.), “북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고산 설봉농장””.(원출처: 노동신문)

4. 도 소재지 개건 사업

- 전국 도소재지를 연차별로 개변할 데 대한 당 제9차대회 결정에 따른 사업으로, 기 공구전시회를 열고 시공력량을 편성

- 추진 현황
 - 함경남도, 함흥시 1,000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노동신문, 04.14)
 - 자강도 강계시, 천수백 세대의 다층살림집과 공공건물 개건(노동신문, 05.31)
 - 황해남도 해주시(05.28)와 함경남도 함흥시(05.16)에서 수십 동의 소층·다층 살림집 개건보수와 원림녹화 사업 진행

5. 종합과 시사점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의 살림집 건설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새로운 5개년계획 사업으로 이행
 - 당 제9차대회는 평양시 5만 세대, 농촌살림집 11만여 세대, 검덕지구 수만 세대, 평안북도·자강도·량강도 수해지역 수만 세대 건설을 제8기 기간의 성과로 총화
 - 평양시 사업은 화성지구 4단계 준공(2.16)으로 결속되고, 이를 뒤 화성지구 5단계를 착공하여 새 계획기간의 사업을 개시
 - 농촌살림집은 2026년에도 '농촌건설 제1순위'로 유지되며, 60여 개 시·군·구역에서 건설 진행 중
- 살림집 사업의 성격이 '살림집 수요 해결'에서 '도시 전반의 면모 개변'으로 전환되고, 사업 공간과 대상도 계속 확대
 - (성격 전환) 화성지구를 정치·경제·문화 기능을 갖춘 도시행정구역의 본보기로 완성하고, 수도권 전 지역을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
 - * 화성지구 4단계는 고전미와 현대미를 결합한 지붕 처리와 입체적 배치 등에서 이전 단계와 구별되는 것으로 평가됨(조선신보, 05.20)
 - (공간 확장) 도소재지 개건이 새로운 과업으로 추가되어, 수도-지방 도시-농촌으로 이어지는 주거환경 정비를 동시에 진행
 - (대상 확대) 참전열사 유가족(새별거리), 광산지구 주민(검덕지구), 농업근로자 등으로 살림집 배정 대상이 계속 확대
- (한계와 과제) 시공의 질 저하와 관리운영 부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시멘트·강재 등 자재 보장이 물량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IV. 북한 건설업 총괄 현황과 전력산업 동향

국가경제발전 계획 하에서 경제정책의 핵심적 실행수단이 된 건설업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북한 전국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력산업과 관련된 주요 동향을 검토함

1. 북한 산업구조와 건설업 관련 동향

-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 두 차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해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5개년 전략의 목표를 인민경제전반의 활성화와 나라 경제의 지속적 발전 토대 마련으로 공표함
 - 2021년 시작된 새로운 5개년 계획은 자립적 경제 건설 지속을 위한 금속, 화학공업 중심의 자원 투자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 경공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통해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는 현실적 정책을 추진함
- 그에 따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북한 경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동시에 대규모 살림집 공급, 지방발전, 농촌건설 등의 추진을 통해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실행 수단이 된 ‘건설업’의 위상을 검토함
- 2025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표 1]과 같이 2024년 대비 3.5% 성장함¹
 - 제조업, 건설업 등의 성장이 지속되고, 농림어업의 성장률이 (+)로 전환하였으나, 광업 등에 있어 증가세 둔화가 있었음

표 1 2025년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구분	북한		남한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①농림어업	-1.9	3.6	0.7	0.5
②광공업	7.6	4.9	4.8	2.3
광업	8.8	1.6	-13.5	-7.2
제조업	7.0	6.6	4.9	2.4
경공업	-0.7	3.8	2.7	-2.0
중화학공업	10.7	7.8	5.3	3.2
③전기·가스·수도업	0.9	-0.4	4.2	-0.6
④건설업	12.3	6.3	-3.3	-9.2
⑤서비스업	1.3	1.8	1.7	1.7
정부	1.2	1.0	2.0	1.8
기타	1.7	5.1	1.6	1.7
국내총생산(GDP)	3.7	3.5	2.2	1.1

자료: 한국은행(2026),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¹ 한국은행(2026),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 최근 10년 사이 북한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2]와 같으며, 2023년 이후 3% 이상의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음(한국은행,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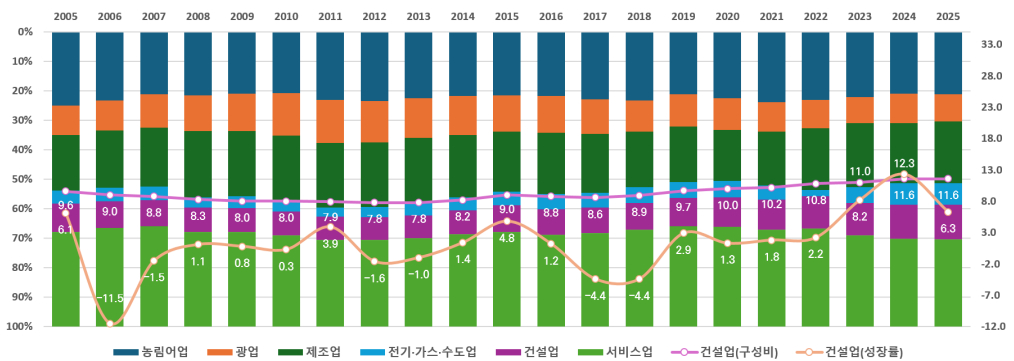
표 2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전년대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북한	-4.3	-4.4	0.4	3.8	-0.5	-3.5	-4.1	0.4	-4.5	-0.1	-0.2	3.1	3.7	3.5
남한	10.0	9.7	9.2	4.4	7.0	3.4	3.2	2.3	-0.7	4.7	2.9	1.5	2.2	1.1

자료: 한국은행(2026),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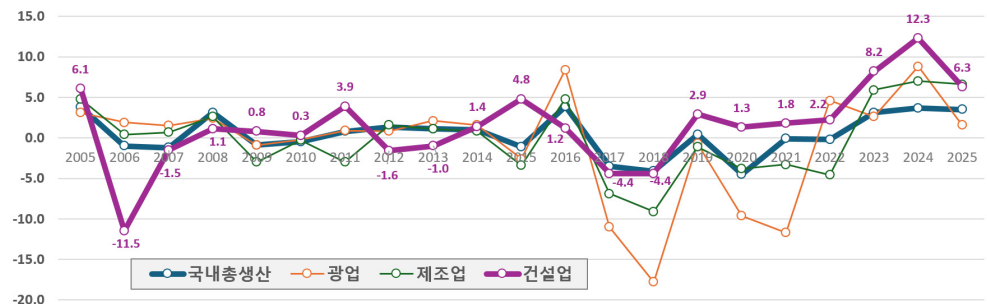
- 북한의 산업구조와 산업별 성장률에 대해 2005년 이후 장기적인 추이를 검토함
 - 과거에 비해 광업의 비중이 축소된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다소 증가함
 - 건설업을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그림 2], [표 4]와 같이 최근 5년 평균 6.2%로서 타 산업부문 대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연차별 북한 산업구조와 건설업 비중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남북한 산업구조(2005년~2025년)

그림 2 북한 주요 산업별 성장률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남북한 산업별 성장률(2005년~2025년)

표 3 북한의 산업구조(%)

산업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어업	25.0	23.3	21.2	21.6	20.9	20.8	23.1	23.4	22.4	21.8	21.6
광업	9.9	10.2	11.4	12.1	12.7	14.4	14.6	14.0	13.6	13.1	12.2
제조업	19.0	19.5	20.0	22.5	22.1	21.9	21.9	21.9	22.1	21.3	20.4
전기·가스·수도업	4.3	4.5	4.6	3.4	4.1	3.9	3.1	3.5	4.1	4.3	4.5
건설업	9.6	9.0	8.8	8.3	8.0	8.0	7.9	7.8	7.8	8.2	9.0
서비스업	32.2	33.6	34.1	32.2	32.1	31.0	29.4	29.4	30.0	31.3	32.2

산업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1~25 평균
농림어업	21.7	22.8	23.3	21.2	22.4	23.8	23.1	22.0	20.9	21.2	22.2
광업	12.6	11.7	10.6	11.0	10.8	10.0	9.5	9.0	10.0	9.1	9.5
제조업	20.6	20.1	18.8	18.7	17.3	18.3	21.0	21.6	20.5	21.0	20.5
전기·가스·수도업	5.2	5.0	5.4	5.4	5.6	4.8	2.2	5.4	7.2	7.4	5.4
건설업	8.8	8.6	8.9	9.7	10.0	10.2	10.8	11.0	11.6	11.6	11.0
서비스업	31.1	31.7	33.0	34.1	33.8	32.9	33.4	30.9	29.8	29.7	31.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남북한 산업구조(2005년~2025년)

표 4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산업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어업	5.3	-2.6	-9.1	8.0	-1.0	-2.1	5.3	3.9	1.9	1.2	-0.8
광업	3.1	1.9	1.5	2.4	-0.9	-0.2	0.9	0.8	2.1	1.6	-2.6
제조업	4.8	0.4	0.7	2.6	-3.0	-0.3	-3.0	1.6	1.1	0.8	-3.4
전기·가스·수도업	4.4	2.7	4.8	6.0	0.0	-0.8	-4.7	1.6	2.3	-2.8	-12.7
건설업	6.1	-11.5	-1.5	1.1	0.8	0.3	3.9	-1.6	-1.0	1.4	4.8
서비스업	1.3	1.1	1.7	0.7	0.1	0.2	0.3	0.1	0.3	1.3	0.8
국내총생산	3.8	-1.0	-1.2	3.1	-0.9	-0.5	0.8	1.3	1.1	1.0	-1.1

산업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1~25 평균
농림어업	2.5	-1.3	-1.8	1.4	-7.6	6.2	-2.1	1.0	-1.9	3.6	1.4
광업	8.4	-11.0	-17.8	-0.7	-9.6	-11.7	4.6	2.6	8.8	1.6	1.2
제조업	4.8	-6.9	-9.1	-1.1	-3.8	-3.3	-4.6	5.9	7.0	6.6	2.3
전기·가스·수도업	22.3	-2.9	5.7	-4.2	1.6	6.0	3.5	-4.7	0.9	-0.4	1.1
건설업	1.2	-4.4	-4.4	2.9	1.3	1.8	2.2	8.2	12.3	6.3	6.2
서비스업	0.6	0.5	0.9	0.9	-4.0	-0.4	1.0	1.7	1.3	1.8	1.1
국내총생산	3.9	-3.5	-4.1	0.4	-4.5	-0.1	-0.2	3.1	3.7	3.5	2.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남북한 산업별 성장률(2005년~2025년)

2. 북한 전력 수급 동향

1) 전력 사정에 대한 최근 기사

- 최근 월평균 야간조명 위성영상(VIIRS)을 비교한 결과 평양 도심을 중심으로 야간 불빛의 면적과 밝기가 확장된 흐름이 뚜렷하게 식별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²
 - 2020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6년간 평양의 야간조명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평양시 전체 면적의 26.5%에 달하는 지역에서 야간 불빛이 뚜렷하게 증가함
 - 반면 평양 전체 면적의 73.2%에 달하는 대부분의 외곽 구역은 지난 6년간 야간 불빛의 변화가 거의 없어 전력 공급의 양극화를 보여줌

그림 3 야간조명 영상(VIIRS)에 따른 평양시 야간조명 변화



출처: DailyNK, 2026년 7월 20일자, “5만호 주택 건설로 밝아진 평양 도심…외곽은 ‘암흑천지’”

- 과거에도 야간조명을 기준으로 북한의 전력 상황을 추정했던 경우가 있었으며, 2023년에는 과거에 비해 보다 넓은 면적에서 평양시가 밝아진 것으로 파악하였음³
 - 2018년에도 발전소 확충, 강수량 증가에 의한 수력발전소 전력생산 증가, 태양열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등 개선된 여건으로 전기 사정이 좋아졌다는 기사가 있었음⁴
- 다만, 북한의 발전설비용량, 발전 전력량 추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이 추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전기 수급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² DailyNK, 2026년 7월 20일자, “5만호 주택 건설로 밝아진 평양 도심…외곽은 ‘암흑천지’”

³ 연합뉴스, 2023년 4월 3일자, “북한의 밤, 여전히 암흑…평양·산업단지 등은 다소 밝아져”

⁴ 주간조선, 2018년 8월 3일자, “평양이 밝아졌다”

2) 북한의 전력산업 관련 정책

- 2016년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큰 방향으로 경제 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업, 경공업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총화보고에서는 5개년 전략에 있어 전력 부문, 운수 부문,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 부문, 대외경제관계 등 부문별 과제를 제시하였음
- 특히 전력은 4대 선행 부문의 하나로 특별히 강조하였고,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며 발전소 개선, 송배전망 개진보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함
- 전략의 실행에도 에너지원 공급이나 에너지 생산에 있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북한은 2001년에 '신·재생에너지개발 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가스, 바이오 매스 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에너지 관련 법제에는 「전력법」, 「에네르기관리법」, 「재생에네르기법」 등이 있음⁵
 - 에너지 3법 중 가장 최근에 채택 공포된 법은 「재생에네르기법」이며,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됨
 - 북한에서 에너지 관련 법령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규정하기보다는 절약과 통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임

3) 북한의 전력 관련 총괄 지표

① 에너지원 구성

- 북한은 수력을 주력으로 하고 화력을 보조로 삼는 전통적인 발전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발전 전력량에서는 수력이 61.7%를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 구성에 있어 화력이 56.8%, 원자력이 31.7%를 차지하는 남한과 차이가 있음

표 5 2024년 발전 전력량 현황(단위: 억 kWh)

구 분		수 력	화 력	원자력	대체에너지	기 타	전 체
북한	발전설비용량	156	97	-	-	-	253
	구성비	61.7%	38.3%				
남한	발전설비용량	90	3,386	1,888	565	28	5,957
	구성비	1.5%	56.8%	31.7%	9.5%	0.5%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남북한 발전 전력량(2024년)

⁵ 주연중(2024), 『북한의 에너지법제 연구 III - 전력법, 에네르기관리법, 재생에네르기법』, 한국법제연구원

- 이러한 북한의 발전설비용량과 발전 전력량은 남한과 비교할 때 [표 5]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5.5%, 4.3% 수준에 불과한 수준임

표 6 2024년 발전설비용량 현황(단위: MW)

구 분		수 력	화 력	원자력	대체에너지	기 타	전 체
북한	발전설비용량	4,970	3,380	-	-	-	8,350
	구성비	59.5%	40.5%				
남한	발전설비용량	6,515	87,179	26,050	32,878	449	153,071
	구성비	4.3%	57.0%	17.0%	21.5%	0.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남북한 발전설비용량(2024년)

② 발전설비용량, 발전 전력량 추이

- 남한의 발전용량, 발전량은 최근 4년(2021~2024년) 기준으로 각각 북한의 17.2배, 23.0배로서 20년 전 평균인 9.1배, 17.2배에 비해 오히려 양적으로 차이가 확대됨

표 7 한국-북한의 발전용량, 발전량 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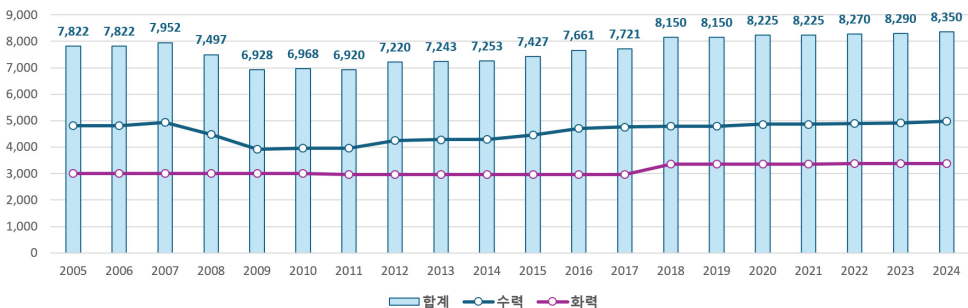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발전용량	8	8.4	8.6	9.7	10.6	10.9	11.5	11.3	12	12.9	13.1
발전량	17	16.9	17	16.6	18.5	20	23.6	23.7	23.5	24.2	27.7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1~24 평균	05~09 평균
발전용량	13.8	15.2	14.6	15.4	15.7	16.3	16.7	17.4	18.3	17.2	9.1
발전량	22.6	23.6	22.9	23.7	23.1	22.6	22.5	23.5	23.5	23.0	17.2

자료: 한국은행, 한국-북한 배율(2005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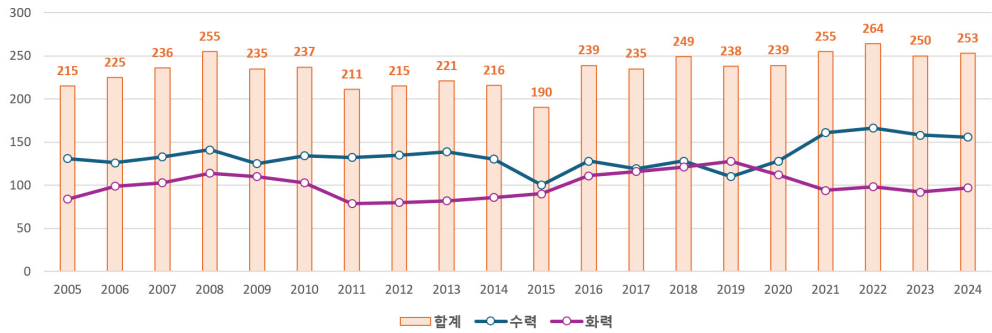
- 발전 전력량에 있어 2021년~2024년 평균과 2011년~2020년 평균을 비교해 보면, 화력 발전량이 5.2% 줄었음에도 수력 발전량이 28.3% 늘어 전체 발전량은 13.4% 증가함

그림 4 북한의 발전설비용량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북한 발전설비용량(2005년~2024년)

그림 5 북한의 발전 전력량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북한 발전 전력량(2005년~2024년)

표 8 북한의 발전설비용량 추이(단위: MW,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력	4,812	4,812	4,942	4,487	3,918	3,958	3,960	4,260	4,283	4,293	4,467
화 력	3,010	3,010	3,010	3,010	3,010	3,010	2,960	2,960	2,960	2,960	2,960
합 계	7,822	7,822	7,952	7,497	6,928	6,968	6,920	7,220	7,243	7,253	7,427
증감율		0.0%	1.7%	-5.7%	-7.6%	0.6%	-0.7%	4.3%	0.3%	0.1%	2.4%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20 평균	21~24 평균
수 력	4,701	4,761	4,790	4,790	4,865	4,865	4,890	4,910	4,970	4,517	4,909
화 력	2,960	2,960	3,360	3,360	3,360	3,360	3,380	3,380	3,380	3,080	3,375
합 계	7,661	7,721	8,150	8,150	8,225	8,225	8,270	8,290	8,350	7,597	8,284
증감율	3.2%	0.8%	5.6%	0.0%	0.9%	0.0%	0.5%	0.2%	0.7%	1.69%	0.38%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북한 발전설비용량(2005년~2024년)

표 9 북한의 발전 전력량 추이(단위: 억 kWh,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력	131	126	133	141	125	134	132	135	139	130	100
화 력	84	99	103	114	110	103	79	80	82	86	90
합 계	215	225	236	255	235	237	211	215	221	216	190
증감율		4.7%	4.9%	8.1%	-7.8%	0.9%	-11%	1.9%	2.8%	-2.3%	-12%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20 평균	21~24 평균
수 력	128	119	128	110	128	161	166	158	156	125	160
화 력	111	116	121	128	112	94	98	92	97	101	95
합 계	239	235	249	238	239	255	264	250	253	225	256
증감율	25.8%	-1.7%	6.0%	-4.4%	0.4%	6.7%	3.5%	-5.3%	1.2%	0.55%	1.5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북한 발전 전력량(2005년~2024년)

4) 전력산업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발전시설 현황

- 발전 전력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력 발전의 경우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산림 황폐화로 저수기능과 발전출력이 저하되었으며, 발전설비와 구조물의 노후화 및 속도전에 따른 부실공사 등의 원인으로 발전효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임
- 화력 발전 역시 잦은 고장, 설비 노후화를 겪고 있으며, 송배전에 있어서의 전력 손실도 심각한 수준에 있음
-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비중은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전력공급 부족은 산업부문의 만성적인 중간재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쳐 생산계획에 따른 공장가동이 어렵고, 전력 품질 문제로 기계장비 고장과 비정상적 운영 초래⁶
 - 산업부문에 대한 전력공급의 정상화 없이는 북한 산업생산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 2022년을 기준으로 화력발전설비의 84.9%와 수력발전설비의 70.6%가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설비이며, 이들은 적절한 정비와 유지·보수가 어려운 여건에서 무리한 가동을 이어가고 있음

표 10 발전시설 유형별, 지역별 분포

구 분	수력발전			화력발전	기 타	총 계
	중대형	중소형	소 계			
평양직할시	3	2	5	2	1	8
남포특별시	1		1	1		2
라선특별시		1	1	1		2
평안남도	3	13	16	4		20
평안북도	3	15	18	1		19
자강도	6	56	62			62
황해남도						0
황해북도	1	24	25		1	26
강원도	4	14	18		1	19
함경남도	8	20	28			28
함경북도	4	19	23	1		24
량강도	3	10	13			13
미 상		5	5		2	7
총 계	36	179	215	10	5	230

자료: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기업 DB(2026.08.18 다운로드) 내용 재구성

- [표 10]과 같이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기업 DB에서 ‘비제조업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총 230개의 발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수력발전소로서 그 중 83.5%에 해당하는 179개가 중소형발전소에 해당함
 - 지역별로는 전체 수력발전소 가운데 28.8%가 자강도에 위치하고 있었음

⁶ 김경술(2023), 『북한 산업생산 회복 전력산업에 달려 있다』, KDI 북한경제리뷰

- 북한의 주요 발전소의 소재지, 설비 용량, 발전형식 등은 [표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1 북한의 주요 발전소 현황

구분	발전소명	소재지	설비 용량	발전형식	구분	발전소명	소재지	용량	발전형식
수 력									
서부	수 풍	평북 삭주	80.0(40)	댐식	동부	서두수1-3호	함북 청진	51.0	유역변경식
	태 천1-5호	평북 태천	40.0	유역변경식		허천강1-4호	함남 허천	33.5	유역변경식
	운 봉	자강 자성	40.0(20)	댐식		장진강1-5호	함남 영광	34.7	유역변경식
	위 원	자강 위원	39.0(19.5)	댐식		부전강1-6호	함남 신흥	20.4	유역변경식
	문 악	자강 만포	4.2(2.1)	댐식		부 령1-4호	함북 부령	3.2	유역변경식
	망 강 루	자강 만포	4.2(2.1)	댐식		통 천1-4호	강원 통천	1.7	유역변경식
	희천1-2호	자강 희천	30.0	유역변경식		이천군민	강원 이천	2.0	댐식
	희천3-12호	자강 희천	12.0	댐식		내중리	양강김형직	1.2	유역변경식
	강계청년1-3호	자강 장강	22.5	댐식		어랑천1-2호	함북 어랑	11.0	댐식(4호)
	대동강	평남 덕천	13.5	댐식		4-5호			유역변경(1·2·5호)
	영원	평남 영원	9.0	댐식		삼수	양강 삼수	5.0	댐식
	태평만	평북 삭주	19.0(9.5)	댐식		안변청년1-2호	강원 안변	32.4	유역변경식
	장자강	자강 만포	8.1	댐식		원산청년1-4호	강원 법동	6.0	댐식
	남 강	평양 강동	4.5	갑문식		백두산영웅청년	양강 백암	6.0	유역변경식
	미림갑문	평양 사동	2.4	갑문식		1·3호			
	봉화갑문	평양 강동	1.0	댐식		금야강군민	함남 금야	17.3	댐식
	천 마	평북 천마	1.2	유역변경식		원산군민1-2호	강원 원산	4.0	유역변경식
예성강1-6호	황북 토산	12.0	혼합	함흥청년1호	함남 정평	1.0	댐식		
흥주청년1-3호	자강 강계	3.75	댐식	고성군민	강원 고성	4.2	댐식		
용산청년	평남 북창	5.0	댐식						
소 계	-	258.2	-		소 계	-	234.6	-	
수력 총계: 492.8									
화 력									
서부	북 창	평남 북창	202.0	복수식	동부	선 봉	함북 선봉	20.0	공장화력
	평 양	평양 평천	50.0	열병합		청 진	함북 청진	15.0	열병합
	청천강	평남 개천	20.0	열병합					
	순 천	평남 순천	21.0	열병합					
	동평양	평양 낙랑	10.0	열병합					
소 계	-	303.0	-		소 계	-	35.0	-	
화력 총계: 338.0									

자료: 『2025 북한의 산업』(강명구 등, 2025), 2권 p.162

5) 최근 전력 수요와 완공 시설 현황

- 평양과 지방에서의 살림집 대량 공급, 지방발전 전략에 따른 공장 신설 증가 등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실제 발전 전력량이 대응하는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 고층아파트는 각종 설비 가동이 전력공급과 직결됨에 따라 신규 살림집 건설에 따라 오히려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체감하고 있음
 - 현대적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포함하여 2024년 시작된 지방발전 20×10 정책 역시 지방의 전력 수요를 구조적으로 높이고 있음
- 최근 5년 사이 신축 또는 개건이 완료된 각종 발전시설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으며, 수력발전소 13개, 태양빛 발전 시설 5개가 포함되었음

- 지방 단위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기반 확대 등이 눈에 띄는 실적으로 볼 수 있음

표 12 최근 준공(신규, 개건) 발전시설

년 도	명 칭	위 치	준공시기	유 형	비 고
2021년	후창광산4호발전소	양강도 김형직군	2021.10	수력	
2022년	어랑천3호발전소	함경북도 어랑군	2022.08	수력	
	함흥청년1호발전소	함경남도 함흥시	2022.11	수력	
	구장청년2호발전소	평안북도 구장군	2022.12	수력	
2023년	병풍덕체신분소 발전소	자강도 랑림군	2023.03	수력	극소형발전소
	흥주청년5호발전소	자강도 흥주군	2023.06	수력	
	평강군민발전소	강원도 평강군	2023.12	수력	
	세포군민발전소	강원도 세포군	2023.12	수력	
	내평3호발전소	강원도	2023.12	수력	
2024년	함흥시 태양빛발전소	함경남도 함흥시	2024.12	태양빛	
	고성군민발전소	강원도 고성군	2024.12	수력	
	평성시 태양빛발전소	평안남도 평성시	2024.12	태양빛	
2025년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안남도	2025.01	화력	개건
	계통련결형태양빛발전소	평양직할시	2025.10	태양빛	
	나선청년발전소	나선특별시	2025.10	수력	개건
	회양군민발전소	강원도 회양군	2025.11	수력	
	장자강발전소	자강도	2025.12	수력	개건
2026년	김형직군 태양빛발전소	양강도 김형직군	2026.01	태양빛	
	해주시 태양빛발전소	황해남도 해주시	2026.04	태양빛	

자료: 노동신문 해당 일자, 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 건설·개발 통합DB

그림 6 2022년 준공된 어랑천3호발전소 모습



발전소 내부 모습



언제와 발전소 외부 전경

출처: 통일뉴스, 2022년 8월 5일자, “북, 함북 어랑천발전소 41년만에 준공..’자력자강의 창조물’”

-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공장, 업무시설을 비롯한 일반 건축물에 대량으로 설치된 사례가 있었고, 많은 수의 가구에서도 패널을 설치하고 있음

- 북한 가구부문 태양광패널 보급 현황의 경우 보유 가구들의 패널 용량은 70W 내외, 전체 가구 수 대비 보급률은 46%로 조사됨⁷
- 그에 따라 북한 가구부문에서 국가 발전량의 0.6%에 달하는 전기가 태양광패널로 추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가구부문 전기소비량의 7.0%, 가전용 전기소비량의 8.7% 정도를 태양광패널 발전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7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건축물



평양화장품공장의 태양광 패널



북한 주택가 지붕의 태양광 패널

출처: (좌) 통일뉴스, 2022년 11월 8일자, “북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사례”(노동신문 재인용)

(우) 남북경협뉴스, 2025년 11월 12자, “북한, 태양광으로 밤 밝히고 전력난 타개나서...가정용 넘어 산업시설에도 확대”

6) 시사점

- 지속적인 발전소 건설과 발전 전력량의 소폭 상승에도 여전히 전기는 부족한 상황으로, ‘밝아진 평양에 의한 전력 상황 개선’은 ‘전력 우선 배정’에 따른 착시일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전력 수요 증가, 수력 발전 중심의 한계, 발전·송배전시설 전반의 낙후, 재생에너지의 낮은 효율 등을 고려할 때 전력 수급에 있어 단기간에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돌파구 마련을 위한 북한의 대내외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⁷ 신정수(2023), 『북한 가구부문의 태양광패널 활용과 역할』, KDI 북한경제리뷰

V. 내국인 복지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관광지 개발 현황

2025년 이후 “지방발전 20×10 정책” 및 “3대 필수시설” 보급 정책과 병행하여 내국인 복지 및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중소규모 관광지를 적극 개발하는 흐름. 이는 기존 외화 획득 목적의 대형 관광지 개발 특징과는 달리 인민 복지증진과 내부 결속을 위한 개발로 해석. 향후 실제 운영 실태와 지속가능성은 확인이 필요한 과제임

1. 내국인 대상 관광시설의 적극 개발 배경

-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발표하고 2024년과 2025년 각 20개의 지방공업공장을 건설
- 전국적으로 적극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 사업과 더불어 2024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공개한 ‘3대 필수시설(보건, 과학교육 및 문화, 양곡관리)’을 병행 건설함으로써 지역 개발 및 인민 생활 제고에 집중
-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북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휴게, 문화 시설 개발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5년 이전까지는 삼지연(백두산) 관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외국인 관광객 모집과 외화 유입을 목적으로 대형 관광지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과 함께 내국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여러 관광·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발·공개하는 것으로 확인됨

2. 내국인 대상 관광지의 최근 개발 현황

- 2025년 및 2026년 상반기 노동신문 보도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내국인 대상 관광지 및 휴양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온포근로자휴양소
 - 온포근로자휴양소는 예로부터 유명한 온천지구이며, 기존 유명 관광지를 재건(재개발)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
 - 2025년 상반기부터 재개발을 시작하여 2026년 1월 준공
 - 이번 재개발을 통해 온천치료와 보양시설, 종합적 봉사(서비스) 시설을 갖춘 건축군(단지)로 새단장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인민의 복리 증진 기대를 밝힘
 - 또,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 “전국에 분포된 치료 및 휴양, 요양기지들을 통일적으로 지도, 봉사에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합리적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
- 염분진지구 해안공원지구
 - 2026년 1월, 동해안 관광지역인 함경북도 경성군에 위치한 염분진지구에 여러 레저시설을 갖춘 염분진해양리조트(호텔) 및 해수욕장 건설
 - 호텔은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 등을 포함한 종합 봉사시설로 구성

-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준공을 통해 자연지리적 조건과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 및 이용하여 지역 발전 및 지역 개발을 추진할 것을 강조

- 강계동물원, 평성동물원 준공

- 자강도 강계시 외산지구에 강계동물원, 2025년 9월 개진 완료
- 동물원 개진 목적을 ‘인민의 문화생활의 질적수준 제고’로 밝히고 있으며, 시설 건설에는 도와 시 등 지역 역량을 강조
- 평안남도 평성시에도 2025년 12월, 평성동물원 신규 건설 보도
- 약 2만 여 ㎡ 규모의 시설로, 봉림산기슭에 위치. 산자락 자연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현대적 시설을 건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청진물놀이장, 통천군 해수욕장 건설

- 강원도 통천군과 함경북도 청진시에 물놀이장을 신규 건설했다고 2025년 7월과 12월에 각각 보도
- 통천군 자산리 해수욕장 준공 보도를 통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해수욕장과 더불어 관리건물, 주차장 등도 새롭게 건설했다고 보도함
- 함경북도 청진시 물놀이장 신규 건설 완공에 대한 언론보도에서도 ‘인민의 문명과 복리증진’을 강조하면서 중앙당과 최고지도자의 위민헌신을 언급. 관련 시설로는 현대미를 자랑하는 대중봉사기지에 덕수터(샘터), 바닷물수조와 체육장, 청량음료점 등이 구비되어 있다고 소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이 계절에 구애 없이 가능한 휴식 시설임을 강조

그림 1 최근 북한 내국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광시설 현황 1



출처: "김정은 "온포근로자휴양소, 노동성 휴양관리국 관리,지도 불합리", 뉴스1, 2026.01.21.
<https://www.news1.kr/photos/7706992>



출처: "북, 동해명승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준공", 통일뉴스, 2026.01.2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634>

그림 2 최근 북한 내국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광시설 현황 2



출처: "北 자강도 강계동물원 개원", SPN 서울평강뉴스, 2025.12.13.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65>



출처: "북한, 청진물놀이장 준공", 연합뉴스 2025.12.05.
<https://www.yna.co.kr/view/PYH20251205032700042>

3. 시사점

- (정책기조의 전환) 기존 북한의 관광시설 건설의 주요 내용은 삼지연, 원산갈마 관광지구 등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 유입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형 관광지 개발에 있었다면 2025년부터 북한 언론을 통해 드러난 관광시설의 주요 내용은 내국인 복지 또는 문화생활 향상을 명분으로 중소규모 시설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대외 관광수입 확보 전략에서 내부 결속 및 주민 생활 개선 전략으로 우선순위의 변화 또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지방발전 20×10 정책과의 연계) 관광 및 휴양시설 개발은 지방공업공장 건설 확대와 병행추진되고 있는 보건·과학교육문화양곡관리 등 3대 필수시설 건설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여가시설의 확충에 그치지 않고 지방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결합한 종합적 지역개발전략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 특히, 중소형 관광복지시설의 전국적 분산 건설은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즉 지방발전 차원에서의 건설임을 확인 가능
- (향후 과제) 내국인 중심 관광 및 휴양시설의 확대 흐름은 김정은위원장의 시설 건설의 직접 관여 등을 적극 보도함으로써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의 확산과 더불어 체제 정당성과 내부 결속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이러한 시설의 실제 시설 운영 및 이용 실태 그리고 이후의 유사시설의 확산 속도나 지속가능성은 계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PART 3

건설 · 개발동향 분석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end Analysis



I. 분석대상 시설 유형 분포¹

- 2025년 3.4분기 건설개발동향 관련 최종 분석대상(‘개발’ 기준)보도 건수는 426건
- 가장 높은 빈도로 집계된 시설유형은 도시생활시설(135건)이었으며, 공장시설(84건), 교육복지시설(53건), 농림어업시설(45건), 문화휴양시설(29건) 순이었음
- 하반기 특징상 상반기 대비 보도건수가 약 2.8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 대비 약 1.3배 증가했음

표 1 분석대상 사업의 시설유형별 기사 건수 분포

시설유형	개발사업 기사 건수
교통물류시설	8
공급시설	10
발전시설	7
발전시설 외	3
공장시설	60
도시생활시설	49
살림집	42
살림집 외	7
국토지역개발	29
특구/개발구	0
특구/개발구 외	29
문화휴양시설	13
교육복지시설	17
광업자원시설	14
농림어업시설	44
환경방재시설	21
합 계	265

1 조선신보 등 다른 신문의 기사가 거의 대부분 노동신문 기사와 중복되어, 노동신문에 한정하여 기사를 분석하였음.

표 2 유형별 주요사업 목록

시설유형	주요사업	대표출처* 일자
교통물류시설	■ 양강도, 갑산군 새 다리 건설 완공 ■ 전국 각지, 철도운수부문 지원 ■ 전국 각지, 도로개건공사 실시	06.01 04.19, 05.16 05.05 외
공급시설	■ 황해남도 해주시, 생활용수 보장 대상공사 결속 ■ 양강도 김형직군, 능력이 큰 태양빛발전소 건설 ■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강 11호발전소 건축공사 결속 ■ 함경남도,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 중 ■ 황해남도 해주시, 태양빛발전소 준공	01.07 01.14 03.11 04.12 05.01
공장시설	■ 전국, 지방공업공장 건설 중 ■ 평안북도, 운산군 종합건재생산기지 건설 ■ 함경남도, 수십개 건재생산기지 신설 및 개건 ■ 함경남도, 리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01.30 외 02.13 03.28 05.04
도시생활시설	■ 평양직할시, 새별거리 준공식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중 ■ 전국, 농촌살림집 건설 ■ 함경남도,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과 대상공사 진행	02.16 02.17 06.19 04.22 외 04.24
국토지역개발	■ 황해남도, 대동만 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공사 결속 ■ 전국, 봄철나무심기 진행 ■ 자강도, 도 소재지 면모 일신	02.11 04.22 05.31
문화휴양시설	■ 함경북도,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 ■ 함경북도,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 ■ 함경남도, 경포소년단야영소 준공 ■ 함경남도, 함경남도승마구락부 준공 ■ 양강도, 3대혁명전시관 개관식	01.21 01.23 02.23 04.27 06.18
교육복지시설	■ 평양직할시, 산림연구원 준공식 ■ 함경북도, 부령군 설계연구소 건설 ■ 평안북도, 수십개 학교 및 유치원 건설·개건현대화 공사 추진 중	01.22 04.02 06.22
광업자원시설	■ 전국, 여러 탄광 싸이로식 석탄저장고 건설 ■ 전국, 석탄공업성 새 탄광, 새 갱건설 추진 ■ 함경남도 고원군, 풍남광산개발 중 ■ 함경북도, 온성지구탄광연합기업소 인회암 갱건설 추진 ■ 평안남도 덕천시, 월봉탄광 벨트콘베아공사 진행	02.11 03.15 04.11, 05.29 06.14 06.20
농림어업시설	■ 황해남도, 웅진 서해바다양어사업소 조기종어장 준공 ■ 평안북도,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준공식 ■ 강원도, 원산온실 농장 건설 중 ■ 평안남도, 은산군 수백정보 종이원료림 조성	01.20 02.02 외 05.04 06.03
환경방재시설	■ 남포특별시, 샘물공급소 신설 및 개건 공사 추진 ■ 자강도, 희천시 제방 쌓기 공사 ■ 평안북도, 강하천 정리 사업 진행 ■ 황해북도, 강하천 정리 사업 진행	04.02 04.06 06.08 06.08

* '대표출처' 노동신문 기사 일자임.

II. 유형별 주요 건설·개발 동향

1. 교통물류시설

- 양강도, 갑산군 새 다리 건설 완공(노동신문, 06.01)
- 전국 각지, 철도운수부문 지원(노동신문, 04.19; 05.06)
- 전국 각지, 도로개건공사 실시(노동신문, 05.05; 05.13; 06.15)

가. 양강도, 갑산군 새 다리 건설 완공(노동신문, 06.01, 5면)

- (내용) 갑산군에서 남풍, 사평지구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새로 건설됨으로써 인민들의 교통상편의, 학생들의 통학조건 개선, 수많은 영농물자와 농촌살림집건설 등 물동수송을 원활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이면서 건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완공을 목표로 하여 몇달사이 에 규모가 큰 다리건설을 계속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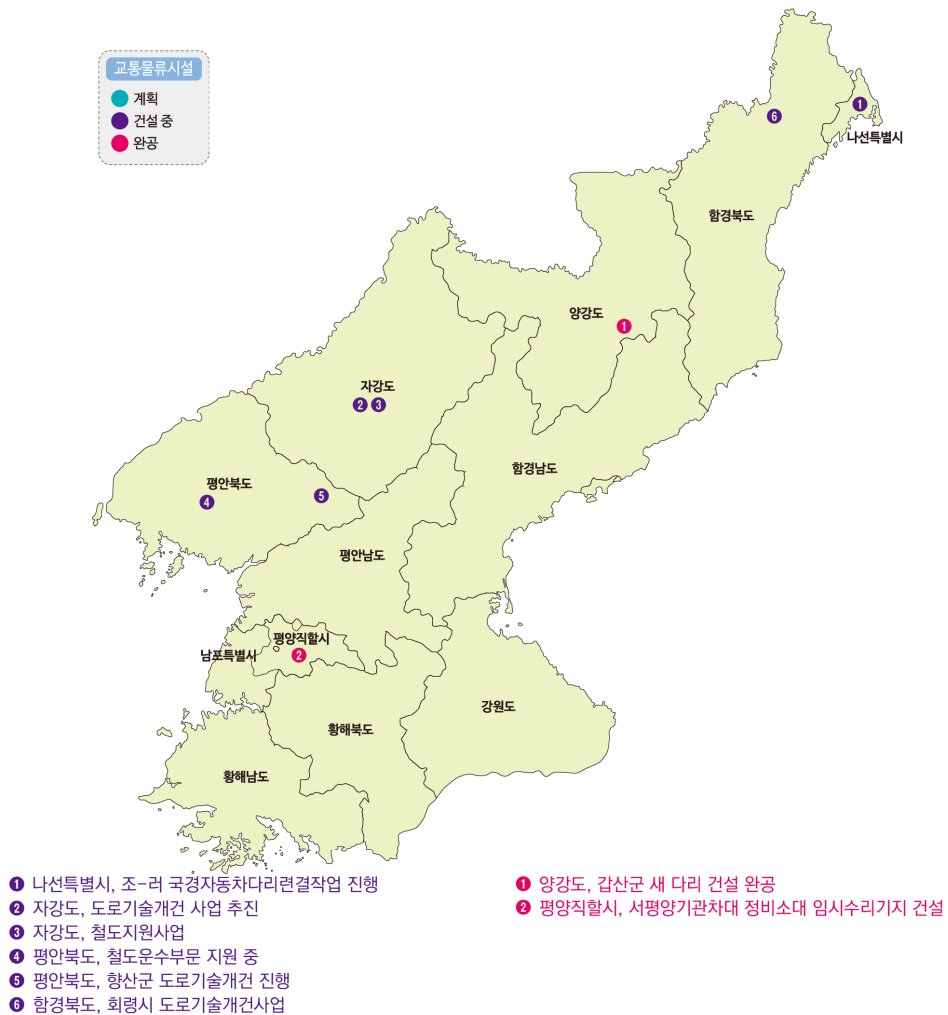
나. 전국 각지, 철도운수부문 지원(노동신문, 04.19, 4면; 05.06, 5면)

- 평안북도, 철도운수부문 지원(노동신문, 04.19, 4면)
 - 신의주시, 운전군, 삭주군, 광산군, 구성시, 대관군, 피현군, 선천군, 박천군 등에서 철도 현대화와 철길정상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을 강구함
 - 1분기에 1만 2,000여㎡의 자갈보충과 수백km의 물도랑정리, 500㎡의 옹벽보수 등이 진행되고 16만여점의 철길고착품을 비롯한 많은 자재와 로동보호물자가 확보되었음
- 자강도, 철도운수부문 지원(노동신문, 05.06, 5면)
 - 철도운수부문을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지원하여 도적으로 수만㎡의 자갈보충과 수백km의 물도랑정리, 옹벽보수 등이 진행되고 많은 철길고착품과 로동보호물자들이 마련됨

다. 전국 각지, 도로개건공사 실시(노동신문, 05.05; 05.13; 06.15)

- 자강도, 도로기술개선 사업 추진(노동신문, 05.05, 5면)
 - 동신군, 화평군, 중강군, 향산군, 희천시, 우시군, 강계시 등에서 도로기술개선과 관련한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과 단위들에서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계획된 공사와제들을 빠른 시일안에 정확히 집행하고 있음
- 함경북도 회령시, 도로기술개선사업(노동신문, 05.13, 5면)
 - 회령시에서 도로들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은 총공사량으로 여러 주요도로에서 동시에 개건 진행
- 평안북도 향산군, 도로기술개선 진행(노동신문, 06.15, 5면)
 - 짧은 기간에 수십km구간의 도로기술개선을 진행하고, 주요도로의 피치포장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등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킴

그림 1 교통물류시설 건설·개발동향



2. 공급시설

- 황해남도 해주시, 생활용수보장 대상공사 결속(노동신문, 01.07)
- 양강도 김형직군, 능력이 큰 태양빛발전소 건설(노동신문, 01.14)
-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강11호발전소 건축공사 결속(노동신문, 03.11)
- 함경남도,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 중(노동신문, 04.12)
- 황해남도 해주시, 태양빛발전소 준공(노동신문, 05.01)

가. 황해남도 해주시, 생활용수보장 대상공사 결속(노동신문, 01.07, 5면)

- (내용)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계획한 대상공사를 결속함
 - 시에서는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정수장과 뽐프장들을 새로 건설하는것과 동시에 송배수 관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음
 - 특히 물을 자연흐름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완강하게 밀고나갔으며, 수질을 종전보다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였음

나. 양강도 김형직군, 능력이 큰 태양빛발전소 건설(노동신문, 01.14, 5면)

- (내용)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양강도 김형직군 파발리지역에 수천kW능력의 태양빛발전소를 새로 일떠세웠음
 - 양강도에 수만kW의 태양빛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계획에 따라 건설된 것으로 전력생산의 지속적장성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었음

다.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강11호발전소 건축공사 결속(노동신문, 03.11, 5면)

- (내용) 북청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북청강11호발전소 건축공사를 결속하였음
 - 백수십m에 달하는 여수로, 수백m에 달하는 방수로공사, 기초굴착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내고 타빈실, 발전기실을 비롯한 발전소건축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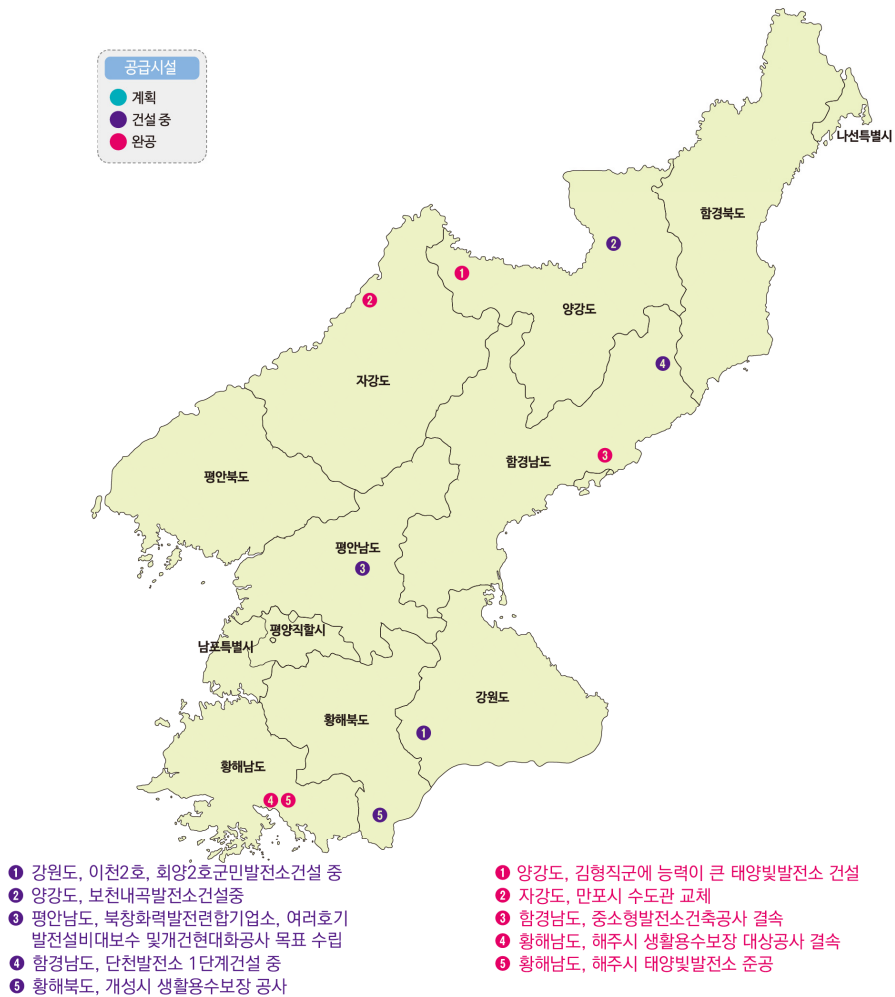
라. 함경남도,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 중(노동신문, 04.12, 1면)

- (내용) 1단계공사의 준공준비, 조업후 전력생산을 안정적으로 장성시키기 위한 대책을 비롯하여 2단계공사에서 합리적인 건설공법들의 적극 활용, 연관단위들에서 필요한 설비, 자재들의 제때 원만하게 보장하는 대책들이 강구됨

마. 황해남도 해주시, 태양빛발전소 준공(노동신문, 05.01,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해주시에 태양빛발전소를 건설하여 준공식이 4월 30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 태양빛전지판설치구역과 종합조종실, 휴게실을 비롯하여 전력생산과 종업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진 동력기지가 새로 일떠섬

그림 2 공급시설 건설·개발동향



3. 공장시설

- 전국, 지방공업공장 건설 중(노동신문, 01.30, 1면 외)
- 평안북도, 운산군 종합건재생산기지 건설(노동신문, 02.13, 5면)
- 함경남도, 수십개 건재생산기지 신설 및 개건(노동신문, 03.28, 5면)
- 함경남도, 리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노동신문, 05.04, 1면)

가. 전국, 지방공업공장 건설 중(노동신문, 01.30, 1면 외)

- (내용) 2026년도 지방발전정책 대상건설 첫 착공식이 1.29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진행된 이후 전국 20개 시·군에서 경공업공장(지방공업공장)·병원·종합봉사소 동시 건설
- 1.29 은률군, 1.31 평원군, 2.3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강남군·맹산군, 2.5 낙원군, 2.6 무산군·송화군·대안구역·판문구역, 2.7 신평군·선천군, 2.8 봉산군·시중군·신흥군·통천군, 2.9 화평군·평강군·리원군(양식사업소)·명간군·삼수군 순차 착공
- 당 제9차대회에서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병원·종합봉사소를 건설하고 연초 착공을 연말 준공으로 잇는 방식 제시
- (주제)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지방발전20×10 비상설 국방성지휘조

나. 평안북도, 운산군 종합건재생산기지 건설(노동신문, 02.13, 5면)

- (내용) 운산군에 대규모 종합건재생산기지 신규 건설
- 기존의 분산된 건재생산기지와 낮은 현대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 각종 건재생산장, 창고와 함께 합숙 등 문화후생시설 구비
- 건설 역량과 장비를 집중 동원하고 자재를 우선 보장

다. 함경남도, 수십개 건재생산기지 신설, 개건(노동신문, 03.28, 5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건재생산기지 수십 개를 신설·개건확장
- 성천강타일공장 등 마감건재 생산능력을 높여 타일·수지창·색감을 시·군에 공급
- 함흥철제일용품공장 금속건구류 생산기지, 함흥총련수지가공공장 상수관 생산기지 신설
- 북청군 수지일용품공장은 수지관 생산능력 1.5배 확장

그림 3 공장시설 건설·개발동향-건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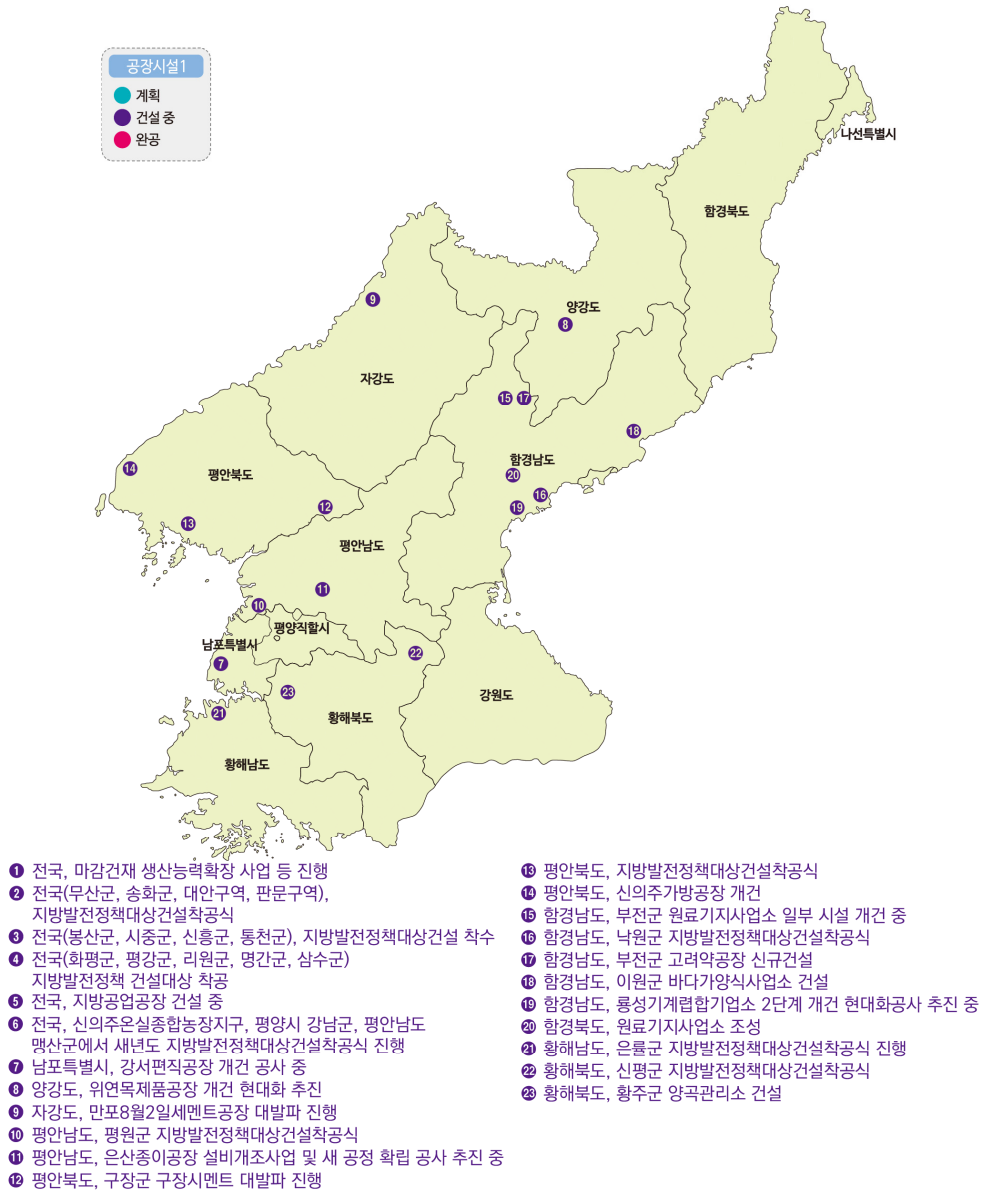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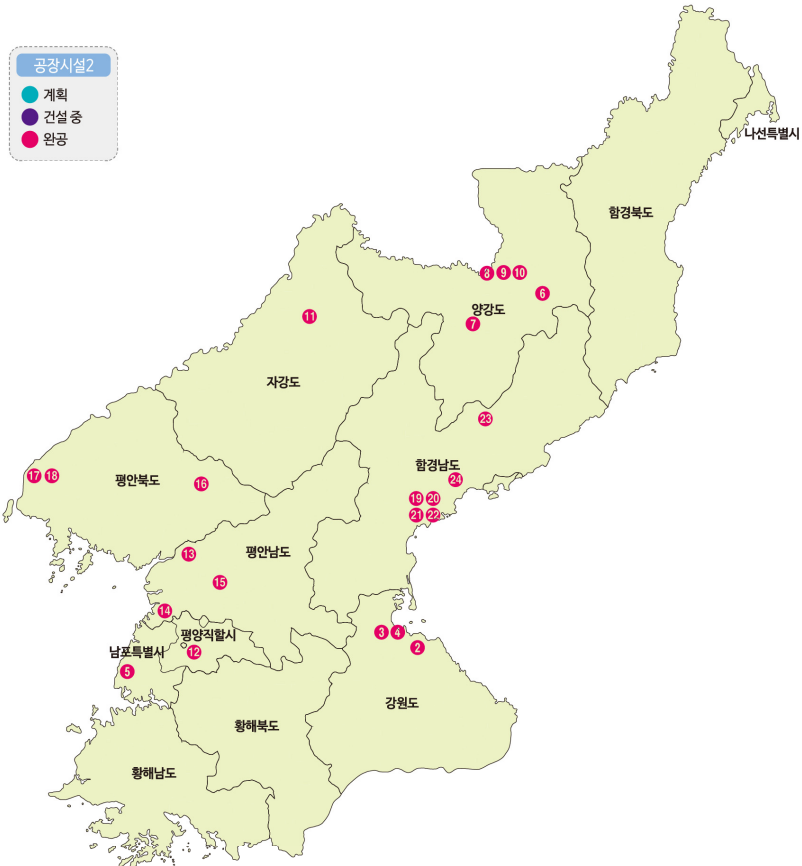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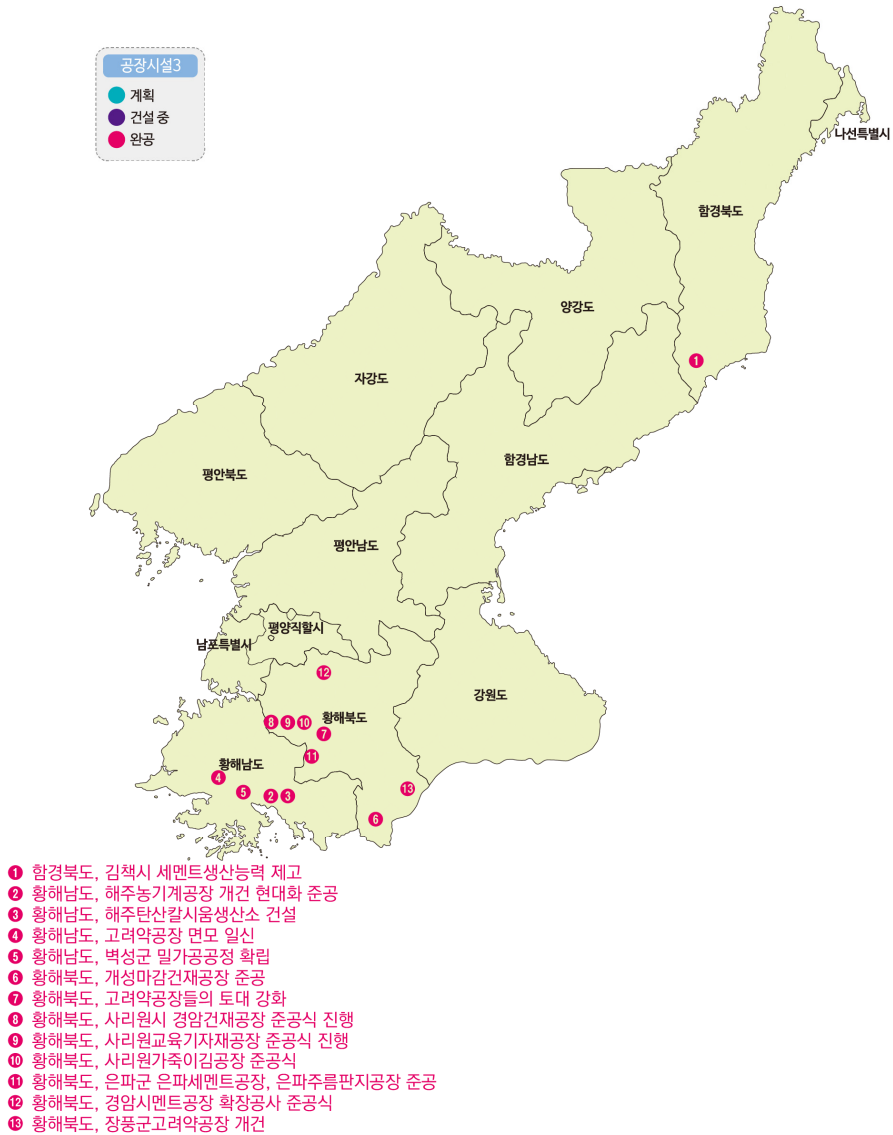


그림 4 공장시설 건설·개발동향 - 완공 1



- ① 전국, 지방공업공장 건설 중
- ② 강원도, 안변군 철령타일공장 준공
- ③ 강원도, 원산원자재공장 준공
- ④ 강원도, 원산여구종합공장 준공
- ⑤ 남포특별시, 원료기지 작업반 건물 조성
- ⑥ 양강도, 운흥군 원료기지사업소 개건
- ⑦ 양강도, 원료기지토대 강화
- ⑧ 양강도, 해산건재공장 개건
- ⑨ 양강도, 해산세멘트공장에서 10만산대발파
- ⑩ 양강도, 해산 기와공장 생산능력확장공사 결속
- ⑪ 자강도, 장강군 젓가공품공장 새로 건설
- ⑫ 평양직할시,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설비집중대보수공사 완료
- ⑬ 평안남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촉매생산기지 준공
- ⑭ 평안남도, 한천수산사업소 젓갈가공장 신규 건설
- ⑮ 평안남도,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석고수송공정 개조
- ⑯ 평안북도, 운산군 종합건재생산기지 건설
- ⑰ 평안북도, 신의주학생교복공장 개건
- ⑱ 평안북도, 신의주 수의약품공장 건설 완료
- ⑲ 함경남도,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대상 준공식
- ⑳ 함경남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 성천강 새 연제건설 결속
- ㉑ 함경남도,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 촉매생산기지, 지효성과립노소비료생산공정 새로 확립
- ㉒ 함경남도, 황초령샘물공장 준공식
- ㉓ 함경남도, 덕성군 건재생산기지 새로 건설
- ㉔ 함경남도, 수십개 건재생산기지 신설 및 개건

그림 5 공장시설 건설·개발동향 - 완공 2



4. 도시생활시설

- 평양직할시, 새별거리 준공식(노동신문, 02.16, 1면)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노동신문, 02.17, 1면)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중(노동신문, 06.19, 3면)
- 전국, 농촌살림집 건설(노동신문, 04.22, 1면 외)
- 함경남도,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과 대상공사 진행(노동신문, 04.24, 5면)

가. 평양직할시, 새별거리 준공(노동신문, 02.16, 1면)

- (내용) 참전군인 유가족을 위한 새별거리 준공식 2.15 진행
- 준공식에서 유가족에게 살림집 이용허가증 전달
- (위치) 평양직할시 화성구역

나.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2.17, 1면)

- (내용)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2.16 진행
- 당 제8차대회 과업으로 추진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수도건설 5개년계획) 종료

다.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중(노동신문, 06.19, 3면)

- (내용) 화성지구 5단계 살림집 건설 진행
- 성·중앙기관 제1려단(북해운성, 건설건설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채취공업성, 상업성, 수산성 대대)이 살림집 골조공사 완료

라. 전국, 농촌살림집 건설(노동신문, 04.22, 1면 외)

- (내용) 제9차 당대회 농촌건설목표 수행 첫해로, 현재까지 60여 개 시·군·구역 건설려단이 농촌살림집 건설에 진입
- 1월 중 전국 각지 농장에서 농촌살림집 완공과 입사모임 진행(01.01~01.31)
- 농촌건설중앙지휘부가 시공 품질관리와 시공·설계·감독 간 협동작전 강화

마. 함경남도,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과 대상공사 진행(노동신문, 04.24, 5면)

- (내용)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과 대상공사를 위한 설비·운전기재 출동식과 기공구 전시회를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서 진행
- 살림집과 함께 다리 여러 개소, 도로 이설공사 등 수십 개 대상건설 과업 제시
- (주체)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광천중기계사업소, 룡천광산, 단천지구광업총국

그림 6 도시생활시설 건설·개발동향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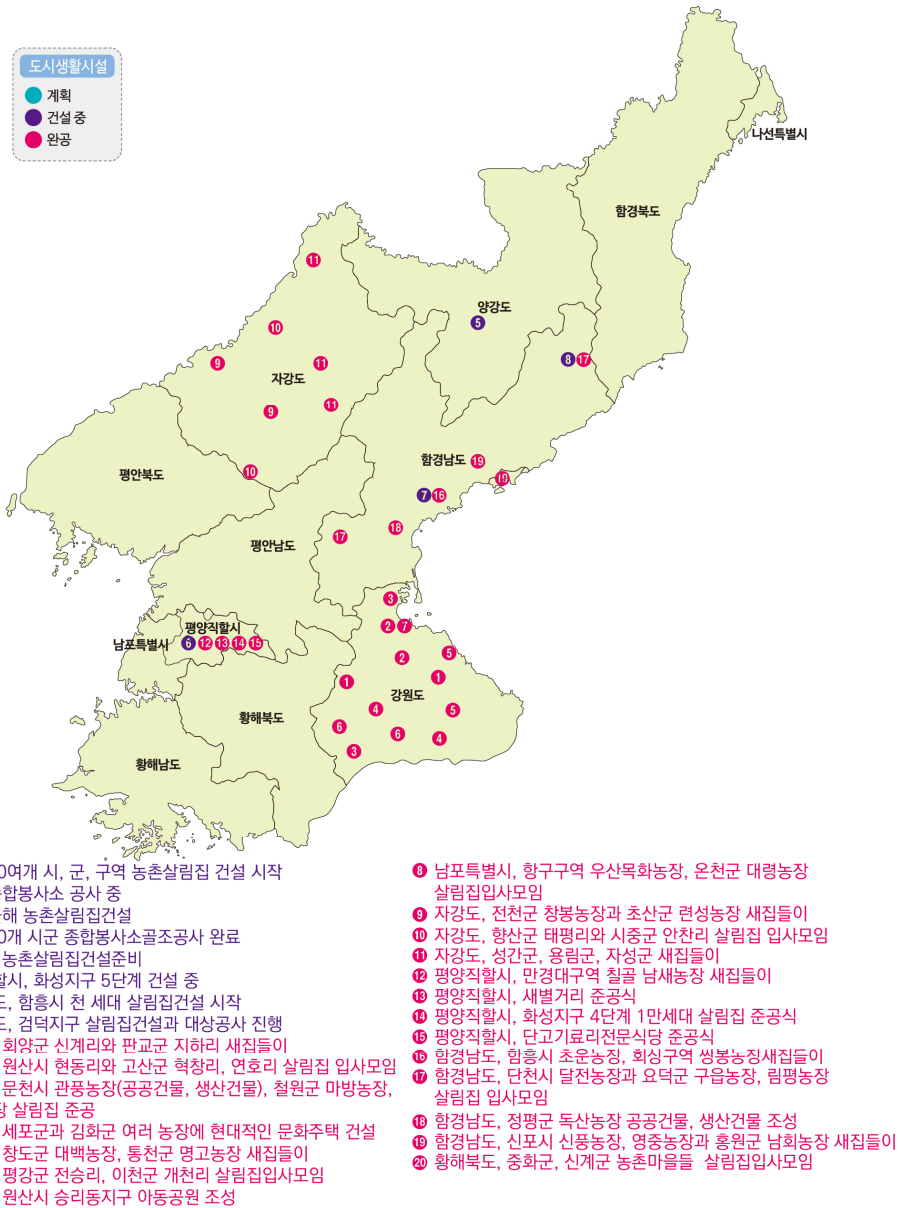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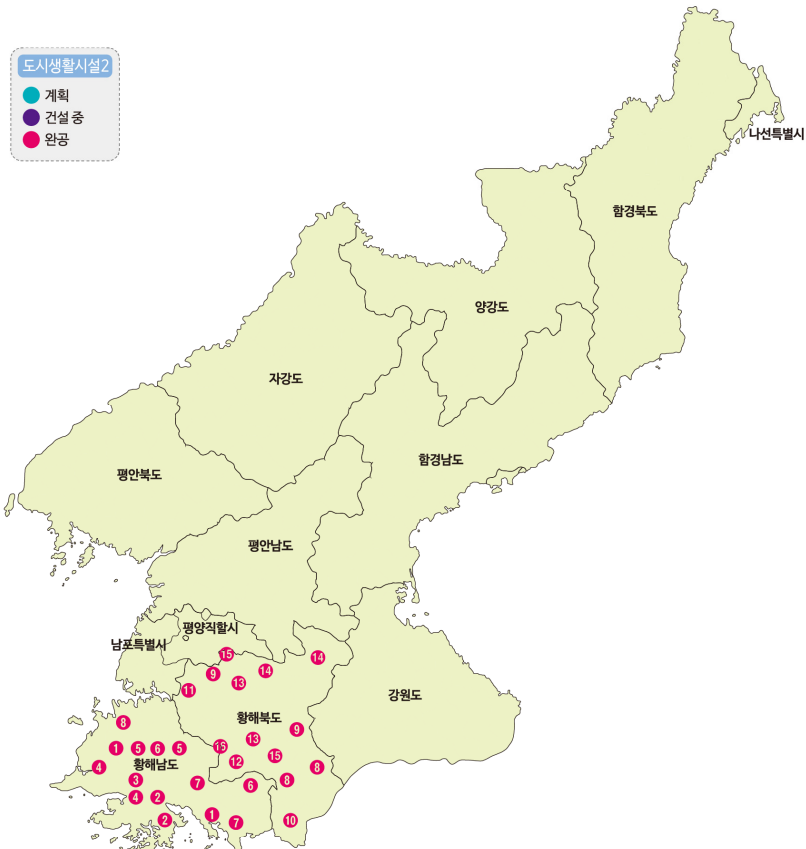


그림 7 도시생활시설 건설·개발동향 2



- ① 황해남도, 송화군 약산농장, 청단군 신생농장 새집들이
- ② 황해남도, 강령군 광천농장, 벽성군 서원농장 살림집입사모임
- ③ 황해남도, 공공건물, 생산건물, 살림집 건설
- ④ 황해남도, 장연군 석장리, 태탄군 성남리 살림집입사모임
- ⑤ 황해남도, 삼천군 추릉농장과 재령군 신환포농장 살림집입사모임
- ⑥ 황해남도, 신천군 복우농장, 봉천군 석사농장 새집들이
- ⑦ 황해남도, 신원군 월당농장, 연안군 라진포농장 새집들이
- ⑧ 황해남도, 은룡군 가양농장과 황해북도 금천군 계정농장, 도산군 읍농장에서 살림집입사모임
- ⑨ 황해북도, 중화군, 신계군 농촌마을들 살림집입사모임
- ⑩ 황해북도, 개성시덕암농장 공공건물, 생산건물 준공식
- ⑪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송죽공예작물농장, 송림시 신랑농장 새집들이
- ⑫ 황해북도, 황주읍농장과 린산군 석련농장 살림집입사모임
- ⑬ 황해북도, 서흥군 문무리, 상원군 흑우리, 로동리 입사모임
- ⑭ 황해북도, 연산군 읍농장, 신평군 선암농장 새집들이
- ⑮ 황해북도, 승호군 만달남새농장, 평산군 와현농장 새집들이
- ⑯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농장 공공건물, 생산건물 준공식

5. 국토지역개발

- 황해남도, 대동만 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공사 결속(노동신문, 02. 11)
- 전국, 봄철나무심기 진행(노동신문, 04.22)
- 자강도, 도 소재지 면모 일신(노동신문, 05. 31)

가. 황해남도, 대동만 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공사 결속(노동신문, 02. 11, 3면)

- (내용) 서해지구 대동만 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
 - 간석지개간을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
 - 방조제 공사를 위해 120여만 m^3 의 막돌과 토량 확보, 룬전기재들과 건설장비 가동률 향상 노력
- (주제) 박승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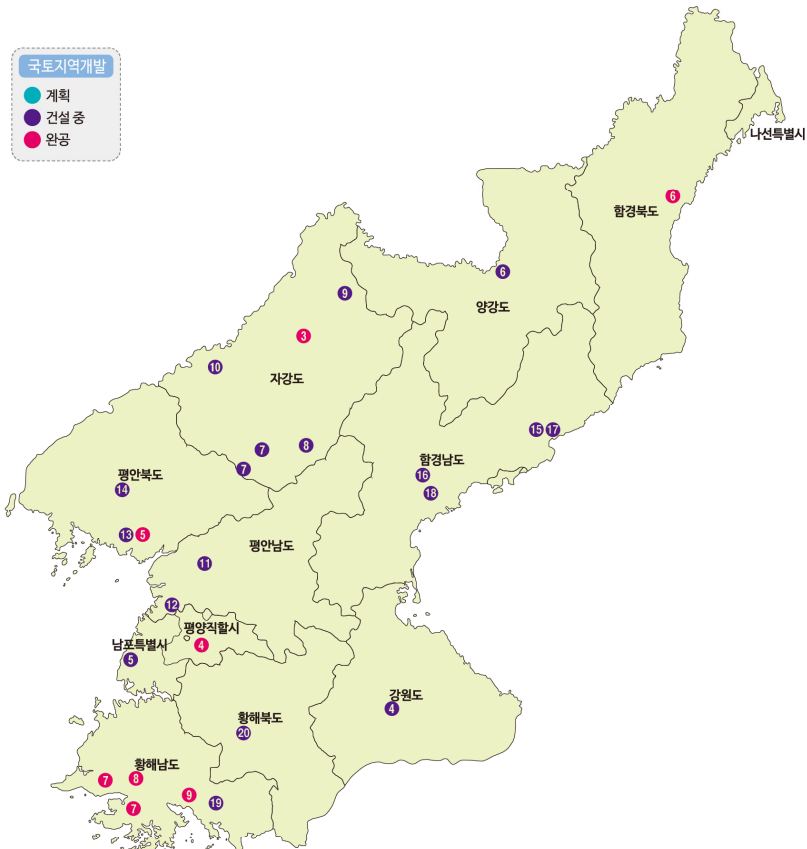
나. 전국, 봄철나무심기 진행(노동신문, 04. 22, 5면)

- (내용) 전국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1억 수천만그루 식목
 -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맞게 일별, 주별 식목계획을 수립, 산림복구사업을 과학적으로 추진
 -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남포시, 함경남도 등 전국적으로 단계별 계획에 따라 나무를 적지적수, 적기적수 원칙에 따라 식목 추진
- (주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지도국과 각지 산림부문 일군들

다. 자강도, 도소재지 면모 일신(노동신문, 05. 31, 1면)

- (내용) 자강도 강계시 면모 일신 중
 - 천수백세대 다층살림집과 공공건물이 개건되고 곳곳에 이채로운 원림경관이 조성된 여러 도로가 일신되어 거리가 새롭게 변모
 - 장자강 인민유원지를 비롯 시 안의 공원과 휴식터들이 훌륭하게 꾸러지고 채색수종의 나무와 꽃 관목들이 많이 심어져 거리의 풍치가 바뀔
 - 공공건물과 살림집 개건에 필요한 색기와, 세민트, 목재, 칠감 등 자재보장을 선행하기 위해 노력
- (주제) 도당위원회 및 도인민위원회가 단계별 계획 추진

그림 8 도시생활시설 건설·개발동향 2



- ① 전국, 새 농촌마을 원립화 추진
- ② 전국, 봄철위생월간에 즈음하여 지역정비
- ③ 전국, 봄철나무심기 진행
- ④ 강원도, 지역 면모 일신
- ⑤ 남포특별시, 시의 면모일신 사업
- ⑥ 양강도, 지난해부터 계속된 대상공사과제 추진 중
- ⑦ 자강도, 봄철토지정리
- ⑧ 자강도, 동신군소재지 면모 일신 중
- ⑨ 자강도, 회평군 지역면모일신중
- ⑩ 자강도, 초산군 면모일신
- ⑪ 평안남도, 문덕군, 마을정비 중
- ⑫ 평안남도, 대동군 지역 면모일신 중
- ⑬ 평안북도, 일해간석지건설 중
- ⑭ 평안북도, 새 농촌마을에 대한 원림록화사업 진행
- ⑮ 함경남도, 이원군 군소재지 면모 일신
- ⑯ 함경남도, 봄철나무심기 진행
- ⑰ 함경남도, 이원군 낙원포 지역개발사업 추진 중

- ⑱ 함경남도, 도소재지 면모 일신
- ⑲ 황해남도, 각회도 간석지 건설 중
- ⑳ 황해북도, 봄철국토관리사업 추진
- ① 전국, 올해 개간된 간석지 내부망공사
- ② 전국, 봄철 4,000여정보 토지 포전 정리
- ③ 자강도, 도소재지 면모 일신
- ④ 평양직할시, 순안구역 도시관리 사업 추진
- ⑤ 평안북도, 애도간석지 1구역 준공식
- ⑥ 함경북도, 청진시 도시경영사업 추진
- ⑦ 황해남도, 대동만간석지 2구역 1차물막이공사 결속
- ⑧ 황해남도, 봄철나무심기 결속
- ⑨ 황해남도, 해주시 면모일신

6. 문화휴양시설

- 함경북도,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노동신문, 01. 21)
- 함경북도,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노동신문, 01.23)
- 함경남도, 경포소년단야영소 준공(노동신문, 02.03)
- 함경남도, 함경남도승마구락부 준공(노동신문, 04.27)
- 양강도, 3대혁명전시관 개관식(노동신문, 06.18)

가. 함경북도,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노동신문, 01. 21, 1면)

- (내용) 온포근로자휴양소가 국가 온천문화 대표 성과로 1월 20일 준공
- 명산, 명소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문화휴양지의 한 곳임
- (특징) 전국 도처에 인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새로운 관광지와 휴양소, 요양소 건설 중인 상황에서, 타 시설의 본보기 역할 강조

나. 함경북도,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노동신문, 01. 23, 1면)

- (내용) 동해 명승으로 유명한 염분진지구에 지방방전의 새 경관으로 해안공원지구가 1월 22일 준공
- (규모) 수백명 숙박 가능한 호텔과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을 비롯 종합적 봉사시설로 구성
- (특징) 자기 지역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 이용하는 것을 강조

다. 함경남도, 경포소년단야영소 준공(노동신문, 02.03, 5면)

- (내용) 동해기슭의 풍치수려한 명당자리에 경포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일떠세워 준공식이 2월 2일에 진행되었음
- 야영소에는 야영각과 체육관, 해수욕장, 식당, 회관, 종합지식보급실, 전자도서열람실, 전자오락실 등이 꾸려져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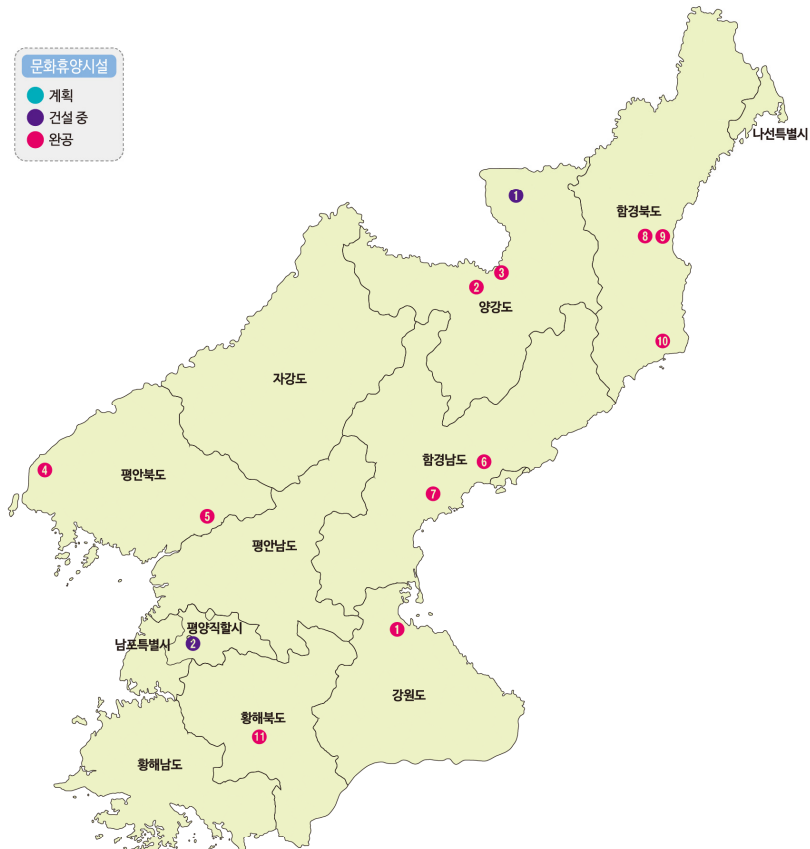
라. 함경남도, 함경남도승마구락부 준공(노동신문, 04.27, 9면)

- (내용) 함경남도승마구락부가 새로 일떠서 준공식이 4월 26일 현지에서 진행됨
- 승마지식보급실과 승마주로, 기초훈련장 등이 갖추어진 봉사기지가 훌륭히 꾸려져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하며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었음

마. 양강도, 3대 혁명 전시관 개관식(노동신문, 06. 18, 3면)

- (내용) 양강도 혜산시 3대 혁명전시시관, 6월 17일 개관식 진행
- (규모) 도 안의 시, 군 및 각 단위에서 3대 혁명수행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들과 설비, 직관물들이 전시. 학술토론회장 및 전자열람실 등으로 구성

그림 9 문화휴양시설 건설·개발동향



- 1 양강도, 삼지연산악관광지구건설
- 2 평양직할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건설중
- 3 강원도, 원산시 송도원지구 백화원 개건
- 4 양강도, 삼수군 문화회관을 새로 건설
- 5 양강도, 3대혁명전시관 개관식
- 6 평안북도, 신의주화장품공장 체육관 건설
- 7 평안북도, 문화정서생활기지 조성
- 8 함경남도, 경포소년단야영소 준공
- 9 함경남도, 승마구락부 건설
- 10 함경북도,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
- 11 함경북도,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
- 12 황해북도, 서흥호소년단야영소 개건

7. 교육복지시설

- 평양직할시, 산림연구원 준공식(노동신문, 01. 20)
- 함경북도, 부령군 설계연구소 건설(노동신문, 04. 02)
- 평안북도, 수십개 학교 및 유치원 건설·개건현대화 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06. 22)

가. 평양직할시, 산림연구원 준공식(노동신문, 01. 20, 5면)

- (내용) 평양직할시, 산림연구원 준공식이 1월 19일 진행
 - 김정은위원장이 산림연구원 건설을 직접 발기, 산림과학기술을 담당할 연구중심 과학 연구기지를 준공 완료
 - 독특한 건축형식의 사무청사와 편의봉사시설, 여러 가지 산열매가공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중간시험공장 및 보조건물로 구성
 -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나라의 모든 산을 인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자원으로 변화시킬 것을 강조
- (주체) 평양건설위원회와 평양시, 평안남도 등의 근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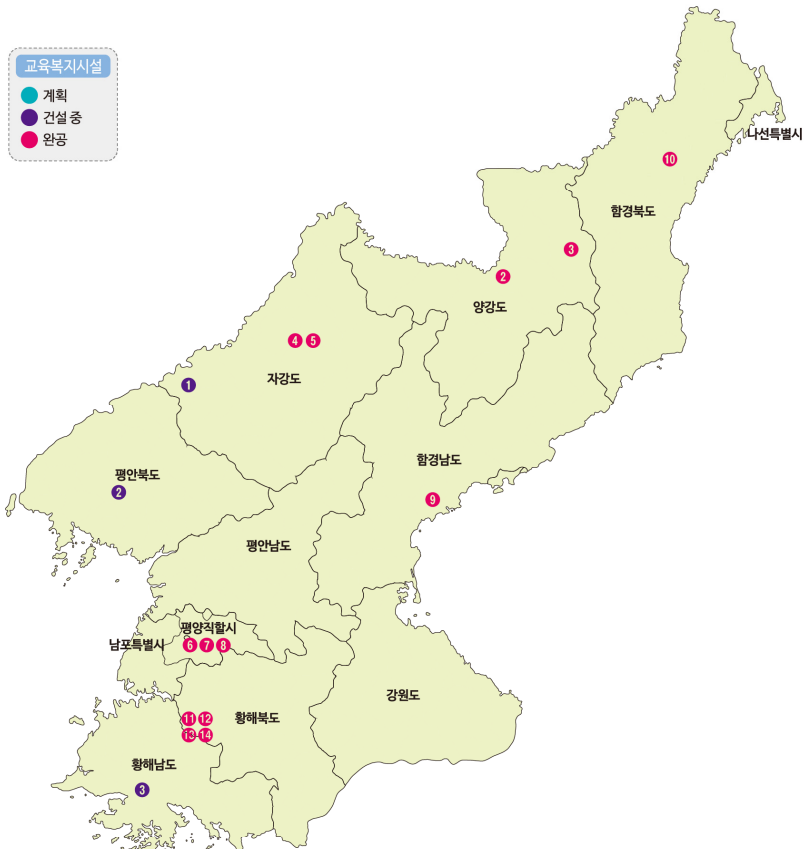
나. 함경북도, 부령군 설계연구소 건설(노동신문, 04. 02, 4면)

- (내용) 함경북도 부령군 설계연구소가 번듯하게 일떠섬
 - 농촌혁명강령의 실현을 위하여 설계연구소를 건설
 - 연구소는 사무실들과 화상심의실, 설계실, 각종 전자설비들을 갖춘 시설로 구성

다. 평안북도, 수십개 학교 및 유치원 건설·개건현대화 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06. 22, 6면)

- (내용) 올해 계획한 수십개의 학교, 유치원 건설 및 개건현대화 공사를 중요 정책으로 추진 중
 - 선천군에서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여러 학교의 면모 일신 과제를 추진. 짧은 기간 내 안상기술고급중학교 건설을 완공, 나머지 대상공사 추진 중
 - 구장군에서는 상구기술고급중학교 건설을 추진 중이며, 백수십점의 현대적 교육 설비를 마련하여 학교와 유치원에 보급
 - 피현군에서도 건설 공사를 적기에 맞추어 적극 추진 중. 그 외 구성시, 태천군, 천마군 등 도 내 건설자들의 열의를 고조시켜 학교, 유치원 건설 및 개건 현대화 공사 성과를 계속 확대 중

그림 10 교육복지시설 건설·개발동향



- ① 자강도, 학교건설 및 개건 공사 중
- ② 평안북도, 수습개 학교 및 유치원 건설, 개건현대화 공사 추진 중
- ③ 황해남도, 학교건설 및 개건현대화공사

- ① 전국, 직업기술학교 개건
- ② 양강도, 도산림과학연구소 개건
- ③ 양강도, 백암군 연암소학교 석개물분교 건설
- ④ 자강도, 강계시 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 건설
- ⑤ 자강도, 도계급교양관 개건
- ⑥ 평양직할시, 산림연구원 준공식
- ⑦ 평양직할시, 농기계연구소 준공식
- ⑧ 평양직할시, 서포고급중학교 실험실습도대 새로 구축
- ⑨ 함경남도, 함흥의학대학 기숙사 준공식
- ⑩ 함경북도, 부령군 설계연구소 건설
- ⑪ 황해북도, 리계순사리원사범대학 준공식
- ⑫ 황해북도,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 개건 준공식
- ⑬ 황해북도, 도교수강습소 개건
- ⑭ 황해북도, 농촌리병원 및 진료소를 환경 개선

8. 광업자원시설

- 전국, 여러 탄광 사이로식석탄저장고건설(노동신문, 02.11)
- 전국, 석탄공업성 새 탄광, 새 갱건설 추진(노동신문, 03.15)
- 함경남도 고원군, 풍남광산개발 중(노동신문, 04.11; 05.29)
- 함경북도, 온성지구탄광연합기업소 인회암 갱건설 추진(노동신문, 06.14)

가. 전국, 여러 탄광 사이로식석탄저장고건설(노동신문, 02.11, 3면)

- (내용) 석탄공업부문의 여러 탄광에서 현행생산을 힘있게 내밀면서 능률적인 사이로식석탄저장고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음
 -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자강도공급탄광, 조양탄광, 봉천탄광을 비롯하여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형봉탄광, 덕성탄광 등에서 능률적인 석탄저장고를 손색없이 일떠세웠음

나. 전국, 석탄공업성 새 탄광, 새 갱건설 추진(노동신문, 03.15, 5면)

- (내용) 석탄공업부문에서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새 탄광, 새 갱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음
 -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삼록탄광,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극동탄광, 룡반탄광 1갱, 경원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태산탄광, 룡북청년탄광 청년2갱,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풍곡청년탄광 청년갱 등이 굴진, 영구화에 있어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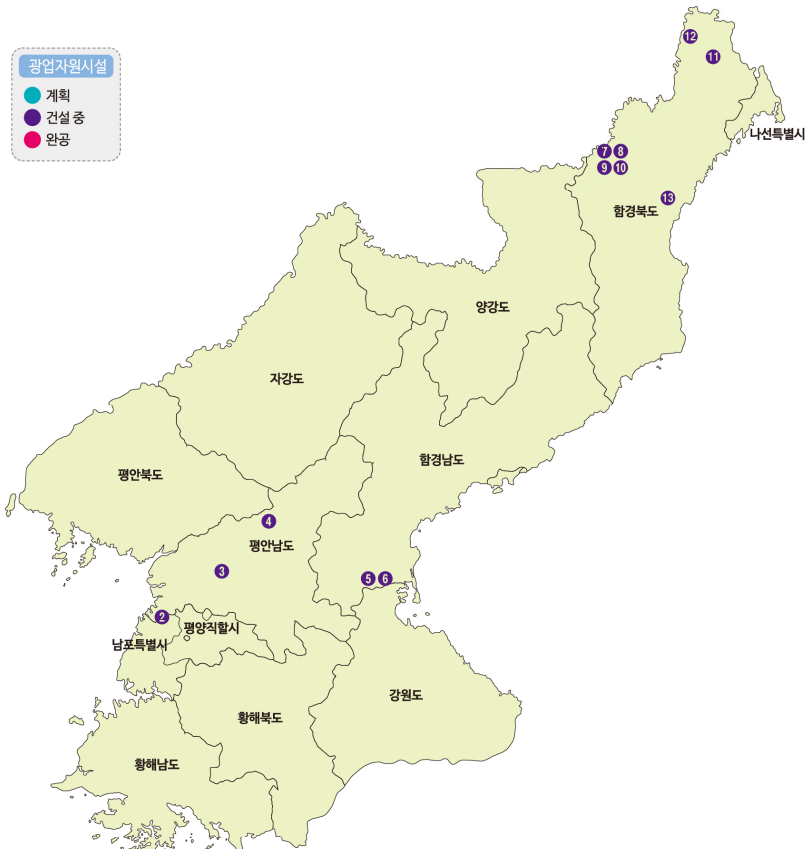
다. 함경남도 고원군, 풍남광산개발 중(노동신문, 04.11, 3면; 05.29, 1면)

- (내용) 풍남리에 유망한 석회석생산기지가 면모를 드러내고있으며,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에 필요한 질높은 석회석을 넉넉히 보장해줄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될 것임
 -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로동자합숙, 탁아유치원, 진료소, 광부원을 건설해놓은 연합기업소로동계급은 지금 수백세대의 종업원살림집건설을 다그치고있음

라. 함경북도, 온성지구탄광연합기업소 인회암 갱건설 추진(노동신문, 06.14, 1면)

- (내용) 온성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석탄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린회암채굴을 위한 갱건설을 계속 힘있게 진척시키고있음
 - 수천m의 기본굴진과 수백m의 갱도영구화공사, 권양기장과 저광장건설 등이 계속 되면 린회암비료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될 것임

그림 11 광업자원시설 건설·개발동향



- ① 전국, 석탄공업성 새 탄광, 새 갱건설 추진
- ② 남포시, 평안남도, 오석산화강석광산에서 새 광구개발 중
- ③ 평안남도, 순천석회석광산대발파 진행
- ④ 평안남도, 덕천시 월봉탄광 벨트콘베어 공사 진행 중
- ⑤ 함경남도, 풍남광산개발 중
- ⑥ 함경남도, 고원군 풍남광산개발공사
- ⑦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1월 100만산대발파 단행
- ⑧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3월 100만산대발파준비
- ⑨ 함경북도, 무산~청진 철정광수송관 한계동 증설 공사
- ⑩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5월 120만산대발파준비
- ⑪ 함경북도, 경원군 경원지구탄광연합기업소 태산탄광 건설 중
- ⑫ 함경북도, 운성군 운성지구탄광연합기업소 인회암 갱건설 추진
- ⑬ 함경북도, 청진시 인회암비료공장 건설 중

① 전국, 여러 탄광 사이로식석탄저장고건설

9. 농림어업시설

- 황해남도, 웅진 서해바다양어사업소 조기종어장 준공(노동신문, 01. 20)
- 평안북도,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준공식(노동신문, 02. 02 外)
- 강원도, 원산온실 농장 건설 중(노동신문, 05. 04)
- 평안남도, 은산군 수백정보 종이원료림 조성(노동신문, 06. 03)

가. 황해남도, 웅진 서해바다양어사업소 조기종어장 준공(노동신문, 01. 20, 5면)

- (내용) 웅진서해바다양어사업소에서 조기종어장이 건설 준공식이 1월 19일 진행
– 종어장에는 사무청사, 후생건물, 먹이배양지, 알깨우기장, 그물우리 등으로 구성
- (주제) 황해남도 당, 정권기관 일군들, 도 수산관리국과 사업소 종업원들 등

나. 평안북도,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준공식(노동신문, 02. 02 外)

- (내용)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준공식이 2월 1일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 직접 참석
– 천수백동의 다양한 현대적인 온실동, 남새과학연구중심, 문화주택들, 다양한 문화 생활기지들이 특색있게 꾸려짐
-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당 제9차 대회의 주요 성과
- 자연 재앙이 휩쓸고간 지역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제방을 건설하고 최대규모 온실농장을 건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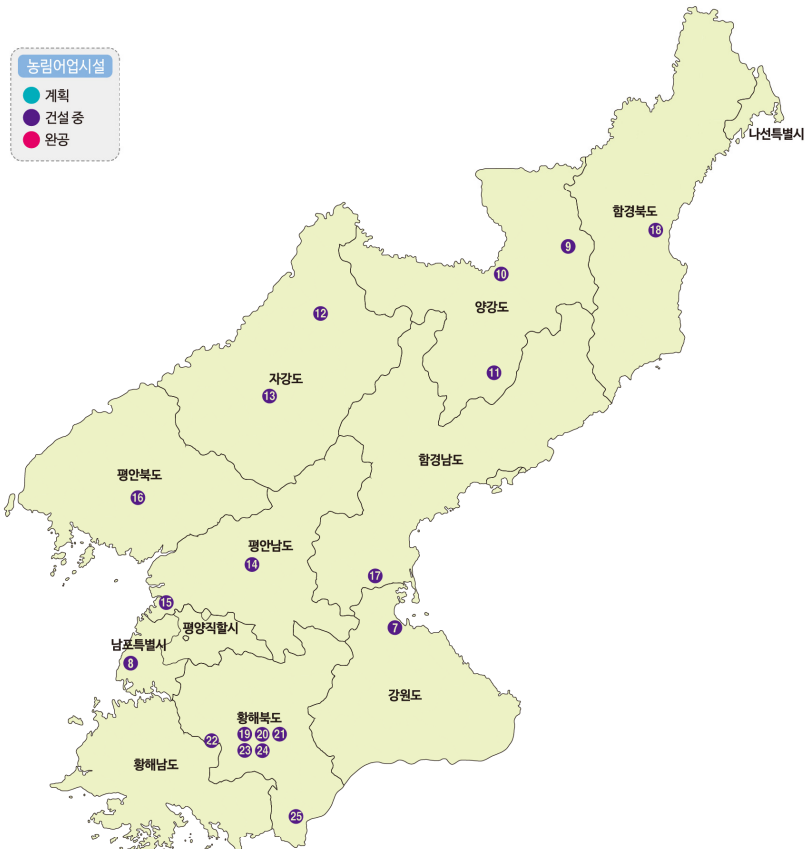
다. 강원도, 원산온실농장 건설 중(노동신문, 05. 04, 1면)

- (내용) 강원도 원산온실농장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
– 원산시에 현대적인 온실농장이 일떠서게 되면 시민들은 물론 도 안의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냄새 공급 가능
- 현재 건축 공사의 60% 수준에서 추진 중, 1,000㎡ 급 물탱크, 물 여과장, 영양액 소독 및 회수펌프장, 집수정공사, 도로공사 등을 추진 중
- 기술자들은 반궁릉식 2중박막수경온실건설을 추진 중이며, 그 외 대상공사도 계획대로 추진 중

라. 평안남도, 은산군 수백정보 종이원료림 조성(노동신문, 06. 03,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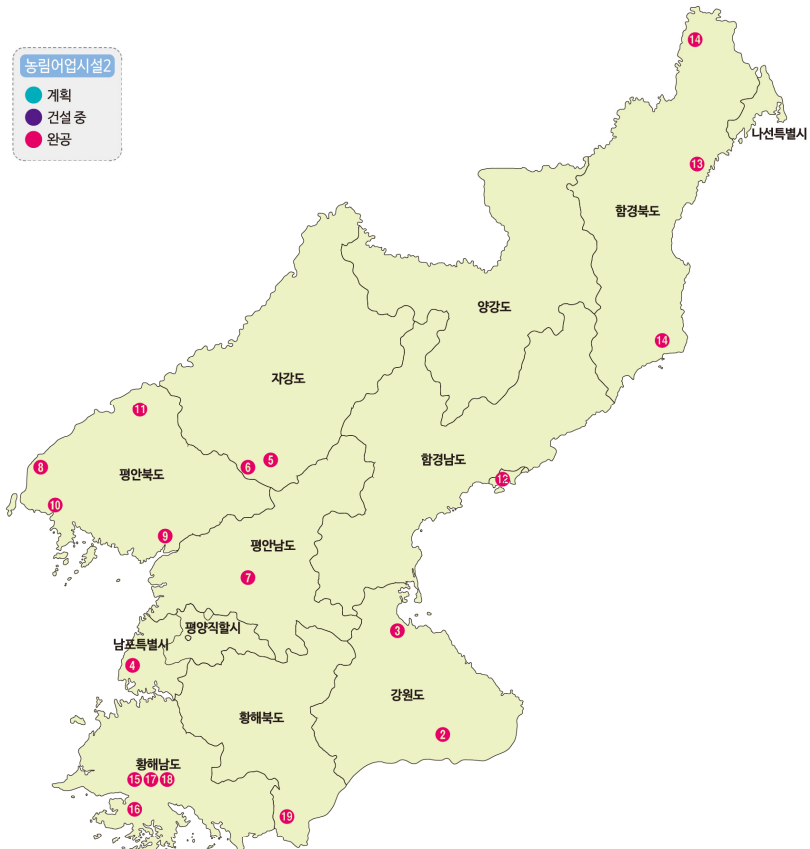
- (내용) 은산군에서 수백정보의 종이원료림을 조성했음
– 이를 위해 적지를 확정, 종이원료림 조성에 필요한 나무 모 확보를 선행
- 근로자들은 잡관목과 잡풀 제거작업을 통해 임지 정리를 추진, 나무 모 운반과 구덩이 파기 등 공정별 작업을 기술적으로 진행. 정상다해 식목함
- 일군들은 사름을 보장을 위해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

그림 12 농림어업시설 건설·개발동향 - 1



- ① 제2차 산림복구사업 계획
- ② 전국, 벼모기르기온실건설 추진
- ③ 전국, 논판양어 준비사업 추진
- ④ 전국, 가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최소화 사업 추진
- ⑤ 전국, 저수확지개량 사업
- ⑥ 전국, 수유나무림개조 마감 단계
- ⑦ 전국, 밭벼재배면적 증가
- ⑧ 강원도, 원산온실농장건설
- ⑨ 남포특별시, 식목사업추진
- ⑩ 양강도, 백암군 약초산 조성
- ⑪ 양강도, 해산시 공예작물재배면적 확대
- ⑫ 양강도, 강령권군 종이원로림 조성 추진
- ⑬ 자강도, 장강군 무덕축산농장 젖소우리 조성
- ⑭ 자강도, 수백정보 방목지 개간
- ⑮ 평안남도, 물확보사업 추진중
- ⑯ 평안남도, 평원군 저수지 물확보능력 높이기 공사
- ⑰ 평안북도, 구성시 당작물재배면적 확대
- ⑱ 함경남도, 고원군 기름나무모 증산 추진
- ⑲ 함경북도, 중평온실농장 원통형 남새재배장치온실 건설 중
- ⑳ 황해남도, 가물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중
- ㉑ 황해남도, 삼천군 물확보사업 추진
- ㉒ 황해북도, 관개체계 정비중
- ㉓ 황해북도, 은파군 물확보사업 추진
- ㉔ 황해북도, 기름작물재배면적 확대
- ㉕ 황해북도, 종어생산토대 구축
- ㉖ 황해북도, 젖소분장건설

그림 13 농림어업시설 건설·개발동향 - 2



- ① 전국, 각 도양묘장 올해 2억여그루 나무모 보장
- ② 강원도, 김화군 수심정보의 밭을 논으로 전환
- ③ 강원도, 원산시 기름나무조성 사업 추진
- ④ 남포특별시, 논판양어준비
- ⑤ 자강도, 류충농장 벼모재배온실 조성
- ⑥ 자강도, 향산군 목초액생산기지 조성
- ⑦ 평안남도, 은산군 수백정보 종이원료림 조성
- ⑧ 평안북도,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식
- ⑨ 평안북도, 운전군 삼광축산농장 일신 및 조업식
- ⑩ 평안북도, 염주군 우렁이 동면장 건설
- ⑪ 평안북도, 창성군 양사육장 조성
- ⑫ 함경남도, 신포시 수산물가공기지 새로 건설
- ⑬ 함경북도,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 준공
- ⑭ 함경북도, 벼모재배온실들 조성

- ⑮ 황해남도, 시, 군 자체로 지선물길정리공사
- ⑯ 황해남도, 웅진서해바다양어사업소 조기종어장 준공
- ⑰ 황해남도, 수만정보 토지 개량
- ⑱ 황해남도, 그물우리양어장 조성
- ⑲ 황해북도, 개성시양묘장 준공

10. 환경방재시설

- 남포특별시, 샘물공급소 신설 및 개건 공사 추진(노동신문, 04. 02)
- 자강도, 희천시 제방쌓기 공사(노동신문, 04. 06)
- 평안북도, 강하천 정리 사업 진행(노동신문, 06. 08)
- 황해북도, 강하천 정리 사업 진행(노동신문, 06. 08)

가. 남포특별시, 샘물공급소 신설 및 개건 공사 추진(노동신문, 04. 02, 4면)

- (내용) 남포시에서 수십개의 샘물공급소를 신설 및 개건하고 있음
 - 신설 및 개건되는 수십개의 샘물공급소는 주민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게,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게 꾸려지고 있음
- (주체) 시당위원회, 시 일군들 등

나. 자강도, 희천시 제방쌓기 공사(노동신문, 04. 06, 5면)

- (내용) 희천시에서 강하천의 통수능력 제고를 위한 바닥파기와 제방쌓기 공사를 적극 내밀고 있음
 - 3월 초 중기계, 시멘트 보장 등과 관련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고, 치산치수 사업을 만년 대계 사업으로 자각, 공사를 계속 확대 중
- (주체) 시당 위원회 책임일군, 시 일군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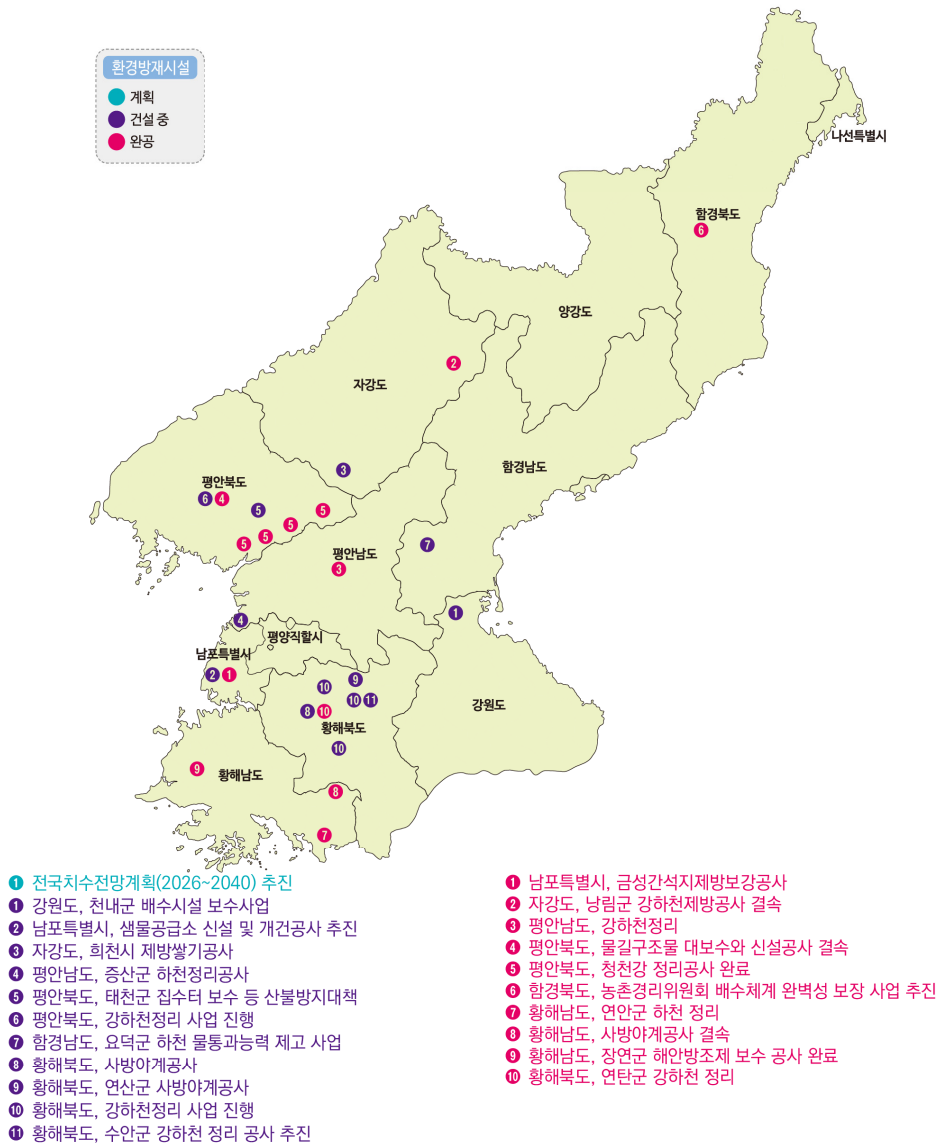
다. 평안북도, 강하천 정리 사업 진행(노동신문, 06. 08, 5면)

- (내용) 평안북도의 시, 군에서 강하천 정리계획을 면밀하게 추진 중
 - 삭주군에서는 전개력 강한 일군들을 중심으로 방대한 구간의 강하천 바닥파기와 장석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
 - 창성군에서는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유평리 지역 강하천을 표준으로 정리
 - 운산군에서는 강하천정리 공사에 많은 굴착기와 유압식 적재기, 대형화물차를 동원, 수백만 ㎡의 강하천파기와 수십㎢ 제방성토 진행

라. 황해북도, 강하천 정리사업 진행(노동신문, 06. 08, 5면)

- (내용) 황해북도 시, 군에서 강하천 정리 사업을 적극 추진 중
 - 도에서는 역량을 집중하여 수백 ㎢ 구간의 강하천 바닥파기와 제방보수공사 목표를 수립하고 적극 추진 중
 - 수안군에서는 공사계획을 수립, 물 통과능력 제고 추진과 함께 장석 쌓기를 질적으로 하면서 지피식물 심기에도 노력
 - 신평군에서는 굴착기 가동율을 높여 하천 바닥파기 적극 추진 중

그림 14 환경방재시설 건설·개발동향



Ⅲ.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1. 개요

‘개발’ 총 265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유형별 보도 건서를 정리한 결과,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 건설 사업의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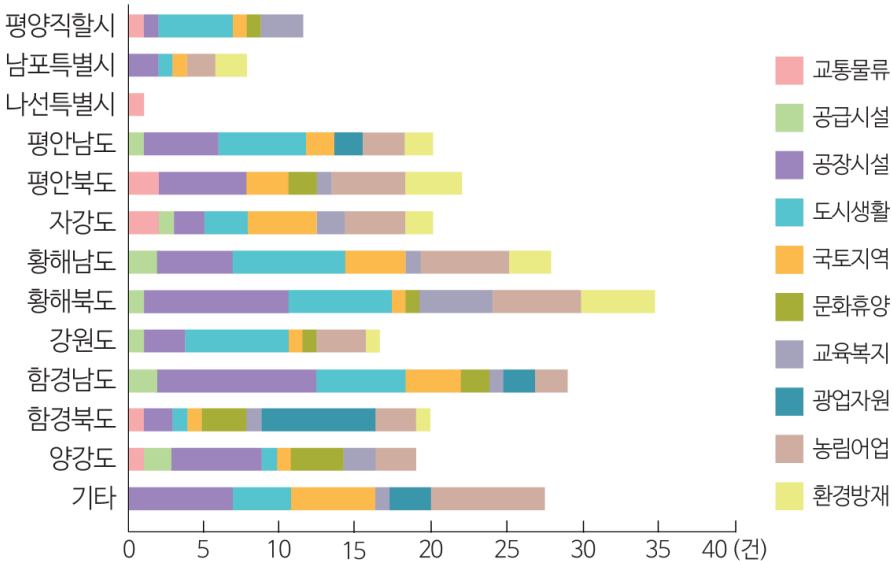
(단위: 건)

구 분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¹⁾	공장 시설	도시 생활 ²⁾	국토 지역 ³⁾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평양직할시	12	1	0(0)	1	5(4)	1(0)	1	3	0	0	0
남포특별시	8	0	0(0)	2	1(1)	1(0)	0	0	0	2	2
나선특별시	1	1	0(0)	0	0(0)	0(0)	0	0	0	0	0
평안남도	21	0	1(1)	5	6(6)	2(0)	0	0	2	3	2
평안북도	23	2	0(0)	6	0(0)	3(0)	2	1	0	5	4
자 강 도	21	2	1(0)	2	3(3)	5(0)	0	2	0	4	2
황해남도	29	0	2(1)	5	8(8)	4(0)	0	1	0	6	3
황해북도	36	0	1(0)	10	7(5)	1(0)	1	5	0	6	5
강 원 도	17	0	1(1)	3	7(6)	1(0)	1	0	0	3	1
함경남도	31	0	2(2)	11	6(5)	4(0)	2	1	2	2	1
함경북도	20	1	0(0)	2	1(1)	1(0)	3	1	7	3	1
양 강 도	19	1	2(2)	6	1(1)	1(0)	3	2	0	3	0
기타 ⁴⁾	27	0	0(0)	7	4(2)	5(0)	0	1	3	7	0
계		8	10	60	49(42)	29	13	17	14	44	21

주1) 괄호는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 건수임 주2) 괄호는 도시생활시설 중 살림집 건수임

주3) 괄호는 국토지역개발 중 특구 건수임 주4) 전국 또는 3개도 이상 걸친 시설, 또는 위치미상 시설 건수임

그림 1 건설·개발 사업의 지역별-시설유형별 분포



2. 지역별 현황

가. 평양직할시

- 총 12건으로 도시생활시설 5건, 교육복지시설 3건 외 교통물류시설, 공장시설, 국토지역 개발, 문화휴양시설이 각 1건 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새별거리 준공식,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중, 산림연구원 준공 등

나. 남포특별시

- 총 8건으로 공장시설 2건, 농림어업시설 2건, 환경방재시설 2건, 도시생활시설 1건, 국토지역개발 1건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샘물공급소 신설 및 개건공사 추진, 금성간석지 제방보강공사, 강서편 직공장 개건 공사 중 등

다. 나선특별시

- 총 1건으로 교통물류시설, 조-러 국경자동차다리 연결 작업 진행 기사가 있었음

라. 평안남도

- 총 21건으로 도시생활시설 6건, 공장시설 5건, 농림어업시설 3건, 환경방재시설 및 광업 자원시설, 국토지역개발 각 2건, 공급시설 1건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덕천시 구장농장무안농장과 신양군 삼파농장 살림집 입사 모임 진행, 북청화력발전연합기업소 발전설비 대보수, 한천수산업소 젓갈가공장 신규 건설, 은산군 수백정보 종이원료림 조성 등

마. 평안북도

- 총 23건으로 공장시설 6건, 농림어업시설 5건, 환경방재시설 4건, 국토지역개발 3건, 문화휴양시설, 교통물류시설 각 2건, 교육복지시설 1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구장시멘트 대발파진행, 애도간석지 1구역 준공식,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준공, 운전군 삼광축산농장 일신 및 조업식, 운산군 종합건재생산기지 건설 등

바. 자강도

- 총 21건으로 국토지역개발 5건, 농림어업시설 4건, 도시생활시설 3건, 교통물류시설·공장시설·교육복지시설·환경방재시설이 각 2건씩, 공급시설 1건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동신군 소재지 일신, 화경군 지역면보 일신, 남림군 강하천 제방공사 결속, 수백정보 방목지 개간 등

사. 황해남도

- 총 29건으로 도시생활시설 8건, 농림어업시설 6건, 공장시설 5건, 국토지역개발 4건, 환경방재시설 3건, 공급시설 2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송화군 약산농장청단군 신생농장 새집들이, 용진서해바다양어사업소 조기종어장 준공, 해주 농기계공장 개건 준공, 은률군 지방발전정책대상 건설착공식, 대동만 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공사 결속 등

아. 황해북도

- 총 36건으로 공장시설 10건, 도시생활 시설 7건, 농림어업시설 6건, 교육복지시설과 환경방재시설 각 5건, 공급시설과 국토지역개발문화휴양시설은 각 1건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신평군 지방발전정책대상 건설 착공, 황주군 양곡관리소 건설, 은파군 대청농장 공공건물 및 생산건물 준공, 개성시 양묘장 준공, 황해북도 기름작물 재배면적 확대 등

자. 강원도

- 총 17건으로 도시생활시설 7건, 공장시설과 농림어업시설이 각 3건, 그 외 공급시설, 국토지역개발, 문화휴양시설, 환경방재시설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문천시 관풍농장철원군 마방농장 및 마장농장 살림집 준공, 세포군과 김화군 여러 농장 현대적 문화주택 건설, 원산어구종합공장 준공 등

차. 함경남도

- 총 31건으로 공장시설 11건, 도시생활시설 6건, 국토지역개발 4건, 그 외 문화휴양시설·광업자원시설·농림어업시설·공급시설이 각 2건씩 분포. 환경방재시설은 1건
- 주요 사업으로는 낙원군 지방발전정책대상 건설 착공, 덕성군 건재생산기지 신규 건설, 부전군 고려약공장 신규 건설, 단천시 달전농장 외 입사모임

카. 함경북도

- 총 20건으로 광업자원시설 7건, 문화휴양시설과 농림어업시설이 각 3건씩, 공자시설 2건, 교통물류·도시생활·국토지역개발·환경방재·교육복지시설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무산광산업합기업소 1월 100만산 발파완료 및 5월 120만산 발파 준비, 경원지구탄광연합기업소 태산탄광 개발 중,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준공 등

타. 양강도

- 총 19건으로 공장시설 6건, 문화휴양시설과 농림어업시설이 각 3건, 공급시설·교육복지시설 각 2건 등
- 주요 사업으로는 해산기와광장 생산능력 확장 결속, 위연목제품공장 개건현대화 추진, 양강도 3대혁명전시관 개관식 등

파. 기타, 전국

- 총 27건으로 공장시설과 농림어업시설이 각 7건, 국토지역개발 5건, 도시생활시설 4건, 광업자원시설 3건 등
-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지방공업공장 건설, 전국 봄철 4,000여 정보 토지 포전 정리 등

3. 지역별 사업 단계별 분포

1) 개요

- ‘개발’ 사업 중 ‘건설’ 단계 116건, ‘완공’ 단계 149건으로 계획 단계 사업은 없었음

2) 단계별 분포

가. 계획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상반기 보도 기사임에도 개발사업 관련 계획단계 사업은 집계되지 않음

나. 건설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116건으로 집계. 함경남도 16건, 황해북도 14건, 평안북도 11건, 평안남도 및 자강도, 함경북도에서 10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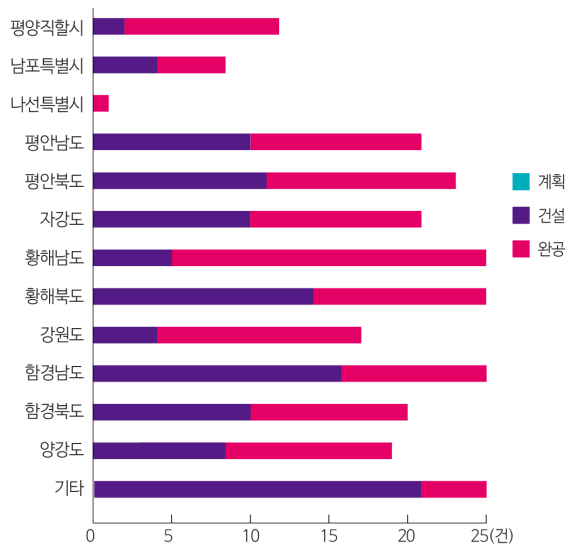
다. 완공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149건으로, 황해남도 24건으로 가장 많은 완공 사업이 집계됨. 다음으로 황해북도 22건, 함경남도 15건, 강원도 13건, 평안북도 12건, 평안남도 및 양강도 11건이 완공 사업으로 집계됨

표 2 지역별 단계별 사업 분포

지역별 \ 단계별	계	계획	건설	완공
평양직할시	12	-	2	10
남포특별시	8	-	4	4
나선특별시	1	-	1	0
평안남도	21	-	10	11
평안북도	23	-	11	12
자강도	21	-	10	11
황해남도	29	-	5	24
황해북도	36	-	14	22
강원도	17	-	4	13
함경남도	31	-	16	15
함경북도	20	-	10	10
양강도	19	-	8	11
전국/기타	27	-	21	6
계	265	-	116	149

그림 2 지역별-단계별 사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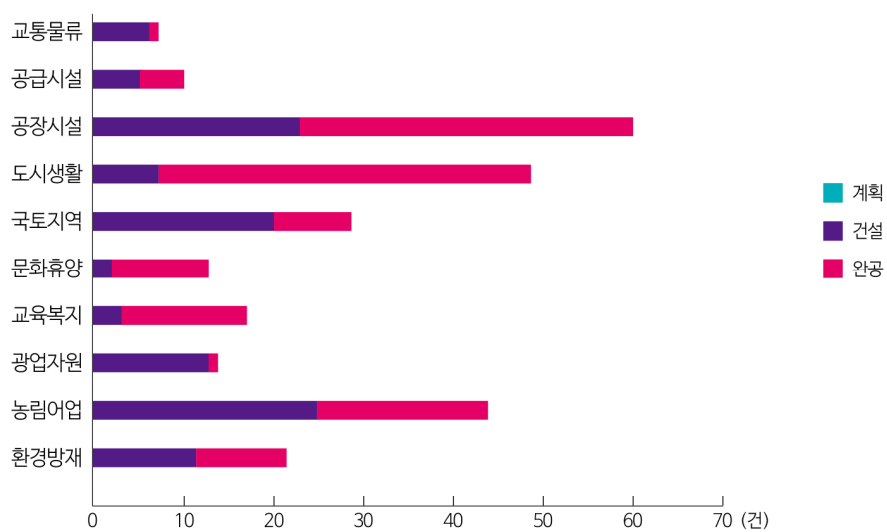
4. 단계별 시설유형별 분포

- 개발기사로 분류된 사업 중 계획단계 기사는 집계되지 않았음
- 건설 중 단계 기사는 총 116건으로 농림어업시설이 25건, 공장시설이 23건, 국토지역개발 20건, 광업자원시설 13건, 환경방재시설 11건, 도시생활시설 8건, 교통물류시설 6건, 공급시설 5건, 교육복지시설 3건, 문화휴양시설 2건 분포
- 완공 단계 기사는 총 149건으로 도시생활 시설 41건, 공장시설 37건, 농림어업시설 19건, 교육복지시설 14건, 문화휴양시설 11건, 환경방재시설 10건, 국토지역개발 9건, 공급시설 5건, 교통물류시설 2건, 광역자원시설 1건 분포

표 3 단계별 시설유형별 분포

유형별 \ 단계별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공장 시설	도시 생활	국토 지역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계획	-	-	-	-	-	-	-	-	-	-	-
건설	116	6	5	23	8	20	2	3	13	25	11
완공	149	2	5	37	41	9	11	14	1	19	10
계	265	8	10	60	49	29	13	17	14	44	21

그림 3 단계별-시설유형별 분포



PART 4

종합 및 시사점

Comprehension and Implications



I.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2026년 국가예산 계획과 2026년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3차 연도 건설 사업 현황, 2026년 1, 2분기 살림집 건설 현황과 시사점을 검토함. 북한 건설업 총괄 현황과 전력산업 동향과 최근 확대 보도되고 있는 내국인 복지 증진 목적 관광지 개발 현황과 시사점을 주요 동향으로 다룸

1. 2026년 국가예산 계획

- (현황) 2025년 국가예산은 전년대비 수입 7.2%, 지출 3.7% 증가하며 예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됨. 공장·기업소의 생산 양양에 따른 예산수입 증가로 자체 평가하였고, 지출 항목별로 국방비 15.7%, 인민경제사업비 13.1%, 사회문화사업비 38.9%를 차지함
 - 예산수입계획 집행률은 105.1%(중앙 104.6%, 지방 106.5%)로 매년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기본건설투자로 수도건설·지방발전정책대상·단천발전소 1단계공사 등 국가건설 대상사업을 추진함
- (특징) 2026년은 새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6~2030)의 첫해로 예산지출을 대폭 확대함. 예산수입은 전년대비 0.5% 증가에 그치나 예산지출은 5.8% 증가하며, 지출총액의 43.8%를 사회주의경제건설투자에, 15.8%를 국방비에 배정함
 - 인민경제부문 지출증가율은 6.3%로 예산지출증가율을 상회하며, 하위 기본건설 4.9%·농업 5.7% 증가로 비공개된 공업부문 증가율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
 -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6% 확대하고, 교육 6.0%·보건 5.6%·체육 2.8%·문화 3.1% 등 사회주의문화사업비도 고르게 늘림
- (시사점) 새 5개년계획 첫해 안착을 위해 금속·화학·전력·석탄·기계·철도운수 등 주요 경제부문의 기술개진·현대화 및 신규건설이 지난해보다 확대될 전망이며, 지방발전·수도건설과 교육·보건 등 사회주의문화부문 과제 추진에서 건설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2. 2026년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황

- (현황) 3차 연도(2026년) 사업으로 20개 시·군에서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함께 건설하는 ‘패키지형’ 방식을 전면 적용, 1월 29일 은률군을 시작으로 2월 9일까지 전 대상을 착공함
 - 3월 초 기초굴착, 3월 말 기초콘크리트치기를 거쳐 5월 중순 공장, 6월 중순 종합 봉사소, 6월 하순 병원까지 골조공사를 순차적으로 완료함
 - 1·2차 연도(40개 시·군) 공장은 제품 가짓수가 준공 초기 대비 근 3배로 확대되었고, 원료기지 조성과 기능공 양성이 생산 정상화의 관건으로 부각됨
- (시사점) 3년간 60개 시·군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착공한 해에 준공하는 방식이 정착됨. 제9차 당대회는 매년 20개 시·군에 공장·병원·종합봉사소를 건설하는 것을 새 5개년계획 과업으로 명시하였으며, 시·군 원료기지 조성과 지방의 운영 역량이 정책 지속가능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2026년 1, 2분기 살림집 건설 현황

- (평양시 화성지구 5단계)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준공(2.16)으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결속되었고, 참전열사 유가족을 위한 새별거리도 준공(2.15)됨. 2월 18일에는 새 5개년계획의 첫 수도건설 사업으로 화성지구 5단계가 착공되어 6월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임
- (검덕지구 건설 사업)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는 5개년계획기간(‘21~’25)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을 완결한 것으로 제9차 당대회에서 총화됨. 2026년에도 살림집 건설과 함께 설비·륜전기재 출동, 다리 건설·도로 이설 등 수십 개 대상공사를 계속 추진함
- (농촌살림집 건설사업) 새시대 농촌혁명강령(2021.12) 제시 이후 4년간 전국 500여 개 농장, 1,860여 개 마을에 11만 3천여 세대의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함. 2026년 1·2분기에는 34건, 82개 마을, 약 1만 7,700세대의 완공 실적이 확인되며, 4월부터 60여 개 시·군·구역에서 건설이 본격화됨
- (시사점) 평양시·농촌 살림집 건설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새 계획기간 사업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사업 성격이 ‘살림집 수요 해결’에서 ‘도시 전반 개변’으로 전환
 - 도소재지 개건이 새 과업으로 추가되어 수도-지방도시-농촌을 잇는 주거환경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며, 시공 품질과 시멘트·강재 등 자재 보장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4. 북한 건설업 총괄 현황과 전력산업 동향

- (북한 산업구조와 건설업 동향) 한국은행 추정 결과 2025년 북한의 실질 GDP는 전년대비 3.5% 성장하였고, 이 가운데 건설업은 6.3% 성장하며 최근 5년 평균 6.2%로 타 산업 부문 대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대규모 살림집 공급, 지방발전, 농촌건설 추진을 통해 건설업이 경제정책의 핵심 실행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

- 북한 산업구조에서 건설업 비중은 2005년 9.6%에서 2025년 11.6%로 확대되어, 비중이 축소된 광업과 대조적인 추세를 보임
- (북한 전력 수급 동향) 북한의 발전설비용량·발전전력량은 남한 대비 각각 5.5%, 4.3% 수준에 불과하며, 수력(61.7%) 중심의 발전구조를 유지함. 최근 6년간 위성 야간조명(VIIRS) 분석 결과 평양 도심의 26.5%에서 조명이 뚜렷이 증가했으나 외곽 73.2%는 변화가 거의 없어 전력공급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화력발전설비의 84.9%, 수력발전설비의 70.6%가 준공 30년 이상 노후설비로, 정비·보수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무리한 가동이 이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전력 수급 개선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5. 내국인 복지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관광지 개발 현황

- (배경과 현황) ‘지방발전 20×10 정책’ 및 ‘3대 필수시설(보건·과학교육문화·양곡관리)’ 건설과 병행하여 2025년부터 내국인 대상 관광·휴게·문화시설 개발이 확대됨. 온포근로 자휴양소(’26.1월 준공), 염분진 해안공원지구·해양여관(1월), 강계·평성동물원, 청진 물놀이장, 통천군 해수욕장 등이 최근 준공·보도됨
- 기존 삼지연, 원산갈마 등 외국인 관광객·외화 유치를 목적으로 한 대형 관광지 개발과 달리, 중소규모 시설 위주로 ‘인민 복리증진’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임
- (시사점) 외화 획득 중심에서 내부 결속·주민생활 개선 중심으로 관광정책의 우선순위가 전환된 것으로 판단됨
- 중소형 관광·복지시설의 전국적 분산 건설은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시설 건설 직접 관여 보도를 통해 정책 확산과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됨
- 향후 시설의 실제 운영 실태와 확산 지속가능성은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II. 유형별 동향분석 요약과 시사점

2026년 1, 2분기 집계 결과 분석대상 기사 건수는 총 265건으로 지난해 동기간(147건) 대비 약 155% 수준으로 증가. 시설유형별로는 공장시설이 60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고, 살림집 관련 기사를 포함한 도시생활시설 기사가 49건, 농림어업시설 기사가 45건으로 많았음. 지역별로는 황해북도 36건, 함경남도 31건으로 1, 2순위로 많은 기사가 집계됨. 사업 단계별로는 건설중 또는 완공기사만 집계되었으며 상반기 중에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개발사업 계획 기사는 집계되지 않았음

1. 기사 건수 265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55% 수준으로 증가

- 분석대상 기사건수는 총 265건으로, 전년 동기간(147건)에 비해 약 155% 수준으로 증가했음
 - 다만, 주로 상반기 기사에 집계되는 개발 사업의 계획단계 기사는 집계되지 않았으며, 건설중 또는 완공기사만 집계됨
 -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포함해 각 지역별 공장시설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집계됨
 - 농촌살림집 건설 및 준공 기사를 중심으로 도시생활시설 관련 기사도 2순위로 많이 집계되었는데, 단순 농촌살림집 및 노동자지구 살림집 기사 뿐 아니라 도시 및 지역개발 수준에서의 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사업관련 기사가 다수 집계된 점이 특징적

2. 지역별 분포로는 황해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순으로 다수 집계

- 황해북도 36건, 황해남도 29건으로 각각 1순위, 3순위로 건설개발 관련 기사가 많이 집계되어 수도 평양과 인접한 지역인 황해도 지역에 다수 건설·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황해북도에서는 공장시설이, 황해남도에서는 도시생활시설이 가장 많은 건설·개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함경남도에서는 공장시설 사업이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집계된 것으로 확인됨

3. 유형별 특징 종합

- (교통물류시설) 총 8건으로, 주요사업은 전국 철도운수부문 지원 사업, 도로개선공사 사업 진행 중 등
- (공급시설) 총 10건으로, 주요사업은 김형직군, 해주시 등 태양빛발전소 건설과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11호 발전소 건축공사 결속 등
- (공장시설) 총 60건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은 기사 건수가 집계된 유형으로, 전국적으로 3차년도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지역별 경공업 및 식품공장 개건 및 신규 건설 소식 다수 보도
- (도시생활시설) 총 49건의 기사가 집계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평양시 새별거리 준공, 평양시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중 등

- (국토지역개발) 총 29건으로 간석지 개발 사업과 더불어 도 소재지 등 주요 도시 경관 및 도시 미관 전체를 새롭게 조성하는 지역 및 도시경관 사업 다수
- (문화휴양시설) 총 13건으로, 내국인 복지 증진을 위한 중소규모 문화 휴양시설 건설이 특징
- (교육복지시설) 총 17건으로 주요 사업은 평양시 산림연구원 준공, 황해북도 계응상 사리원 농업대학 개건, 함경북도 부령군 설계연구소 건설 등
- (광업자원시설) 총 14건으로 주요 사업은 무산광산연합기업소 120만산 대발파 준비, 함경북도 온성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인회암갱 건설 추진 등
- (농림어업시설) 총 45건으로 상반기 중 농번기 관련 시설 정비 및 개건 사업 등 전국적으로 실시
- (환경방재시설) 총 22건으로 주요 사업은 전국적으로 강하천 정리 사업, 제방 쌓기 사업 등 추진

III. 1, 2분기 종합 시사점

1. ≪지방발전 20x10정책≫에 따른 지방공업공장 건설 계속 추진

- 2024년 시작한 지방공업공장 건설 시책은 2025년도 2차, 2026년도 3차년도까지 계속 추진 중
- 3차년도 사업으로 20개 시·군에서 지방공업공장·병원·종합봉사소를 함께 짓는 ‘패키지형’ 방식이 전면 적용되어 2월 초까지 전 대상이 일제히 착공, 대부분 상반기 중 골조공사가 순차 완료됨
- 3년간 60개 시·군에서 사업이 전개되며 ‘착공한 해 준공’하는 방식이 정착됨
- 제9차 당대회에서 상시 과업으로 명시한 만큼 매년 20개 시·군씩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지속될 전망이나, 원료기지·에너지 자립 기반과 지방의 운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설은 계속, 가동은 정체’되는 현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2. 살림집 수요 해결에서 지방 도시 전반 면모 개변으로 전환

- 평양시는 화성지구 4단계 준공(2026. 2.16)으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5단계에 착공했으며, 검덕지구·농촌살림집(상반기 약 1만 7,700세대 완공)도 지속 추진됨
- 수도 및 농촌살림집 건설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상반기 도시 및 살림집 관련 특이사항은 도소재지 개건이 새 과업으로 추가되어 함흥·강계·해주 등 지방 주요도시로 사업 범위가 확대됨
- 지금까지 살림집 사업의 초점이 지방발전과 맞물린 농촌 살림집의 적극적 공급을 통해 수요 해결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2026년 상반기 동향 분석 결과, 상업·봉사시설을 갖춘 도시행정구역 정비, 즉 지방도시 전반의 면모 개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
- 다만 시멘트·강재 등 자재 공급과 시공 품질 관리가 확대되는 사업물량을 계속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관건임

3. 외화 획득형 대형 관광지구 개발에서 인민 복지 및 내부 결속을 위한 중소형 시설 확산 전환

- 온포근로자휴양소, 염분진 해안공원지구·해양여관, 강계·평성동물원, 청진 물놀이장, 통천군 해수욕장 등 내국인 대상 중소형 시설이 잇따라 준공되며 ‘지방발전 20×10 정책’의 3대 필수시설(보건·과학교육문화·양곡관리) 정책과 병행 확산되고 있음
- 삼지연·원산갈마 등 기존 대형 관광지구 개발과 달리, 관광정책의 우선순위가 대외 외화 수입 확보에서 내부 결속·주민생활 개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공업공장(생산기반)·살림집(주거환경)에 이어 여가·복지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역개발전략으로 확장되는 흐름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의 실제 이용률과 운영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부 록

A p p e n d i x



조사 개요

I. 조사 목적과 범위

이 조사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의 북한연구센터에서 연중 진행하며, 반기별로 보고서를 발간함

1. 조사 목적

- 최신 북한지역 인프라 개발·계획 및 제도 동향 정보 구축
 - LH와 유관 기관, 일반국민들에 대한 북한 건설·개발 관련 정보 제공
- 남북경협사업 추진주체로서 LH의 역량 확보
 - 남북관계 개선시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
 - 대북사업 관련 경영·정책에 대한 적시 지원

2. 조사 범위

- 내용적 범위
 - 북한 인프라시설 개발 동향
 - 북한 개발 관련 계획·제도 동향
 - 주요 조사대상 분야: 산업, 교통물류, 에너지, 자원(지하자원, 수자원), 주택, 도시·지역 개발 등
- 시간적 범위
 - 2026년 1, 2분기(1~6월)
- 공간적 범위
 - 북한지역(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 등도 포함)
 - 공간분석 단위: 도, 시, 군과 가능한 범위에서 구역 등 하위 행정구역 포함

II. 자료 출처와 기초자료 입력·분류 방법

1. 자료 출처와 입력방법

□ 자료 출처

- 1차 자료: 노동신문(2026년 1월~6월 발간)
- 2차 자료: 각종 국내외 언론과 동향자료
 -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활용

□ 기초 Data 입력방법

- 조사대상 자료의 해당 기사를 엑셀 파일로 입력하여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기초 Data로 구축
- 시설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 자료원 등 입력¹

표 1 기사 내용 입력자료 양식

코드	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내용 (기사)	지역			자료원					비고
	대	중	소	기사	대표	구분	위계 단계	세부 사업	규모 (면적 등)		시도	시군	장소	출처 (북)	출처 (남)	기사 제목	일자	수록 면	

2. 분류 기준과 내용

□ 유형분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의한 ‘기반시설 분류’,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 분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위 참조 대상 중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시설은 아니지만 개발동향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국토지역개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하나의 기사에서 특정 도시, 지역, 농촌지역 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다수의 개발사업을 다루는 기사는 편의상 ‘국토지역개발’로 분류함

¹ 기사의 기초사항 입력은 <이석기·이승엽(2014), 「2000년대 북한기업 현황: 북한 공식매체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의 입력방법을 응용하되, 시설유형분류와 사업내용 등은 분석대상에 맞게 새롭게 구성함.

표 2 유형 분류표

대	중	소	비고
1. 교통물류시설	도로	고속도로, 1급도로, 일반도로(2급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 기타	
	철도	일반철도, 철도시설, 기타	
	공항	민간공항, 군공항, 기타	
	항만		
	유통업무설비	창고,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집배송시설, 기타	SOC 유통·공급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기타	주차장, 기타	
2. 공급시설	발전시설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변전소, 발전소, 기타	
	유류시설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기타	
	수도가스시설	수도시설, 가스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기타	
	기타		
3. 공장시설	음식료	음식료(10,11,12), 섬유 의복(13,14,16), 목재가구(16,32), 종이출판(17,18), 석유화학(19, 20,21,22), 비금속소재(23), 철강(24), 기계(25,29), 전기전자(26,27,28), 운송장비(30,31), 기타(33)	한국산업분류표 상 제조업 해당 중분류 기준
	섬유의복		
	목재가구		
	종이출판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4. 도시생활시설	살림집	단독주택, 아파트, 기숙사, 기타	
	숙박시설	호텔, 기타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기타	
	상업시설	백화점, 상점, 기타	
	기타		
5. 국토지역개발	국토개발		북한 전역의 개발·계획
	지역개발		광역 개발·계획
	도시개발	평양시, 지방도시, 기타	
	농촌개발		도시 이외 중소지역개발
	특구개발	중앙급, 지방급	
	기타	간척지, 기타	

대	중	소	비고
6. 문화휴양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기타	SOC 공간시설
	문화시설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기타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기타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등 관광지 부수 시설, 기타	
	기타		
7. 교육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의료보건시설	종합의료시설, 병원, 보건소, 기타	SOC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포함
	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장례식장, 도축장, 기타	SOC 보건위생시설 중 위생시설
8. 광업자원시설	기타		
	연료광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기타	
	금속광업	철광업, 비철광업	
	비금속광업	토사석광업, 기타비금속광업	
9. 농림어업시설	기타		
	농업시설	작물재배, 축산업, 기타	농업용 물길조성사업 포함
	임업시설	영림업, 벌목업, 채취업, 기타	
	어업시설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업, 기타	
	농어업단지	재배단지, 축산단지, 임업단지, 수산단지, 기타	
10. 환경방재 시설	기타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사방설비, 방조설비, 기타	SOC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기타	SOC 환경기초시설
	기타		

- 사업명
 - 기사: 기사에 나타난 사업의 명칭
 - 대표: 동일 사업명 기사별로 명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명칭 부여
- 사업내용: 사업내용은 제도, 계획, 개발에 대해 각각 위계와 단계별로 구분

표 3 사업내용의 구분과 위계/단계 세부 내용

구분	위계, 단계
제도	당지침, 법규, 내각지침, 기타
계획	당, 내각, 부처, 지방, 기타
개발	계획, 건설, 완공, 운영, 미상

□ 동일 기사 내 복수 지역 출현 시 통계(건수) 처리

- 「북한건설·개발동향」은 기사 건수를 중심으로 계량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료 집계 편의상 하나의 기사에서 2개 지역(광역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다루고 있을 경우 각각 지역별로 집계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건수에 반영함
 - 1건의 기사에서 2개 이상 도에 걸친 경우는 기타(전국)으로 분류하여 집계함

□ 서술방식과 맞춤법 적용

- 사업 관련 사실(fact)을 위주로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기사 내용을 최대한 살림
 - 수사적 표현과 선전문구 등은 삭제하거나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 가독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우에 따라 한국의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적용
- 고유명사 중 많이 알려진 경우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으나(예, 량강도 → 양강도), 일반 용어나 표기법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사 원문을 살림
 - 한국과 많이 다른 용어는 각주로 해설을 부기하였음

Ⅲ. 분석자료 추출과정

1. 1, 2분기 1단계 추출 자료와 출처별 분포

- 유형분류 기준에 적합한 관련 기사를 1차 자료에서 403건을 추출함
- 원 출처는 노동신문과 조선신보임

2. 2단계 추출 과정(분석 자료)

- 1단계 추출 자료 403건에서 2단계로 최종 분석대상 ‘개발’ 기사자료 265건을 추출
 - 같은 사업 관련 기사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대표 기사 1건만 채택하고 다른 기사는 참고자료로 활용
 - 생산현장의 생산계획 초과달성 등 성과 홍보 기사의 경우, 시설 위치 파악의 유용성은 있으나, 시설 건설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료 집계에서는 제외

표 4 추출 자료 건수

출처	1단계 추출 기사(건)	2단계 추출 기사(분석자료/건)
노동신문	347	265
조선신보	56	-
계	403	265

표 5 2단계 추출 자료 시설유형별 분포

유형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공장 시설	도시 생활	국토 지역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265	8	10	60	49	29	13	17	14	44	21

'26년 1, 2분기 북한건설 · 개발동향 자료

I. 교통물류시설

1. 도로

□ 나선특별시, 조·러 국경자동차다리 연결작업 진행(노동신문, 04.23, 2면)

- (내용) 조·러 국경 자동차다리의 양측 구간 연결작업이 4.21 완료
 - 북·러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착공, 착공 1년 만에 양측 구간 연결
 - 현재 완공·개통을 위한 마감단계 작업 진행
- (위치) 나선특별시

□ 자강도, 도로 기술개건 사업 추진(노동신문, 05.05, 5면)

- (내용) 자강도 전역에서 도로 기술개건 사업 추진
 - 동신·화평·중강·향산군은 자재보장 대책을 앞세워 도로 기술개건 진행
 - 희천시 10여 리 구간 도로건설과 새 다리 건설이 마감단계
 - 강계시 우회도로공사에 도인민위원회, 도탐사관리국, 도농촌경리위원회, 도무역관리국 등 동원
- (주체) 자강도인민위원회, 도탐사관리국, 도농촌경리위원회, 도무역관리국
- (규모) 희천시 10여 리 구간
- (위치) 자강도 동신군, 화평군, 중강군, 향산군

□ 함경북도, 회령시 도로 기술개건 사업(노동신문, 05.13, 5면)

- (내용) 회령시에서 주요 도로 기술개건 사업 추진
 - 전년도 1개 도로구간 개선 및 도로안전보호시설물 설치에 이어, 올해는 여러 주요 도로에서 동시 시행(총공사량 전년 대비 대폭 증가)
 - 유압식 굴착기, 중량화물자동차 등 장비 가동률 제고
 - 2개소 다리 건설 완료

- (주체) 회령시당위원회, 시도도로보수관리대
- (규모) 다리 2개소
- (위치) 함경북도 회령시

□ 양강도, 갑산군 새 다리 건설 완공(노동신문, 06.01, 5면)

- (내용) 갑산군 남풍~사평지구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다리 신규 완공
 - 군도로보수관리대를 중심으로 건설력량 조직, 중기계 집중 배치, 수개월 만에 완공
 - 주민 교통편의·학생 통학조건 개선, 영농물자 및 농촌살림집 건설자재 수송이 목적
- (주체) 갑산군도로보수관리대
- (위치) 양강도 갑산군

□ 평안북도, 향산군 도로 기술개건 진행(노동신문, 06.15, 5면)

- (내용) 향산군에서 자체 역량으로 수십 km 구간 도로 기술개건 진행
 - 주요 도로 아스팔트(피치) 포장공사에 역량 집중, 포장공사 완료
 - 암거·수통 보수 병행
- (주체) 향산군당위원회, 군책임일군들
- (규모) 수십 km 구간
- (위치) 평안북도 향산군

2. 철도

□ 평안북도, 철도운수부문 지원(노동신문, 04.19, 4면)

- (내용) 평안북도가 철도운수부문 지원사업 전개
 - 1분기 실적: 자갈보충 1만 2,000여㎥, 물도랑정리 수백 km, 옹벽보수 500㎡, 철길 고착품 16만여 점 확보
 - 운전군: 철길 건널목 자동경보장치 설치, 시멘트·골재 조달로 역사 개선
 - 삭주군: 콘크리트 침목·철길고착품 생산자재 지원 / 팍산군: 철길 주변 위험개소 제거
 - 구성시·대관군·피현군·선천군·박천군: 경계석 교체, 자갈청소, 경사면 정리
- (주체) 평안북도 시·군 일군들, 근로자들
- (규모) 자갈보충 1만 2,000여㎥, 옹벽보수 500㎡, 철길고착품 16만여 점
- (위치) 평안북도 구성시, 대관군 등

□ 자강도, 철도 지원사업(노동신문, 05.06, 5면)

- (내용) 자강도가 철도운수부문 지원사업 추진
 - 도 전체 실적: 자갈보충 수만㎥, 물도랑정리 수백 km, 옹벽보수
 - 도당 책임일군이 철길구간 현지답사로 보수 개소 및 낙석감시초소 실태 파악
 - 희천시·성간군·시중군·강계시·만포시: 경계석 교체, 나무심기, 경사면 정리
- (주체) 자강도당위원회, 도급단위 및 시·군 일군들
- (규모) 자갈보충 수만㎥, 물도랑정리 수백 km
- (위치) 자강도 희천시, 성간군 등

□ 평양직할시, 서평양기관차대 정비소대 임시수리기지 건설(노동신문, 06.20, 3면)

- (내용) 서평양기관차대 평천화력대대 정비소대에 임시수리기지 건설 추진
 - 3월 초 착수 결정, 상반기 내 완비 목표(설비·지구 제작은 2개월 단축 계획)
 - 견인용 전력손실 감소와 화력탄 수송 개선이 목적
- (주체) 서평양기관차대 평천화력대대
- (위치) 평양직할시

II. 공급시설

1. 발전시설

□ 평안남도,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발전설비 대보수·개건현대화 목표 수립(노동신문, 01.10, 2면)

- (내용)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가 여러 호기 발전설비의 원성능회복·개건현대화 공사를 연내 완료하는 목표 수립
 - 전년 초 완료된 3호기 원성능회복·개건현대화 공사는 1년 소요
 - 진행 중인 1개 호기 대보수는 1.9 현재 40% 공정, 2월 중순 완료 전망(계획 대비 1개월 이상 단축 목표)
 - 열설비보수직장, 터빈보수직장, 분쇄기보수직장, 제관직장 등이 참여
- (주체)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 (위치) 평안남도 북창군

□ 양강도, 김형직군 태양광발전소 건설(노동신문, 01.14, 5면)

- (내용) 양강도 김형직군 파발리에 수천 kW급 태양광(태양빛)발전소 신규 건설
 - 양강도에 수만 kW 태양광 발전능력을 조성하는 1단계 계획에 따라 건설
 - 전력공업성 자연에너르기전력기술교류사가 입지 선정 및 전지판 성능 개선 담당
 - 양강도송배전부가 기초공사와 송변전설비 설치 담당
- (주체) 전력공업성, 자연에너르기전력기술교류사, 량강도송배전부
- (규모) 수천 kW
- (위치) 양강도 김형직군

□ 함경남도, 중소형발전소 건축공사 완료(노동신문, 03.11, 5면)

- (내용) 북청군 북청강11호발전소 건축공사 완료
 - 여수로 100수십 m, 방수로 수백 m 규모
 - 기초굴착 후 터빈실·발전기실 등 발전소 건축공사 진행
- (주체) 북청군 일군들, 근로자들
- (규모) 여수로 100수십 m, 방수로 수백 m
- (위치) 함경남도 북청군

□ 함경남도,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노동신문, 04.12, 1면)

- (내용) 준공을 앞둔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장에 내각총리 현지 방문
 - 발전설비 효율 제고, 전력손실 저감, 조업 후 전력생산 안정화 대책 제기
 - 현지 협의회에서 1단계 준공준비, 2단계 공사의 건설공법 활용, 연관단위 설비·자재 보장 등 논의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 황해남도, 해주시 태양광발전소 준공(노동신문, 05.01, 5면)

- (내용) 해주시에 태양광(태양빛)발전소 건설, 4.30 준공식 진행
 - 태양광전지판 설치구역, 종합조종실, 휴게실 등 구비
 - 도 차원의 건설력량 편성과 자재보장을 선행, 건축공사와 지대정리를 병행
 - 도 지방발전정책 대상과 주민지구 전력수요 보장이 목적
- (주체) 황해남도, 도 송배전부문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강원도, 이천2호·회양2호 군민발전소 건설(노동신문, 05.02, 5면)

- (내용) 이천2호·회양2호 군민발전소 건설 본격 추진
 - 이천2호: 4.8 언제 기초정리 굴착 완료 후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행, 발전기실 기초굴착 86% 공정
 - 회양2호: 언제 기초굴착, 발전기실 기초굴착, 물길굴 굴착을 동시 진행
 - 도군민발전소건설사단 지휘조가 연차별·단계별 목표와 일군별 임무분담 관리
- (주체) 도군민발전소건설사단 지휘조
- (위치) 강원도 이천군, 회양군

□ 양강도, 보천내곡발전소 건설(노동신문, 05.29, 1면)

- (내용) 보천내곡발전소 물길굴 확장 및 피복공사 진척(전월 대비 실적 증가)
 - 5월 초 도당위원회가 현장 협의회를 열고 설비·자재 보장, 노력조직 문제 논의
 - 2·3갱: 도탐사관리국,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도광업연합기업소, 도체신관리국, 도무역관리국 중대 담당
 - 4갱: 해산청년광산중대, 물동운반용 권양기 시운전 완료
 - 취수탑·방수로: 도인민위원회, 도산림관리국 중대가 수직갱 확장 및 피복 콘크리트 타설
 - 해산강철공장·해산세멘트공장이 건설자재 공급, 김책공업종합대학·전력공업성 제1전력설계연구소가 기술 지원

- (주체) 도탐사관리국,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도광업연합기업소, 혜산청년광산, 도인민위원회, 도산림관리국
- (위치) 양강도 보천군

2. 수도가스시설

□ 황해남도, 해주시 생활용수 보장 대상공사 완료(노동신문, 01.07, 5면)

- (내용) 해주시 주민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대상공사 완료
 - 정수장과 펌프장 신규 건설, 송배수관 공사 병행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황해북도, 개성시 생활용수 보장 공사(노동신문, 05.17, 4면)

- (내용) 개성시에서 생활용수 공급 능력확장 공사 진행
 - 10여 개소 상수관 교체, 류암펌프장 건설 등 추진
 - 취수정 신설, 양수설비 증설, 상수도관 교체 계획 구체화
- (규모) 상수관 교체 10여 개소
- (위치) 개성특별시

□ 자강도, 만포시 수도관 교체(노동신문, 05.27, 4면)

- (내용) 만포시에서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 추진
 - 전년도 고개동지구 수십 세대 살림집 건설 시 관망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세대 수도관도 함께 교체
 - 4월 중 시내 수천 세대 살림집에 새 수도관 연결
- (주체) 만포시 일군들
- (규모) 살림집 수천 세대 수도관 교체
- (위치) 자강도 만포시

III. 공장시설

1. 음식료

□ 평안남도, 한천수산물사업소 젓갈가공장 신규 건설(노동신문, 01.24, 3면)

- (내용) 한천수산물사업소에 젓갈가공장 신규 건설, 1.23 준공식 진행
 - 곤쟁이젓(건텡이젓)·호드기젓·참굴젓·새우간장 등 각종 젓갈 생산 가능
 - 수산성이 대상공사와 생산공정 확립을 지도, 수산연구원·남포수산대학이 품질 관련 기술 지원
- (주체) 수산성, 수산연구원, 남포수산대학
- (위치) 평안남도 평원군

□ 함경남도, 황초령샘물공장 준공(노동신문, 02.02, 7면)

- (내용) 함경남도에 황초령샘물공장 신규 건설, 2.1 준공식 진행
 - 전 생산공정 자동화·흐름선화, 통합생산체계 구축(샘물 및 각종 음료 생산)
 - 건축공사와 구내도로 포장 완료, 연관단위가 건구·비품 공급 및 설비조립·시운전 지원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평안북도, 신의주학생교복공장 개건(노동신문, 03.14, 5면)

- (내용) 신의주학생교복공장 개건으로 생산능력 확대
 - 수백 명 기능공으로 건설력량 편성, 자재보장 병행
 - 생산현장, 노동자숙식, 과학기술보급실 내외부 개선 및 전력계통공사 추진
- (주체) 평안북도당위원회
- (규모) 기능공 수백 명 투입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황해남도, 벽성군 밀가공공장 확립(노동신문, 05.30, 5면)

- (내용) 벽성군량곡관리소에 대용량 밀가공공장 확립, 시험생산을 거쳐 생산 정상화 단계 진입
- (위치) 황해남도 벽성군

□ 자강도, 장강군 젓가공품공장 신규 건설(노동신문, 06.05, 5면)

- (내용) 장강군에서 젓가공품공장을 자체 건설, 시험생산 개시
 - 젓제품 생산공정과 함께 분석실·발효실·보관창고 구비
 - 식품 위생 요구 충족을 위한 기술지도 강화
- (위치) 자강도 장강군

2. 섬유·의복

□ 황해북도, 사리원가죽이김공장 준공(노동신문, 01.27, 5면)

- (내용) 사리원가죽이김공장 현대적 개진, 1.26 준공식 진행
 - 원료 투입부터 완성까지 전 생산공정과 작업환경 개선, 경공업기지에 가죽 공급
 - 도설제연구소가 설계, 도지방공업관리국·돌격대·공장종업원이 건축공사와 설비조립 담당
- (주체) 도설제연구소, 도지방공업관리국, 돌격대원, 공장종업원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남포특별시, 강서편직공장 개건공사(노동신문, 06.20, 5면)

- (내용) 강서편직공장 개건공사 진행, 총건축공사량 40% 초과
 - 문화회관·노동자합숙·과학기술보급실 신축 및 기존 건물 10여 개 개진
 - 완공 시 뜨개천 제작·염색기지로 전환되며 생산능력 대폭 확대 예정
 - 신축 건물은 기초공사 완료 후 골조공사 마감단계
- (규모) 건물 10여 개 개진, 신축 3개 동
- (위치)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 평안북도, 신의주가방공장 개건(노동신문, 06.25, 5면)

- (내용) 신의주가방공장 개건공사 진행(학생가방 품질 제고·증산 목적)
 - 채판날염작업반 생산현장과 노동자합숙 개진
 - 온실·축사·양어장 정비 등 후방기지 강화 및 공장 구내 녹화 병행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3. 석유·화학

□ 평안남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촉매생산기지 준공(노동신문, 01.21, 3면)

- (내용)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 촉매생산기지 신규 건설, 1.20 준공식 진행
 - 비료생산용 촉매의 국산화 비중 제고와 공급 안정성 확보가 목적
 - 촉매생산공정 설계를 자체 완성, 청년돌격대·종업원이 건축공사 담당
- (주체)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청년돌격대
- (위치) 평안남도 안주시

□ 황해북도, 고려약공장 물질기술적토대 강화(노동신문, 01.23, 5면)

- (내용) 황해북도 시·군 고려약공장 개건현대화 추진
 - 도고려약생산관리국이 각종 생산설비를 제작·확보해 시·군에 공급
 - 신평군: 지역 약초자원 활용을 위한 생산공정 현대화
 - 인산군·연산군 등: 고려약공장 신규 건립 및 생산공정 GMP화 실현
- (주체) 도고려약생산관리국
- (위치) 황해북도 신계군, 신평군, 인산군, 연산군

□ 함경남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 성천강 새 언제 건설 완료(노동신문, 01.26, 3면)

- (내용) 2·8비날론연합기업소 성천강 새 언제(댐) 준공
 - 1차 가물막이공사, 언제 콘크리트 타설, 기본구조물 공사 순으로 진행
 - 국가계획위원회·화학공업성이 공사 문제 해결, 연합기업소 노동계급과 돌격대가 시공
 - 홍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홍남제약공장 등 함흥지구 공장에 공업용수 공급
- (주체) 국가계획위원회, 화학공업성, 2·8비날론연합기업소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함경남도,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촉매생산기지·지효성 과립요소비료 생산공정 신설(노동신문, 01.26, 3면)

- (내용) 홍남비료연합기업소에 촉매생산기지와 지효성 과립요소비료 생산공정 신설
 - 자체 원료·자재에 의거한 촉매생산기지 구축으로 비료생산 정상화용 촉매 자체 조달
 - 홍남 노동계급과 청년돌격대가 건축공사, 설비·장치물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담당
- (주체)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청년돌격대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함경남도, 부전군 고려약공장 신규 건설(노동신문, 05.02, 5면)

- (내용) 부전군에 고려약공장 신규 건설, 건축공사와 설비설치 완료
 - 기능공 대열 강화 및 생산용 약초 사전 확보 병행
 - 약초 재배면적 확장, 산지 약초 수집 대책 병행
- (위치) 함경남도 부전군

□ 황해남도, 해주탄산칼시움생산소 신규 건설(노동신문, 05.02, 5면)

- (내용) 황해남도에 해주탄산칼시움(탄산칼슘)생산소 신규 건설

- 원료건조장, 실내세척장, 초미분쇄실, 제품보관실 등 구비
- 원료 세척·소독·건조부터 분쇄·포장까지 생산공정 설비 제작·조립 및 시운전 완료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황해북도, 장풍군 고려약공장 개건(노동신문, 05.09, 5면)

- (내용) 장풍군 고려약공장을 GMP화 생산기지로 개건
 - 기존 설비를 공장 자체 기술력량으로 개조, 몰약실·혼합반죽실 등 신설
 - 삼향우황청심환, 인삼영양가루약, 사슴강장알약 등 수십 종 생산 토대 구축
 - 원료 확보용 약나무림 2정보 신규 조성(단나무, 은행나무, 황경피나무 등)
- (주체) 장풍군당위원회, 공장 기술력량
- (규모) 약나무림 2정보 신규 조성
- (위치) 황해북도 장풍군

□ 황해남도, 고려약공장 개건(노동신문, 05.14, 4면)

- (내용) 황해남도 시·군 고려약공장 개건 추진
 - 표준설계에 따른 공장 개건과 생산공정 GMP화 기술지도 강화, 기술전습 반복 조직
 - 청단군 등 여러 지역에서 고려약공장 신설 및 GMP화 실현
- (위치) 황해남도 은천군, 청단군 등

□ 평안북도, 신의주 수의약품공장 건설 완료(노동신문, 06.03, 1면)

- (내용) 평안북도에 신의주수의약품공장 신규 건설(항생제 등 수의약품 도 자체 생산)
 - 도농촌경리위원회가 노력·건설자재·설비·운전기재 보장 담당
 - 공장 특성에 맞춘 생산공정 배치와 GMP화에 중점
- (주체) 평안북도 도농촌경리위원회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4. 비금속소재

□ 강원도, 안변군 철령타일공장 준공(노동신문, 01.01, 8면)

- (내용) 강원도에 철령타일공장 개건현대화, 12.31 준공식 진행
 - 타일, 기와, 보도블록 등 마감건재 생산설비 구비
 - 기존 건물 철거 후 기초·골조·내외부 공사를 거쳐 생산건물, 사무청사, 원료적재장 조성
- (주체) 시공단위 일군들, 건설자들, 공장종업원
- (위치) 강원도 안변군

□ 강원도, 원산건재공장 준공(노동신문, 01.01, 8면)

- (내용) 강원도에 원산건재공장 신규 건설, 12.31 준공식 진행
 - 기와, 보도블록 등 마감건재 생산설비 구비
 - 단기간 내 여러 동의 건축공사 완료, 기와성형기 등 설비 조립·설치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자강도, 만포8월2일세멘트공장 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1.06, 5면)

- (내용) 만포8월2일세멘트공장에서 새해 첫 10만산 대발파 진행
 - 착암기·압축기 등 설비 가동률 제고로 소갱 굴진과제 완수, 순환당 진도 향상으로 발파 기일 단축
 - 굴착기·화물자동차 보수정비를 병행해 박토처리·광석운반 준비
 - 순천석회석광산도 함께 대발파 진행
- (주체) 만포8월2일세멘트공장
- (규모) 10만산 대발파
- (위치) 자강도 만포시

□ 평안북도, 구장군 구장세멘트공장 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1.06, 5면)

- (내용) 구장세멘트공장에서 1.4 10만산 대발파 진행
 - 전년도 생산공정 개조로 높아진 생산능력에 맞춰 원료 확보용 발파 준비에 역량 집중
 - 채광직장에서 굴진설비 가동률 제고
- (주체) 구장세멘트공장 채광직장
- (규모) 10만산 대발파
- (위치) 평안북도 구장군

□ 양강도, 운흥군 원료기지사업소 개건(노동신문, 01.16, 5면)

- (내용) 운흥군 원료기지사업소 개건
 - 기본청사 내외부와 함께 과학기술보급실, 식사실, 목욕실 등 후생시설 조성
 - 식당·세목장을 갖춘 작업반실과 낱알보관고 신규 건설, 운전기재·농기구·분무기 공급
- (위치) 양강도 운흥군

□ 전국, 마감건재 생산능력 확장 사업 진행(노동신문, 01.19, 5면)

- (내용) 각지에서 마감건재 생산토대 강화 사업 추진
 - 평양시: 강동군 지방공업공장 수기관 생산설비 정상운영, 마감건재 생산단위 설비증설·기술개조

- 평안북도·함경북도·자강도: 주요 마감건재 생산단위의 생산공정 현대화 추진
- 1.7 마감건재 생산기지를 조성한 덕성군에서 보여주기 사업 조직, 3월 마감건재전 시회 준비
- 평안남도·남포시: 마감건재 생산공정 정상운영 및 생산능력 제고 추진
- (주체) 평양시당위원회, 평안북도·함경북도·자강도, 평안남도, 남포시
- (위치) 전국

□ 황해북도, 개성마감건재공장 준공(노동신문, 01.22, 4면)

- (내용) 개성시에서 마감건재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 1.21 준공식 진행
 - 알루미늄창·수지창 조립공정과 지방 원료를 이용한 기와·보도블록 생산공정 구비
 - 공장 기술자·종업원이 연관단위와 함께 설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담당
- (위치) 개성특별시

□ 양강도, 원료기지 토대 강화(노동신문, 01.25, 4면)

- (내용) 양강도에서 원료기지사업소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 보천군: 원료기지사업소 건물 개건 및 숙식조건을 갖춘 작업반실 조성
 - 도 전체적으로 원료기지사업소 사무청사·작업반실 100여 개 신축 및 개건
- (규모) 원료기지사업소 사무청사·작업반실 100여 개
- (위치) 양강도 보천군, 운흥군, 대흥단군

□ 황해북도, 사리원시 경암건재공장 준공(노동신문, 01.26, 3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경암건재공장 개건
 - 전 대상 건축공사와 설비조립 완료, 녹지 조성 및 구내도로 포장 등 환경정리 병행
 - 지역 원료를 이용해 기와·보도블록 등 마감건재 생산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황해북도, 은파군 은파세멘트공장·은파주름판지공장 준공(노동신문, 01.29, 4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은파세멘트공장과 은파주름판지공장 개건
 - 공장 종업원과 건설자가 자체 힘으로 건축공사 완료, 연관단위 과학자·기술자와 함께 설비 제작·조립
 - 지방 원료를 이용한 시멘트 생산 활성화, 각종 규격 지합 생산 토대 구축
- (주체) 황해북도당위원회, 공장종업원, 건설자
- (위치) 황해북도 은파군

□ 황해북도, 경암세멘트공장 능력확장공사 준공(노동신문, 01.30, 5면)

- (내용) 경암세멘트공장 생산능력 확장공사 완료, 1.29 준공식 진행
 - 생산건물 건축공사와 설비조립을 단기간에 완료하고 시운전 실시
 - 지방 원료를 이용한 시멘트 증산으로 도 건설사업 지원
- (위치) 황해북도 상원군

□ 함경남도, 부전군 원료기지사업소 시설 개선(노동신문, 02.05, 5면)

- (내용) 부전군 원료기지사업소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 과학기술보급실, 농기계보관고, 온실 등 신규 조성
 - 경운기·탈곡기 등 농기계와 비닐박막·연유·비료 등 영농물자 공급
 - 포전 토양분석에 기초한 지력개선 사업 병행
- (위치) 함경남도 부전군

□ 양강도, 해산건재공장 개선(노동신문, 02.10, 5면)

- (내용) 해산건재공장이 200여 일 만에 공장건물 신축
 - 기존 굴뚝 2개 해체가 최대 난공사
 - 생산건물 건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사무청사 및 문화후생시설 2층 슬래브 타설 진행
- (주체) 해산건재공장 일군들, 로동계급
- (위치) 양강도 해산시

□ 평안북도, 운산군 종합건재생산기지 건설(노동신문, 02.13, 5면)

- (내용) 운산군에 대규모 종합건재생산기지 신규 건설
 - 기존의 분산된 건재생산기지와 낮은 현대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 각종 건재생산장, 창고와 함께 합숙 등 문화후생시설 구비
 - 건설력량과 건설장비를 집중 동원하고 자재를 우선 보장
- (주체) 운산군
- (위치) 평안북도 운산군

□ 함경북도, 김책시 세멘트 생산능력 제고(노동신문, 02.27, 5면)

- (내용) 김책시건재공장 시멘트 생산능력 확대
 - 매장량이 풍부한 새 채굴장 확보 및 채굴·운반설비 구비
 - 원료분쇄공정 설비 증설, 자체 힘으로 볼(빨) 생산공정 조성
- (주체) 김책시건재공장
- (위치) 함경북도 김책시

□ 양강도, 해산세멘트공장 10만산 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3.09, 5면)

- (내용) 해산세멘트공장에서 10만산 대발파 진행
 -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이 목표 수립 및 자재 사전 확보
 - 산정에 좌자를 정해 착암기·압축기를 배치하고 연속천공·연속발파로 갱도 굴진
- (주체)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 해산세멘트공장
- (규모) 10만산 대발파
- (위치) 양강도 해산시

□ 함경남도, 덕성군 건재생산기지 신규 건설(노동신문, 03.09, 5면)

- (내용) 덕성군에 마감건재생산기지 신규 건설
 - 군건설려단에 종합 마감건재생산기지 조성, 전 생산공정 만부하 가동 대책 강구
 - 수지창생산장, 색물탈생산장 신설 및 각종 건구 생산공정 완비
 - 프레스, 연마기, 용접기 등 설비 구비 후 생산 정상화 단계 진입
- (주체) 덕성군, 군건설려단
- (위치) 함경남도 덕성군

□ 양강도, 해산기와공장 생산능력 확장공사 완료(노동신문, 03.11, 5면)

- (내용) 해산기와공장 생산능력 확장공사 완료
 - 파쇄·선별공정 등 기술개조 및 설비 증설
 - 원료장, 성형장, 건조장과 사무청사 신규 건설
- (위치) 양강도 해산시

□ 함경남도, 수십 개 건재생산기지 신설·개건(노동신문, 03.28, 5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건재생산기지 수십 개를 신설·개건확장
 - 성천강타일공장 등 마감건재 생산단위의 생산능력을 높여 타일·수지창·색감을 시·군에 공급
 - 함흥철제일용품공장에 금속건구류 생산기지, 함흥총련수지가공공장에 상수관 생산기지 신설
 - 북청군 수지일용품공장은 수지관 생산능력 1.5배 확장
- (주체) 함경남도, 함흥철제일용품공장, 함흥총련수지가공공장
- (규모) 건재생산기지 수십 개, 북청군 수지관 생산능력 1.5배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북청군 등

□ 평안남도,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석고수송공정 개조(노동신문, 04.06, 1면)

- (내용)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가 직동석고광산 석고수송용 차굴을 건설, 4.1 개통
 - 기존 수십 리 산길 1시간 남짓 운반을 1,000수백 m 차굴로 단축(대형화물자동차 10분 이내 통과)
 - 연합기업소 일군들이 직동석고광산 일대를 답사해 차굴 건설지점 확정
- (주체)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 (규모) 차굴 1,000수백 m
- (위치) 평안남도 순천시

□ 평양직할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1호계열 설비집중대보수 완료(노동신문, 06.05, 1면)

- (내용)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1호계열 설비집중대보수공사를 1주일 만에 완료, 6.4 생산 재개
 - 1호 소성로 연속생산공정의 수십 개 대상에 대한 전반적 공정보수 시행
- (주체)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 (규모) 1호계열 소성로 연속생산공정 수십 개 대상
- (위치) 평양직할시 상원군

5. 기계

□ 함경남도, 통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 준공(노동신문, 01.20, 1면)

- (내용) 통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 공사 완료, 1.19 준공식 진행
 - 대규모 기계제작기지로 개편, 국가경제 자립화 관련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
 -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교원·연구사와 함경남도 건설력량이 참여
 - 공사 과정에서 경제지도일군의 무책임성으로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 제기
- (주체) 통성기계연합기업소,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함경남도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황해북도, 사리원교육기자재공장 준공(노동신문, 01.26, 3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사리원교육기자재공장 개건
 - 전 대상 건축공사와 설비조립 완료, 녹지 조성 및 구내도로 포장 등 환경정리 병행
 - 교구비품과 실험기구 제작·공급 토대 구축
- (주체) 황해북도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황해남도, 해주농기계공장 개건현대화 준공(노동신문, 01.26, 3면)

- (내용) 해주농기계공장 개건현대화 공사 완료
 - 공작기계 CNC화 및 통합경영정보체계 구축, 각종 설비 조립·설치
 -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생산 및 보조건물 20여 동 신축
- (주체) 황해남도당위원회, 공장 로동계급, 건설자들
- (규모) 생산 및 보조건물 20여 동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함경남도,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단계 개건현대화공사 추진(노동신문, 06.15, 1면)

- (내용)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단계 개건현대화 공사 진행
 - 제관직장, 단조작업장, 운수직장 등 수십 개 대상의 건축공사와 수백 대 설비 제작·설치가 과제
 - 연관부문과 연계해 철강재·시멘트 등 건설자재 및 기술 보장 선행
- (주체) 룡성기계연합기업소
- (규모) 대상 수십 개, 설비 수백 대
- (위치) 함경남도 흥남시

6. 종이출판

□ 평안남도, 은산종이공장 설비개조 및 새 공정 확립 공사(노동신문, 06.15, 1면)

- (내용) 은산종이공장에서 설비개조와 신규 공정 확립 공사 진행
 - 학습장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새 공정을 확립해 제품 종류 확대, 포장용기 생산 토대 구축
 - 공사 완료 시 전반적 생산능력이 종전보다 대폭 상승 예정
- (주체) 평안남도당위원회, 은산종이공장
- (위치) 평안남도 은산군

7. 목재

□ 양강도, 위연목제품공장 개건현대화 추진(노동신문, 06.29, 5면)

- (내용) 위연목제품공장 개건현대화 공사 진행
 - 연건축면적 수만㎡ 규모로 사무청사, 생산건물, 기능공학교, 문화후생시설 등 10여 개 건물 신축 예정
 - 완공 시 연간 가구·건구 생산능력 대폭 확대
 - 도림업관리국과 공장이 자체 역량으로 시공, 강재·시멘트 등 자재보장 대책 수립

- (주체) 도림업관리국, 위연목제품공장
- (규모) 연건축면적 수만㎡, 건물 10여 개
- (위치) 양강도 해산시

8. 기타

□ 강원도, 원산어구종합공장 준공(노동신문, 01.13, 5면)

- (내용) 강원도에 원산어구종합공장 신규 건설, 1.12 준공식 진행
 - 생산건물, 사무청사, 합숙 및 편의시설 구비
 - 연사기·제망기 등 수십 종 70여 대의 설비를 자체 기술로 조립·설치
 - 수산성과 강원도수산물관리국이 추진, 송도원수산사업소·원산수산물기계공장 종업원이 시공 참여
- (주체) 수산성, 강원도수산물관리국, 송도원수산사업소, 원산수산물기계공장
- (규모) 설비 수십 종 70여 대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황해남도, 은률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1.30, 1면)

- (내용) 2026년도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의 첫 착공식이 1.29 은률군에서 진행
 - 올해부터 20개 시·군에서 경공업공장, 보건시설(병원), 종합봉사소 건설을 동시 추진
 - 조선인민군 제124련대가 시공 담당
- (주체)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 (위치) 황해남도 은률군

□ 평안남도, 평원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01, 1면)

- (내용) 평원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식이 1.31 진행(지방발전정책 3년차 사업)
 - 내각총리, 평안남도당 책임비서,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 군인건설자들이 건설장비를 동원해 공사 착수
- (주체) 평안남도당위원회, 군인건설자
- (위치) 평안남도 평원군

□ 전국,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강남군·맹산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04, 1면)

- (내용) 2.3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 강남군, 맹산군에서 각각 착공식 진행

- 2026년 20개 지역에 현대적 공장과 보건시설, 다기능 종합봉사소를 동시 건설
- 준공 후 운영 정상화를 위한 준비사업 병행 강조

- (규모) 전국 20개 지역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평양직할시 강남군, 평안남도 맹산군

□ **함경남도, 낙원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06, 1면)**

- (내용) 낙원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식이 2.5 진행
 - 기존 바다가양식사업소에 이어 경공업기지, 보건시설, 문화생활거점 건설 예정
- (위치) 함경남도 낙원군

□ **전국, 무산군·송화군·대안구역·판문구역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07, 1면)**

- (내용) 2.6 무산군, 송화군, 대안구역, 판문구역에서 각각 착공식 진행
 - 최근 2년간 현대적 지방공업공장 120여 개 건설 및 보건시설·문화생활거점 시범 조성 성과에 기초
 - 올해부터 20개 시·군에 경공업공장, 병원, 종합봉사소 동시 건설
 - 준공에 맞춘 기능공 양성과 원료 확보 등 운영준비 병행 강조
- (규모) 20개 시·군(기존 지방공업공장 120여 개)
- (위치) 함경북도 무산군, 황해남도 송화군, 남포특별시 대안구역, 개성특별시 판문구역

□ **황해북도, 신평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08, 3면)**

- (내용) 신평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식이 2.7 진행
 - 현대성·경제적 실리성·전망성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발전된 수준의 공장, 병원, 종합봉사소 건설 예정
 - 지역 특성과 원료원천에 부합하는 생산공정을 갖춘 경공업기지 조성 방침
- (위치) 황해북도 신평군

□ **평안북도, 선천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08, 3면)**

- (내용) 선천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식이 2.7 진행
 - 지역 원료원천에 맞는 경공업기지와 함께 병원, 종합봉사소 건설 예정
- (위치) 평안북도 선천군

□ 전국, 봉산군·시중군·신흥군·통천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09, 5면)

- (내용) 2.8 봉산군, 시중군, 신흥군, 통천군에서 각각 착공식 진행
 - 전국 20개 시·군에서 지방공업공장, 보건시설, 다기능 문화생활거점 건설 착수
- (위치) 황해북도 봉산군, 자강도 시중군, 함경남도 신흥군, 강원도 통천군

□ 전국, 화평군·평강군·리원군·명간군·삼수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10, 1면)

- (내용) 2.9 화평군, 평강군, 이원군, 명간군, 삼수군에서 각각 착공식 진행
 - 지방공업공장, 병원, 종합봉사소와 함께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포함
- (위치) 자강도 화평군, 강원도 평강군, 함경남도 이원군, 함경북도 명간군, 양강도 삼수군

□ 전국, 지방공업공장 건설 진행(노동신문, 03.29, 4면)

- (내용)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골조공사 단계로 진입
 - 지방발전20×10비상설국방성지휘조가 진행 상황 종합
 - 강남군: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가장 먼저 완료하고 골조공사 진입
 - 맹산군: 단계별 공사목표 수립, 실기연습장·경험발표회로 기술기능 수준 제고
 - 시중군: 골조공사 진행
- (주체)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지방발전20×10비상설국방성지휘조
- (위치) 전국

□ 함경남도, 이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노동신문, 05.04, 1면)

- (내용) 이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진척
 - 5.1 현재 부두굴착공사를 기본적으로 완료(1·2단계 완료 후 3단계 진행), 건축물 기초 굴착·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벽체 쌓기 진입
 - 이원군에서 100수십 세대 살림집 건설 병행, 시공기준에 따른 배합비 관리
- (주체) 함경남도, 리원군 일군들, 건설자들
- (규모) 살림집 100수십 세대
- (위치) 함경남도 이원군

□ 남포특별시, 원료기지 작업반 건물 조성(노동신문, 05.08, 5면)

- (내용) 천리마구역에서 원료기지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사업 추진
 - 공사용 자재·설비 조달을 위한 조직사업 시행
 - 구역원료기지사업소가 수백 정보 면적에 밀, 보리, 낙화생, 콩 등 재배

- (주체) 천리마구역, 구역원료기지사업소
- (규모) 재배면적 수백 정보
- (위치) 남포특별시 천리마구역

□ 함경북도, 원료기지사업소 조성(노동신문, 05.09, 5면)

- (내용)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이 진행 중인 무산군·명간군에 원료기지사업소 신규 건설
 - 원료기지사업소와 작업반의 위치·규모를 확정하고 노력·설비·자재 보장 조치
 - 중기계 가동률 제고로 기초굴착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골조공사 진입
 - 종업원 대상 설비 운영방법·기술특성 교육 병행
- (주체) 함경북도당위원회
- (위치) 함경북도 무산군, 명간군

□ 황해북도, 황주군 양곡관리소 건설(노동신문, 06.05, 1면)

- (내용) 전국 시·군 현대적 양곡관리소 건설 방침에 따라 황주군양곡관리소를 시범 건설
 - 벼·밀 등 곡물의 건조 및 정미, 제분 공정과 낱알보관시설 구비 예정
 - 기초굴착 및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여러 대상의 골조공사 입체적 진행
- (주체) 황해북도
- (위치) 황해북도 황주군

□ 전국, 지방공업공장 건설 진행(노동신문, 06.23, 5면)

- (내용) 2026년 지방발전정책대상의 골조공사 기본적으로 완료, 물질기술적토대 구축 선행
 - 당 제9차대회에서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병원·종합봉사소를 건설하고 연초 착공을 연말 준공으로 잇는 방식 제시
 - 송화군, 선천군, 봉산군, 대안구역, 신평군, 맹산군, 은률군, 명간군, 무산군: 거푸집 조립시간 단축과 콘크리트 혼합물 생산설비 가동으로 공장·병원 골조공사 조기 완료
 - 5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의 보건시설, 종합봉사소, 남새종합가공공장 건설장 현지 지도 진행
- (주체)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 (규모) 20개 시·군
- (위치) 전국

IV. 도시생활시설

1. 살림집

□ 완공

지역	위치	규모 (보도시기)	비고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	150세대 (01.08)	· 현대적인 문화주택 · 소층 살림집
	화성구역 새별거리	(02.16)	· 참전군인 유가족을 위한 거리 · 조형화, 예술화, 실용성, 편리성 갖춘 고층·중소층 살림집, 상업 및 봉사시설 조화
	화성지구	(02.17)	· 수도건설 5개년계획 완수 · 송신, 송화지구와 화성지구 전체에 약 6만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건설 · 화성지구를 정치, 경제, 문화적 구성요소 모두 갖춘 본보기 구역으로 계획
남포특별시	항구구역 우산목화농장, 온천군 대령농장	(01.18)	· 지역 특성 반영한 문화주택 · 지난 시기 공사경험, 성과, 앞선 공법 활용
평안남도	덕천시 구장농장, 무안농장, 신양군 삼파농장	(01.01)	· 산골 고유 특색 살리면서 현대성, 미학적 구현되게 · 다양하고 독특한 형식으로 설계 · 지방 원료로 건재 생산
	개천시 보부농장, 순천시 풍탄농장, 평리농장	(01.04)	· 현대적, 농촌 특색 살린 아담한 문화주택 · 선진공법 활용, 전문화 수준 제고, 원림경관 조성에 노력
	평원군 삼봉리, 안주시 연풍리	(01.10)	· 일정별, 공정별 계획 세우고 기능공 역량 강화에도 주력 · 앞선 경험과 기술 공유, 능률적인 작업방법 활용
	은산군 수계농장, 영원군 문곡축산농장	(01.14)	· 농업근로자 생활에 편리하게 조성된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 · 설계 및 시공의 질 보장과 현대성, 문화성, 정치성 제고에 주력 · 대상별, 공정별 일정계획 세우고 집행
	대흥군 천리성농장, 문덕군 룡림농장, 립석농장	(01.19)	· 지역 특성 살린 다양한 형식의 단층, 소층 살림집 · 설비 및 자재 보장을 선행하고 시공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대동군, 맹산군, 증산군, 양덕군	(01.22)	· 실용성, 다양성, 조형예술화가 구현되도록 함 · 선진 공법 활용, 주변정리 및 원림경관 조성도 적극적 추진
	전천군 창봉농장, 초산군 련성농장	(01.05)	· 산간지대 풍경에 어울리는 아담한 현대적 문화주택 · 입면 형성, 건축 시공, 건재 선택 등 건설 전 과정에 당의 건설 정책 구현 노력 · 높은 수준인 실용성, 조형예술화 보장을 위해 노력

지역	위치	규모 (보도시기)	비고
자강도	향산군 태평리, 시중군 안찬리	(01.07)	· 농촌 특유의 정서를 살리고 현대성, 다양성 구현한 문화주택
	성간군, 용림군, 자성군	(01.21)	· 지대정리, 자재 및 건설장비 보장을 선행 · 장자강 강변에 고유의 특색 반영한 문화주택 · 자체적 건재 생산, 앞선 공법 활용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황해남도	송화군 약산농장, 청단군 신생농장	(01.12)	· 건설 지휘 및 시공역량 강화 · 대중운동으로 살림집 공사, 지대정리, 원림경관 조성
	강령군 광천농장, 벽성군 서원농장	(01.17)	· 별방지대 특성 살리고, 농장원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단층, 소층, 다락식 문화주택 · 면밀한 일정별, 공정별 계획에 기초 · 건설장비, 자재 보장 대책 선행하여 입체적인 건설 전개
	과일군 월사리, 염전리	(01.26)	· 노력 절약형, 자재절약형 공법 적극 활용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장연군 석장리, 태탄군 성남리	(01.27)	· 농촌 고유의 특색 살리면서, 자연지리적 조건, 주민 편의 보장에 부합되도록 다양하고 독특한 형식으로 설계 · 건설역량 보강, 기술자 및 기능공 양성을 우선함 · 지방 원료에 의거한 마감건재 생산
	삼천군 추릉농장, 재령군 신환포농장	(01.29)	· 살림방, 부엌, 세면장 등 농업근로자 생활편의를 위한 조건 갖추 · 시공역량 강화, 공정별 보여주기 및 기술전습회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신천군 복우농장, 봉천군 석사농장	(01.30)	· 시공역량 강화, 자재 보장 대책을 선행
	신원군 월당농장, 연안군 라진포농장	(02.02)	· 서해별방의 자연환경과 조화 · 공법상 요구 준수하여 건설
	은륜군 가양농장, 금천군 계정농장, 토산군 읍농장	(02.03)	· 지역 특성과 현대감이 살아나면서 생활에 편리하게 설계 · 면밀한 일정별·공정별 계획, 건설장비 및 자재 보장 대책을 선행 · 합리적인 공법과 기술혁신안 수용
황해북도	송죽공예작물농장, 송림시 신량농장	(01.03)	· 건설장비 및 자재 보장 대책 선행 · 시공 전문화 수준 제고하여 현대적 살림집 건설
	황주읍농장, 린산군 석련농장	(01.13)	· 설계 및 시공 요구사항 준수하여 입체적인 공사 진행 · 단계별 목표 및 일정 계획을 세우고 노력절약형, 자재절약형 공법 활용
	서흥군 문무리, 상원군 흑우리, 로동리	(01.16)	· 건축공사, 지대정리 입체적으로 진행 · 실용성, 조형예술화 보장을 위해 정책적·기술적 지도 심화 · 시공 전문화 수준 제고에 우선

지역	위치	규모 (보도시기)	비고
황해북도	연산군 읍농장, 신평군 선암농장	(01.23)	· 지역 특색과 세련미를 살리면서, 현대성, 미학성있는 살림집 · 건설장비 및 자재 보장을 선행하고 시공 전문화 수준 제고 · 앞선 공법과 능률 높은 기공구 도입
	승호군 만달남새농장, 평산군 와현농장	(01.31)	· 마을 위치 선정, 살림집 입면형성, 건축시공, 건재선택 등에 당 건설정책 구현 · 현대성, 문화성, 정치성 제고에 노력
양강도	양강도 전역	(01.13)	· 겨울철 불리한 조건에서 공사 준비 갖추도록함 · 수십개 보온덧집을 짓고, 블록, 기와, 부재 등 건재생산에 주력 · 농촌살림집건설준비 관련 일군 협의회 진행
강원도	화양군 신계리, 판교군 지하리	(01.11)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하고 지역 특성 살려 설계 · 대상별·공정별 계획에 맞게 시공 전문화 실현, 기능공 역량 강화, 자재 보장 대책 강구
	원산시 현동리, 고산군 혁창리, 연호리	(01.15)	· 시공 역량 강화, 기공구 및 자재 보장 대책에 주력 · 선진적인 공법 및 경험 공유, 일반화
	문천시 관풍농장, 철원군 마방농장, 마장농장	(01.20)	· 앞선 공법 능동적 활용 · 지역 특성이 살아나면서 주민 생활 편의 보장된 살림집
	세포군, 김화군 여러 농장	(01.25)	· 산골마을 정서와 어울리도록 건설된 문화주택 · 면밀한 일정별·공정별 계획과 건설장비, 자재보장 대책 선행 · 건설물 질 제고를 위해 보여주기, 기술전습회 진행하여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 공유 및 일반화
	창도군 대백농장, 통천군 명고농장	(01.28)	· 선진 공법 적극 활용하여 모든 생활조건 및 환경이 갖추어진 문화주택 · 건설물 질 보장을 우선하여 앞선 경험, 기술을 확대·일반화
	평강군 전승리, 이천군 개천리	(02.01)	· 지역 자연 풍경과 어울리게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된 현대적 문화주택 · 선진공법 적극 활용, 시공 전문화 수준 제고에 주력
함경남도	함흥시 초운농장, 화상구역 쌍봉농장	백수십 세대 (01.02)	· 공업도시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단층, 다락식, 소층 살림집 · 노동력 조직과 건설장비 보장을 책임성있게 건설 · 기능공 역량강화를 위한 보여주기, 기술전습회 진행 · 앞선 공법과 경험, 능률 높은 기공구 활용
	단천시 달전농장, 요덕군 구읍농장, 림평농장	(01.06)	· 설비와 자재 보장 대책을 선행 · 공정별 작업의 전문화 수준 제고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문화주택 건설 · 실용성, 조형예술화를 보장

지역	위치	규모 (보도시기)	비고
함경남도	신포시 신포농장, 영종농장, 홍원군 남회농장	(01.09)	· 시공 역량 편성, 건설장비·기공구·자재 보장 대책 선행 · 자재 절약 및 시공의 질과 속도 끌어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공법 활용
함경북도	중화군, 신계군 농촌마을	(01.24)	· 농촌 면모와 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시공의 전문화 실현, 기능공 역량 강화, 자재 보장에 주력하여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 건설 · 노동력 절약형, 자재 절약형 공법 적극 활용

□ 건설중

지역	위치	규모 (보도시기)	비고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	(06.19)	· 중앙기관 제1여단 일군 및 건설자들이 살림집 골조공사 진행 · 건설기계 가동 문제 사전 대비 및 공정별 기술학습, 보여주기 사업 · 골조공사 40여일 소요
함경남도	함흥시	1,000세대 (04.14)	· 도소재지 개선 사업의 연차별 추진 · 과학적, 구체적 계획 하에 설계와 자재 보장을 선행 · 강력한 시공 역량 편성 및 기공구 전시회 진행
	검덕지구	(04.24)	· 지난해 건설 경험 토대로 공사수행을 작전 및 지휘 · 시공 단위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노력 · 자재와 노동력 절약 및 공사의 질과 속도 보장할 수 있는 설비와 기공구를 기공구전시회에 출품
기타	전국	60여개 시·군 (04.22)	· 당 9차대회에 제시된 농촌건설 목표 이어서 수행하며 성과 확대 · 각 지역에서 시공의 질 보장을 위한 노력 · 건설기계 가동률 높이고 합리적인 작업방법 수용
	전국	(05.10)	· 농촌 살림집 건설 본격화에 맞춰 시공 및 건설 감독 책임성, 역할 제고를 위한 실무적 대책 마련 · 구역·군별 건설장비 및 기공구 전시회, 운수 기재 출동식 시행 · 설계 역량 간화, 기능공 양성 정형으로 시공역량 강화

2. 상업시설

□ 평양직할시, 단고기료리전문식당 준공(노동신문, 03.27, 5면)

- (내용) 대동강변에 단고기료리전문식당 신규 건설, 3.26 준공식 진행
 - 연건축면적 3,060여㎡, 조선식 합각지붕의 2층 기본건물과 대동강 기슭을 따라 이어지는 회랑으로 구성

- 식사실과 현대적 주방설비 구비, 건설과 운영준비를 병행
- (규모) 연건축면적 3,060여㎡, 지상 2층
- (위치) 평양직할시

□ 전국, 종합봉사소 공사 진행(노동신문, 05.03, 1면)

- (내용) 다기능 종합봉사소가 올해 지방발전정책대상에 포함되어 20개 시·군에서 동시 건설
 - 군인건설자들이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 진입
 - 지방발전20×10비상설국방성지휘소가 시공노력·자재보장·수송 상황 관리
 - 판문구역, 송화군,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 등에 군인건설자 파견
- (주체) 지방발전20×10비상설국방성지휘조, 군인건설자
- (규모) 20개 시·군
- (위치) 전국

□ 전국, 20개 시·군 종합봉사소 골조공사 완료(노동신문, 06.16, 1면)

- (내용) 전국 20개 시·군의 종합봉사소 골조공사 완료
 - 은률군, 판문구역, 신흥군, 송화군, 무산군: 설계·시공·감독 간 협동 강화, 기술학습·보여주기·기능공경기 조직
 -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 화평군, 통천군, 맹산군, 평강군, 삼수군, 평원군, 명간군: 노력·자재 절약형 공법 도입
- (주체)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 (규모) 20개 시·군
- (위치) 전국

3. 업무시설

□ 황해북도, 개성시 덕암농장 공공건물·생산건물 준공(노동신문, 01.01, 8면)

- (내용) 개성시농촌경리위원회 덕암농장에 공공건물과 생산건물 준공
 - 사무청사, 문화회관, 진료소, 종합편의시설, 생산건물 조성
 - 원림녹화를 통한 주변 경관 조성 병행
- (위치) 개성특별시

□ 함경남도, 정평군 독산농장 공공건물·생산건물 조성(노동신문, 01.08, 2면)

- (내용) 함경남도농촌경리위원회 독산농장에 공공건물과 생산건물 신규 건설, 준공식 진행

- 문화회관, 사무청사, 약국, 유치원 등 조성
- (위치) 함경남도 정평군

□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농장 공공건물·생산건물 준공(노동신문, 02.05, 3면)**

- (내용) 은파군 대청농장에 공공건물·생산건물 수십 동 건설 완료, 2.4 준공식 진행
 - 앞서 대청리에 문화주택 수백 세대 건설이 선행됨
- (규모) 공공건물·생산건물 수십 동
- (위치) 황해북도 은파군

4. 기타

□ **강원도, 원산시 승리동지구 아동공원 조성(노동신문, 06.01, 4면)**

- (내용) 원산시 승리동지구에 아동공원 신규 조성
 - 시멘트, 모래, 장식보도블록 등 자재 조달 및 야간작업으로 공사 추진
- (위치) 강원도 원산시

V. 국토지역개발

1. 지역개발

□ 양강도, 전년도부터 계속된 대상공사 추진(노동신문, 02.06, 1면)

- (내용) 양강도가 전년도부터 이어진 대상공사 과제 추진
 - 보천내곡발전소 건설장에 일군 파견, 광차·착암기 등 설비·자재 보장
 - 해산교원대학 건설, 해산기와공장 개건 등 공사 추진
- (위치) 양강도 해산시

□ 전국, 새 농촌마을 원림화 추진(노동신문, 02.15, 1면)

- (내용) 전국 새 농촌마을의 원림화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추진
 - 농촌건설중앙지휘부가 2022년 이후 건설된 모든 새 농촌마을에 높이 8~10m 이상, 수관 너비 5~6m 이상 키큰나무 식재 계획 수립
 - 만경대구역 칠골남새농장 마을에서 나무심기 기술강습 조직
 - 락랑·순안·만경대·삼석구역, 강동군, 강남군: 소총살림집 입면과 호동 사이에 키큰나무 집중 식재
- (주체) 농촌건설중앙지휘부
- (규모) 높이 8~10m 이상, 수관 너비 5~6m 이상 키큰나무
- (위치) 전국

□ 함경남도, 봄철 나무심기 진행(노동신문, 04.11, 5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봄철 나무심기로 현재까지 1,000수백만 그루 식재
 -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함흥모방직공장 등이 참여
- (주체)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함흥모방직공장 등
- (규모) 1,000수백만 그루
- (위치) 함경남도 락원군, 신포시, 신흥군 등

□ 황해남도, 봄철 나무심기 완료(노동신문, 04.17,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계획한 봄철 나무심기 완료
 - 신설 지방공업공장의 원료림 조성용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
- (위치) 황해남도

□ 전국, 봄철위생월간 지역정비(노동신문, 04.19, 5면)

- (내용) 봄철위생월간을 맞아 각지에서 거리·마을·일터 정비 사업 진행
- (위치) 전국

□ 평안남도, 대동군 지역 면모 일신(노동신문, 04.19, 5면)

- (내용) 대동군에서 봄철위생월간을 계기로 지역 정비 사업 추진
 - 읍지구 상수도 관망 전면 교체 결정 및 시행
 - 공장·기업소 울타리 신규 조성 및 색조 정비
- (주체) 대동군
- (위치) 평안남도 대동군

□ 자강도, 화평군 지역 면모 일신(노동신문, 04.20, 3면)

- (내용) 화평군에서 지역 면모 일신을 위한 공사계획 수립·추진
 - 읍지구 도로포장, 가로등 설치, 공원 여러 개 건설
 - 전체 살림집과 공공건물 외부 개진
- (주체) 화평군당위원회
- (위치) 자강도 화평군

□ 전국, 봄철 나무심기 진행(노동신문, 04.22, 5면)

- (내용) 전국에서 봄철 나무심기로 현재까지 1억 수천만 그루 식재
 - 조림 대상지 선정 후 구덩이 파기, 부식토 주기 등 공정별 작업을 기술규정에 따라 시행
 - 나무모 생산방법 개선 및 비배관리로 수종 확보
- (규모) 1억 수천만 그루
- (위치) 전국

□ 강원도, 지역 면모 일신(노동신문, 04.30, 1면)

- (내용) 강원도에서 연중 국토관리사업 추진, 올해 현재까지 강바닥파기 19만 4,000여㎥, 제방성토 9만 7,000여㎥, 장석쌓기 10여만㎥ 완료
 - 안변군·천내군: 굴착기·유압식 적재기·화물자동차 가동률 제고로 강바닥파기·제방성토, 큰물 피해위험 감소 정비
 - 평강군·김화군: 도로 폭 규정 확장, 곡선 정비, 왕대·느티나무 등 식재
 - 문천시·이천군: 도로 강도 제고, 옹벽쌓기와 안전보호벽 설치

- (주체) 안변군, 천내군, 평강군, 김화군, 문천시, 이천군 근로자
- (규모) 강바닥파기 19만 4,000여㎡, 제방성토 9만 7,000여㎡, 장식쌓기 10여만㎡
- (위치) 강원도 평강군, 김화군 등

2. 국토개발

□ 황해북도, 봄철 국토관리사업 추진(노동신문, 04.06,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국토관리사업 목표 수립·추진
 -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이 연산군에서 강하천 정리, 도로관리, 도시경영, 원림녹화 시범 조성
 - 사리원시·상원군: 도로 정비, 공원 조성 및 원림경관 조성
- (주체)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 (위치) 황해북도

□ 자강도, 봄철 토지정리(노동신문, 04.12, 1면)

- (내용) 희천시와 향산군에서 봄철 토지정리 착수
 - 4월22일토지정리돌격대가 800정보를 파종 전까지 기계화포전·규격포전으로 정리하는 목표 수립
 - 희천시 지신남새농장 토지정리는 2중대가 담당
- (주체) 4월22일토지정리돌격대
- (규모) 800정보
- (위치) 자강도 희천시, 향산군

□ 전국, 봄철 4,000여 정보 토지정리(노동신문, 06.13, 5면)

- (내용) 올해 봄철에 4,000여 정보를 기계화포전·규격포전으로 정리
 - 황해북도려단: 계획보다 100여 정보를 추가 정리, 수백 정보의 밭을 논으로 전환
 - 4월22일토지정리돌격대 제1대: 자강도에서 800여 정보 정리
- (주체) 황해북도려단, 4월22일토지정리돌격대 제1대
- (규모) 4,000여 정보
- (위치) 전국

3. 도시개발

□ 함경남도, 이원군 군소재지 면모 일신(노동신문, 04.02, 4면)

- (내용) 바다가양식사업소가 건설 중인 이원군 소재지 정비
 - 소층살림집 수습 동 개진
 - 개진공사용 자재·노력 보장 대책 수립 및 건재 공급
- (규모) 소층살림집 수습 동 개진
- (위치) 함경남도 이원군

□ 자강도, 동신군 소재지 면모 일신(노동신문, 04.17, 5면)

- (내용) 동신군 소재지 정비 진행
 - 도로 주변 살림집, 공공건물, 봉사망, 가로수에 조명(불장식) 설치
 - 은덕원, 유치원, 체육관 건설 착수
 - 마감건재 생산단위의 품질 제고 및 증산 추진
- (위치) 자강도 동신군

□ 남포특별시, 시 면모 일신 사업(노동신문, 05.05, 5면)

- (내용) 남포시에서 항구도시 특성을 살린 거리·마을 정비 추진
 - 여러 하천의 감탕 처리, 장식 보수, 나무심기 완료, 원림경관 조성 및 잔디 식재 진행
 - 시내 입구, 남포역 앞, 와우도문화회관 앞 도로 등에서 도로 확장, 조명, 전광판 설치
- (위치) 남포특별시

□ 함경남도, 도소재지 면모 일신(노동신문, 05.16, 5면)

- (내용) 함흥시 도소재지 정비 진행
 - 도로 포장 및 다층살림집·공공건물 수습 동 개진
 - 도 차원에서 기술력량과 중기계 집중, 자재 보장 대책 수립
- (규모) 다층살림집·공공건물 수습 동 개진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황해남도, 해주시 면모 일신(노동신문, 05.28, 5면)

- (내용) 해주시 도소재지 정비 완료
 - 하천 바닥파기, 소층·다층살림집 수습 동 개진보수, 원림녹화, 자전거길 포장 완료
 - 살림집 지붕공사와 벽체 미장 입체적 진행, 화대·화단 개진보수 및 공원 녹지 조성

- (주체) 황해남도 도인민위원회
- (규모) 소층·다층살림집 수십 동 개선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자강도, 도소재지 면모 일신(노동신문, 05.31, 1면)

- (내용) 강계시 도소재지 정비 진행
 - 다층살림집 및 공공건물 1,000수백 세대 개선, 원림경관 조성, 다수 구간 도로 정비
 - 색기와, 시멘트, 목재, 도료 등 개건용 자재 보장 선행
- (주체) 자강도
- (규모) 다층살림집·공공건물 1,000수백 세대 개선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평양직할시, 순안구역 도시관리 사업(노동신문, 06.01, 5면)

- (내용) 순안구역 정비 사업 완료
 - 봄철에 수십 리 구간 하천정리를 1개월여 만에 완료
 - 20여 일 만에 살림집 수십 개 호동 개선보수, 가로수 수백 그루 및 공공건물·살림집 조명 설치
 - 구역문화회관 마당에 대형 전광판 설치, 남읍동지구에 공원 신규 조성, 자전거길 포장
- (규모) 살림집 수십 개 호동, 가로수 수백 그루
- (위치) 평양직할시 순안구역

□ 함경북도, 청진시 도시경영사업 추진(노동신문, 06.03, 6면)

- (내용) 청진시 수십 리 기본도로 주변 도시경영사업 추진
 - 도로포장, 녹지 조성, 건물 타일 붙이기 계획적 진행
 - 기본도로 주변 건물의 규모·형태에 맞는 조명 설계 및 형성안 완성
- (주체) 함경북도 도 일군들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4. 농촌개발

□ 평안남도, 문덕군 마을 정비(노동신문, 04.01, 6면)

- (내용) 문덕군 립석농장에서 농장마을 정비 사업 추진

- 생산문화·생활문화 확립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
- 마을 녹지구획 담당제 실시, 잔디 식재 및 관리
- 살림집과 도로 주변에 과일나무 등 여러 수종 식재
- (위치) 평안남도 문덕군

□ 평안북도, 새 농촌마을 원림녹화사업 진행(노동신문, 04.18, 5면)

- (내용) 평안북도 시·군의 새 농촌마을 200개 가까이에 원림녹화사업 시행
 - 메타세쿼이아(수삼나무), 은행나무 등 1만 수천 그루 식재 완료
- (규모) 새 농촌마을 200개 가까이, 나무 1만 수천 그루
- (위치) 평안북도

□ 함경남도, 이원군 락원포 지역개발사업 추진(노동신문, 04.30, 1면)

- (내용) 함경남도가 이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락원포 남새온실, 1,000세대 살림집 등 대규모 건설과제 추진
 - 현장지휘 일군 보강 및 공사 우선순위 조정
 - 지방 원료·자재를 활용한 건재생산기지 신설·확장, 시멘트 생산기지 활성화 병행
- (주체) 함경남도당위원회
- (규모) 살림집 1,000세대
- (위치) 함경남도 이원군

□ 자강도, 초산군 면모 일신(노동신문, 05.25, 5면)

- (내용) 초산군에서 지역 면모 일신 사업 추진
 - 마감건재 생산단위의 품질 제고와 생산 정상화 병행
- (위치) 자강도 초산군

5. 기타

□ 평안북도, 애도간석지 1구역 준공(노동신문, 01.15, 1면)

- (내용)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가 애도간석지 1구역 건설 완공
 - 채석장·작업도로 등 준비공사 후 수백 차례 대소 발파 진행
 - 토랑 및 막돌 운반 수백만㎥, 장식쌓기와 콘크리트 타설로 배수문과 방조제 조성
 - 이동수리기지를 전개해 부속품·건설자재를 자체 조달, 화물자동차·건설장비 가동률 확보
 - 후속 과제로 애도간석지 1구역 조유지제방공사 제시

- (주체)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 (규모) 토랑·막돌 수백만㎥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 황해남도, 대동만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공사 완료(노동신문, 02.11, 3면)

- (내용) 조선인민군 부대가 서해지구 대동만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공사 완료
 - 암질 상태에 맞는 작업방법 도입과 교대당 발파횟수 확대로 방조제용 막돌 토랑 120여만㎥ 확보
 - 연약한 감탕층의 압출침하로 방조제가 침하하는 조건에서 성토 진행
- (주체) 조선인민군 박일승 소속부대
- (규모) 막돌·토랑 120여만㎥
- (위치) 황해남도 룡연군, 웅진군

□ 평안북도, 일해간석지 건설(노동신문, 04.17, 5면)

- (내용)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가 일해간석지 건설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완료 목표 수립
 - 정주시 일해지구~흑록지구 방조제를 축조해 700여 정보의 새 땅 조성이 목표
 - 당초 올해는 1차 물막이공사만 예정
 - 굴진 m당, 자동차 운행 km당, 굴착기 상차 m당 연유소비기준 설정 및 도로 기술상태 개선
- (주체)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 (규모) 새 땅 700여 정보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 전국, 개간 간석지 내부망공사(노동신문, 05.07, 1면)

- (내용) 최근 완공된 서해 간석지의 내부망공사 추진(수천 정보 농경지 조성 대상)
 - 포전정리와 함께 가지물길 수십 리, 구조물 120여 개, 포전도로 70여 km, 용배수로 230여 km 건설 필요
 - 농업위원회, 간석지건설지휘조, 평안북도·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가 현지 작전 수행
 - 대동만간석지 3구역 내부망공사는 청단·온천간석지내부망건설사업소가 담당
- (주체) 농업위원회, 간석지건설지휘조, 평안북도·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청단·온천간석지내부망건설사업소
- (규모) 구조물 120여 개, 포전도로 70여 km, 용배수로 230여 km
- (위치) 전국

□ 황해남도, 각회도 간석지 건설(노동신문, 06.15, 5면)

- (내용)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가 각회도 간석지 건설 추진, 올해 방조제 수천 m 축조
 - 압축기·착암기 등 설비 기술관리 강화로 가동률 제고
 - 채석장 차량 대기시간 단축 등 운반 효율 제고, 장식공사는 기술규정에 따라 진행
- (주체)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 (규모) 방조제 수천 m
- (위치) 황해남도 청단군

VI. 문화휴양시설

1. 문화시설

□ 양강도, 삼수군 문화회관 신규 건설(노동신문, 01.29, 5면)

- (내용) 121호림업연합기업소가 삼수림산사업소에 문화회관 신규 건설
 - 공연 무대와 2층 관람석 구비
 - 연합기업소가 건축형성안 작성, 노력·자재 보장 담당
- (주체) 121호림업연합기업소
- (위치) 양강도 삼수군

□ 평양직할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노동신문, 04.03, 1면)

- (내용)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장 현지도도 진행
 - 총건축공사량의 97% 공정
- (위치) 평양직할시

□ 평안북도, 문화정서생활기지 조성(노동신문, 05.12, 3면)

- (내용) 평안북도 시·군에서 문화정서생활기지 조성 사업 추진
 - 영변군: 읍지구 아동공원에 보트장·물놀이장 조성에 이어 약산동대지구 정비 추진
 - 운산군: 군문화회관, 국수집, 물놀이장 건설 완료 후 읍지구 생활용수 공급공사 추진
 - 동창군: 체육관 건설 추진, 급양봉사기지 및 수영관 건설 병행
- (주체) 영변군당, 운산군당위원회, 동창군당위원회
- (위치) 평안북도 영변군

□ 양강도, 3대혁명전시관 개관(노동신문, 06.18, 3면)

- (내용) 혜산시에 3대혁명전시관 신규 건설, 개관식 진행
 - 조선식 합각지붕 형식, 도내 시·군 및 각급 단위의 3대혁명 성과 자료·설비·직관물 전시
 - 학술토론회장, 전자열람실 구비
- (위치) 양강도 혜산시

□ 강원도, 원산시 송도원지구 백화원 개건(노동신문, 06.23, 6면)

- (내용) 원산시 송도원지구 백화원 개건, 총부지면적 수만㎡
 - 나무 수천 그루와 화초·지피식물 수천만 포기로 원림경관 조성, 산보길과 포장도로 조성

- 분수뿔(수중조명 포함)과 화초온실 등 문화휴식시설 구비
- (규모) 총부지면적 수만㎡, 나무 수천 그루
- (위치) 강원도 원산시

2. 운동시설

□ 함경북도, 화대군 체육관 건설(노동신문, 01.23, 5면)

- (내용) 화대군에 체육관 신규 건설, 연건축면적 1,000여㎡
 - 농구·배구 등 다양한 종목 경기시설과 문화후생시설 구비
 - 시공력량 편성과 자재보장, 운영용 설비·비품 확보 병행
- (규모) 연건축면적 1,000여㎡
- (위치) 함경북도 화대군

□ 평안북도, 신의주화장품공장 체육관 건설(노동신문, 02.12, 3면)

- (내용) 신의주화장품공장에 체육관 신규 건설, 연건축면적 수천㎡
 - 배구·농구·탁구 등 경기시설 구비
 - 관람석 의자 수백 개, 고무깔판, 농구대, 탁구대 등 비품 확보
- (주체) 신의주화장품공장
- (규모) 연건축면적 수천㎡, 관람석 수백 석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함경남도, 승마구락부 건설(노동신문, 04.27, 9면)

- (내용) 함경남도승마구락부 신규 건설, 4.26 준공식 진행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3. 관광휴게시설

□ 함경북도,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노동신문, 01.21, 1면)

- (내용)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이 1.20 진행
 - 연혁 약 80년의 휴양소를 종합 문화휴식기지 겸 치료봉사기지로 전면 신축
 - 설비 시운전 등 운영·봉사 준비를 거쳐 2월 중 개업 지시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 **함경북도,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노동신문, 01.23, 1면)**

- (내용)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이 1.21 진행
 - 수백 명 숙박능력의 염분진해안리조트와 해수욕장 조성
 -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 등 종합 봉사시설 구비
- (규모) 숙박능력 수백 명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 **황해북도, 서흥호소년단야영소 개건(노동신문, 02.02, 7면)**

- (내용) 서흥호소년단야영소 개건 완료, 2.1 준공식 진행
- (위치) 황해북도 서흥군

□ **함경남도, 경포소년단야영소 준공(노동신문, 02.03, 5면)**

- (내용) 동해안에 경포소년단야영소 신규 건설, 2.2 준공식 진행
 -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신축, 홍원군 주민들이 건설 지원
- (주체) 함경남도, 홍원군
- (위치) 함경남도 홍원군

□ **양강도, 삼지연산악관광지구 건설(노동신문, 04.12, 1면)**

- (내용) 삼지연산악관광지구 건설장에 내각총리 현지 방문, 공사 진척 점검
 - 지대 특성에 맞는 건설 적기 활용, 시공·기능공력량 강화, 건설장비 가동률 제고 강조
 - 216사단 운전기재 출동식 및 기공구전사회 참관
- (주체) 216사단
- (위치) 양강도 삼지연시

VII. 교육복지시설

1. 교육연구시설

□ 평양직할시, 산림연구원 준공(노동신문, 01.20, 5면)

- (내용) 산림연구원 신규 건설, 1.19 준공식 진행
 - 사무청사, 편의봉사시설과 함께 산열매 가공품 연구개발용 중간시험공장 및 보조건물 구비
 - 국토환경보호성이 설계, 시공력량 편성, 설비·자재 보장 담당
- (주체) 국토환경보호성
- (위치) 평양직할시

□ 황해북도, 리계순사리원사범대학 준공(노동신문, 01.24, 3면)

- (내용) 리계순사리원사범대학 개건 완료, 1.23 준공식 진행
 - 노력절약형·자재절약형 공법 도입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평양직할시, 농기계연구소 준공(노동신문, 01.24, 3면)

- (내용) 농기계연구소 신규 건설, 1.23 준공식 진행. 연건축면적 1만 9,400여㎡
 - 농기계 연구, 시험제작, 기술교류, 제품전시용 시설과 실험기구·장비 구비
 - 연구사 생활조건을 갖춘 다기능 거점으로 조성
- (규모) 연건축면적 1만 9,400여㎡
- (위치) 평양직할시

□ 황해북도,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 개건 준공(노동신문, 01.31, 3면)

- (내용)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 개건 완료, 1.30 준공식 진행
 - 건설 및 개건공사와 구획정리작업 병행
 - 연관단위가 자재·설비·교구비품 공급
- (주체) 황해북도 일군들, 건설자들, 연관단위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함경남도, 함흥의학대학 기숙사 준공(노동신문, 02.01, 4면)

- (내용) 함흥의학대학 기숙사 2개 호동 신규 건설, 1.30 준공식 진행
 - 침실, 학습실, 식당 등 구비

-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골조공사, 내외부 미장 및 운동장 인조잔디 포설 완료
- 연관단위가 설비·비품 공급, 기숙사 주변 원림 조성 및 지대정리 지원
- (규모) 기숙사 2개 호동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황해북도, 도교수강습소 개건(노동신문, 02.25, 5면)

- (내용) 황해북도 도교수강습소 개건 완료
 - 부족 자재를 자체 해결하며 공정별 작업 진행
 - 도인민위원회, 도무역관리국, 도체신관리국이 교육설비와 교구비품 공급
- (주체) 황해북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도무역관리국, 도체신관리국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전국, 직업기술학교 개건(노동신문, 03.02, 6면)

- (내용) 지방발전정책에 따라 도·시·군 직업기술학교 개건 및 토대 강화
 - 신설 지방공업공장의 제품 종류가 준공 초기 대비 약 3배로 확대되는 데 기여
 - 노동성이 식료·일용화학·피복 부문 수습 개 직종 기능공 양성 교재를 편집·출판해 각 도에 배포
 - 연탄군·곡산군 직업기술학교 개건, 도내 시·군 직업기술학교에 교구비품 수백 점 공급
 - 교원 수습 명 배치, 전년도 도 단위 직종별 기능공 수백 명 양성
- (주체) 노동성, 도·시·군 직업기술학교
- (위치) 전국

□ 양강도, 도산림과학연구소 개건(노동신문, 03.04, 5면)

- (내용) 양강도 도산림과학연구소 개건 완료
 - 도산림관리국이 시공력량 편성과 설비·자재 보장 담당
- (주체) 도산림관리국
- (위치) 양강도 혜산시

□ 양강도, 백암군 연암소학교 석개울분교 건설(노동신문, 03.13, 6면)

- (내용) 백암군 연암소학교 석개울분교 신규 건설
 - 군에서 관내 분교 20개 가까이를 정비하는 목표 수립
 - 분교 건설용 노력·자재·설비 보장
- (주체) 백암군당, 군 일군들

- (규모) 분교 20개 가까이 정비 목표
- (위치) 양강도 백암군

□ 평양직할시, 서포고급중학교 실험실습토대 구축(노동신문, 03.21, 6면)

- (내용) 형제산구역 서포고급중학교에 실험실습실 5개 신규 조성
 - 물리실험실, 기초기술실습실 등 구성
 - 전년도 초급중학교에서 초급반·고급반 병설 고급중학교로 전환된 데 따른 조치
- (주체) 서포고급중학교 교원들
- (규모) 실험실습실 5개
- (위치) 평양직할시 형제산구역

□ 함경북도, 부령군 설계연구소 건설(노동신문, 04.02, 4면)

- (내용) 부령군에 설계연구소 신규 건설
 - 군건설려단이 시공 담당
- (주체) 부령군건설려단
- (위치) 함경북도 부령군

□ 황해북도, 학교 건설 및 개건공사(노동신문, 04.17, 6면)

- (내용) 봉산군에서 학교 건설 및 개건사업 추진, 올해 2개 대상 신규 건설 목표
 - 군당집행위원회와 학교꾸리기지휘조 협의회 정례화, 자재 사전 확보 및 후방물자 보장
 - 3월 학교지원월간에 군내 공장·기업소·농장이 정보설비, 실험실습기재, 광석표본 15종 50여 점 공급
- (주체) 봉산군당집행위원회, 학교꾸리기지휘조
- (규모) 광석표본 15종 50여 점
- (위치) 황해북도 봉산군

□ 황해남도, 학교 건설 및 개건현대화공사(노동신문, 04.20,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농촌학교 수십 개의 건설 및 개건현대화 공사 추진
 - 도당위원회 총화회의에서 설계 선행, 자재보장 대책, 건설력량 강화 등 결정
 - 농촌학교에 현대적 교육설비와 교구비품 공급 병행
- (주체) 황해남도당위원회
- (규모) 농촌학교 수십 개
- (위치) 황해남도 태탄군

□ 자강도, 도계급교양관 개건(노동신문, 05.14, 4면)

- (내용) 자강도 도계급교양관 개건 완료
 - 내외부 미장 등 마감작업 시행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평안북도, 학교·유치원 수십 개 건설 및 개건현대화 공사(노동신문, 06.22, 6면)

- (내용) 평안북도에서 올해 계획한 학교·유치원 수십 개의 건설 및 개건현대화 공사 추진
 - 선천군: 안상기술고급중학교 건설 완료 후 잔여 대상공사 진행, 현대적 교육설비 100수십 점을 관내 학교·유치원에 공급
 - 구성시·태천군·천마군 등: 부족 자재를 자체 해결하며 공사 확대
- (주체) 평안북도당위원회
- (규모) 학교·유치원 수십 개, 교육설비 100수십 점
- (위치) 평안북도 선천군, 구장군, 피현군, 구성시, 태천군, 천마군 등

2. 의료보건시설

□ 황해북도, 농촌 리병원·진료소 환경 개선(노동신문, 05.31, 1면)

- (내용) 황해북도가 연차별 목표에 따라 농촌 리병원·진료소의 치료조건과 환경 개선 추진
 - 사리원시·연산군·연탄군: 건설부문 실무일군을 현지 파견해 설계에 따른 개건 기술지도, 종합안내판 등 내부 정비
 - 원격의료(먼거리의료봉사)체계 등 의료봉사체계 도입
 - 2개월 미만의 기간에 도내 수백 개 농촌 리병원·진료소 정비 완료
- (규모) 농촌 리병원·진료소 수백 개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연산군 등

3. 노유자시설

□ 자강도, 강계시 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 건설(노동신문, 03.15, 5면)

- (내용) 강계시 외룡지구에 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 신규 건설, 연건축면적 수천㎡
 - 사무실, 어린이영양식품보관창고, 아동용품상점 등 구비
 - 시멘트, 철근, 목재 등 자재 보장 대책 시행
- (주체) 강계시당위원회
- (규모) 연건평 수천㎡
- (위치) 자강도 강계시

VIII. 광업자원시설

1. 금속광업

□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100만산 대발파(노동신문, 01.26, 5면)

- (내용) 무산광산연합기업소가 1.25 100만산 대발파 진행
 - 로천분광산지구에 발파구역 설정, 수십 차례 현지답사와 기술협의회를 거쳐 발파 설계 완성
 - 로천분광산, 운광사업소, 박토콘베아사업소, 무산지질탐사대가 갱도 굴진 담당
 - 정머리분공장, 공무분공장이 부속품 공급
- (주체)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로천분광산, 운광사업소, 박토콘베아사업소, 무산지질탐사대
- (규모) 100만산 대발파
- (위치) 함경북도 무산군

□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100만산 대발파 준비(노동신문, 02.25, 3면)

- (내용) 1월 대발파에 이어 추가 100만산 대발파를 위한 갱도 굴진 추진
 - 4갱은 로천분광산중대, 2갱은 무산지질탐사대중대, 3갱은 박토콘베아사업소중대가 담당
- (주체) 로천분광산중대, 무산지질탐사대중대, 박토콘베아사업소중대
- (규모) 100만산 대발파
- (위치) 함경북도 무산군

□ 함경북도, 무산~청진 철정광수송관 1계통 증설 공사(노동신문, 05.06, 1면)

- (내용) 무산~청진 철정광수송관 1계통 증설을 위한 준비사업 본격화
 - 무산광산연합기업소~김책제철연합기업소 수백 리 구간에 관로를 부설하고 대형 펌프장, 수리기지 건설이 필요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송평관수송사업소와 국가과학원 3화수송연구소가 현지 측량 수행, 200여 리 구간 측량 완료
- (주체)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송평관수송사업소, 국가과학원 3화수송연구소
- (규모) 관로 수백 리 구간(측량 200여 리 완료)
- (위치) 함경북도 무산군

□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120만산 대발파 준비(노동신문, 05.12, 5면)

- (내용)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120만산 대발파 준비 진행
 - 8개소 갱도 굴진과 회전식 착정기 천공을 배합하는 방식 채택, 총연장 1,000수백 m 굴진
 - 부속품을 자체 원료·자재로 대체 생산
- (주체) 무산광산연합기업소
- (규모) 120만산 대발파, 갱도 총연장 1,000수백 m
- (위치) 함경북도 무산군

2. 비금속광업

□ 평안남도, 순천석회석광산 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1.06, 5면)

- (내용) 순천석회석광산에서 20만산 대발파 진행
 - 착암기·압축기 가동률 제고로 소갱 굴진과제 완수, 발파기일 단축
 - 굴착기·화물자동차 보수정비로 박토처리·광석운반 준비
- (주체) 순천석회석광산
- (규모) 20만산 대발파
- (위치) 평안남도 순천시

□ 남포특별시·평안남도, 오석산화강석광산 새 광구 개발(노동신문, 01.12, 3면)

- (내용) 오석산화강석광산에서 새 광구 개발 추진, 박토 수만^{m³} 처리 필요
 - 산정에 좌지를 정하고 중기계 배치
 - 1.4·1.7 각각 하루 800^{m³} 박토처리 기록, 연초 10여 일간 수천^{m³} 처리
- (주체) 오석산화강석광산
- (규모) 박토 수천^{m³}(1일 최대 800^{m³})
- (위치) 남포특별시, 평안남도

□ 함경남도, 풍남광산 개발(노동신문, 04.11, 3면)

- (내용) 2·8비날론연합기업소가 풍남광산 개발 추진(화학제품 생산용 석회석 확보 목적)
 - 파쇄사별공정 1계열 공사 완료 후 2계열 공사에서 파쇄기 조립·설치 진행
 - 전탄역~광산 간 철길 건설 병행
 - 살림집 80여 세대 건설 완료, 올해 수백 세대분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블록 제작 진행

- (주체) 2:8비날론련합기업소, 설비조립련합기업소
- (규모) 살림집 80여 세대 완료 및 수백 세대 추진
- (위치) 함경남도 고원군

□ 함경남도, 고원군 풍남광산 개발공사(노동신문, 05.29, 1면)

- (내용) 2:8비날론련합기업소가 풍남광산 개발공사 추진
 -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노동자합숙, 탁아소·유치원, 진료소, 광부원 건설 완료
 - 종업원 살림집 수백 세대 건설 진행
- (주체) 2:8비날론련합기업소
- (규모) 종업원살림집 수백 세대
- (위치) 함경남도 고원군

□ 함경북도,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린회암 갱 건설(노동신문, 06.14, 1면)

- (내용)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가 린회암 채굴용 갱 건설 추진
 - 기본굴진 수천 m, 갱도영구화공사 수백 m, 권양기장·저광장 건설이 과제
 - 일평균 굴진계획 105%, 최고 110% 수행
- (주체)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 (규모) 기본굴진 수천 m, 갱도영구화 수백 m
- (위치) 함경북도 온성군

□ 함경북도, 청진시 린회암비료공장 건설(노동신문, 06.18, 5면)

- (내용) 린회암비료공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 건축공사와 설비조립 90% 초과
 - 연간 린회암비료 수십만 t 생산능력, 시간당 생산량 수십 t
 - 원료 투입부터 제품 포장까지 전 공정 흐름선화, 함북 북부지구 린회암 활용
 -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가 시공 담당, 계통별 시운전 진행
- (주체)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 (규모) 연간 린회암비료 수십만 t, 시간당 수십 t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3. 연료광업

□ 전국, 여러 탄광 사일로식 석탄저장고 건설(노동신문, 02.11, 3면)

- (내용) 석탄공업부문 여러 탄광에서 사일로식 석탄저장고 건설 완료

- 조양탄광: 벨트 설치 관련 문제를 해결해 공사기일 단축
- 거푸집 조립과 철근 가공을 선행하고 혼합기 등 설비 가동률 제고
- (주체) 석탄공업부문 여러 탄광, 조양탄광
- (위치) 전국

□ 전국, 석탄공업성 새 탄광·새 갱 건설 추진(노동신문, 03.15, 5면)

- (내용) 석탄 수요 확보를 위한 새 탄광·새 갱 건설 추진
 - 석탄공업성이 지난 5년간의 성과·교훈을 분석해 단계별 계획과 실천대책 수립
 - 룡반탄광 1갱: 사갱 굴진과 기본굴진 진행
 - 경원지구탄광연합기업소 태산탄광·룡북청년탄광 청년2갱,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풍곡청년탄광 청년갱: 설비·기술 관리 강화
- (주체) 석탄공업성
- (위치) 전국

162

□ 함경북도, 경원지구탄광연합기업소 태산탄광 건설(노동신문, 06.03, 1면)

- (내용) 경원지구탄광연합기업소가 태산탄광 건설 추진
 - 새 갱 개발을 위한 기본굴진 65% 공정, 새 탄발 확보 병행
 - 압축기·양수기 등 설비 설치, 저탄장 건설과 벨트콘베이어 설치 준비 진행
- (주체) 경원지구탄광연합기업소
- (위치) 함경북도 경원군

□ 평안남도, 덕천시 월봉탄광 벨트콘베이어 공사(노동신문, 06.20, 5면)

- (내용) 월봉탄광에서 운반능력 제고를 위한 3단계 벨트콘베이어 공사 추진
 - 완공 시 주요 갱의 석탄을 전차로 운반할 때보다 운반능력 1.2배 이상 증가
 - 굴진·확장·영구화 수백 m 규모
 -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와 월봉탄광이 공사지휘력량 편성, 석탄공업성과 연계해 설비·자재 보장
- (주체)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월봉탄광, 석탄공업성
- (규모) 굴진·확장·영구화 수백 m, 운반능력 1.2배 이상
- (위치) 평안남도 덕천시

IX. 농림어업시설

1. 농업시설

□ 자강도, 류중농장 벼모재배온실 조성(노동신문, 01.14, 5면)

- (내용) 자강도농촌경리위원회가 류중농장에 북부산간지대 특성에 맞는 벼모재배온실을 본보기로 건설
 - 벼모재배장과 온·습도 자동조종실, 자동 물주기장치, 온습도·탄산가스 농도 표시 전광판 설치
 - 겨울철 남새생산, 여름철 누에고치생산, 가을철 종자건조가 가능한 다기능 구조
 - 도농촌경리위원회가 참관을 조직하고 도내 다른 농장으로 확대 추진
- (주체) 자강도농촌경리위원회
- (위치) 자강도 희천시

□ 황해남도, 시·군 자체 지선물길 정리공사(노동신문, 01.16,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통수능력 제고를 위한 물길 정리공사 시행
 - 전년도 기본물길 정리 완료에 이어 시·군이 자체로 지선물길 정리공사 진행
 - 웅진군·배천군 등: 물길 바닥파기와 둑 보수공사 시행
- (위치) 황해남도

□ 전국, 벼모기르기온실 건설 추진(노동신문, 03.03, 5면)

- (내용) 전국에서 벼모기르기온실 총 수십만㎡ 건설 추진
 - 평양시: 노력절약형·부지절약형 온실 건설계획 수립, 총 10여 동 건설
 - 와우도구역: 계획보다 여러 동을 추가 건설하고 벼모기르기용 설비 확보
- (규모) 전국 수십만㎡, 평양시 10여 동
- (위치) 전국

□ 자강도, 향산군 목초액생산기지 조성(노동신문, 03.18, 5면)

- (내용) 향산군에 대용량 목초액생산기지 신규 건설
 - 밀·보리 등 농작물 생육 개선과 병해충 구제용 목초액 생산이 목적
 - 1월 생산실태 파악 후 지휘 및 기술력량 구성, 단기간에 완공하고 원료 확보 병행
- (주체) 향산군, 군농업경영위원회
- (위치) 자강도 향산군

□ 전국, 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노동신문, 04.09, 1면)

- (내용) 각지에서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물확보 및 물주기 사업 추진
 - 소형양수기 등 양수설비를 피해 우려 포전에 집중 배치, 물운반수단 총동원
 - 고랑관수 등 여러 방법으로 물주기 시행
- (위치) 전국

□ 황해남도, 가뭄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노동신문, 04.09, 1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가뭄 피해 최소화 사업 추진
 - 도 전체 매일 20여만 명의 노력과 물운반수단 5,000여 대 동원
 - 강우기, 이동식 양수기 등을 집중해 매일 수백 정보의 밭·보리 포전에 물주기
 - 신천군: 4.8 하루에만 400여 정보 포전 물주기 시행
- (규모) 노력 20여만 명, 물운반수단 5,000여 대(신천군 1일 400여 정보)
- (위치) 황해남도 장연군, 청단군

□ 황해북도, 관개체계 정비(노동신문, 04.11, 5면)

- (내용)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가 관개체계 완비 사업 추진
 - 미루벌 물길 수천 m 구간 보수공사, 관개구조물 수십 개소 보강공사 진행
 - 황주진등벌·미루벌 등 주요 밭작물 재배지역에 양수장 건설과 관로 매설공사 시행
 - 사리원관개기계공장이 양수설비 100여 대 생산 공급
- (주체)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사리원관개기계공장
- (규모) 물길 수천 m, 관개구조물 수십 개소, 양수설비 100여 대
- (위치) 황해북도

□ 함경북도, 벼모재배온실 조성(노동신문, 04.14, 5면)

- (내용) 함경북도 농장들에 벼모재배온실 100여 개 신규 건설
 - 농장 실정에 맞춰 온실 위치와 규모 결정, 모생산의 과학화·집약화 수준 제고
 - 온성군: 남새생산과 낱알건조가 가능한 방식을 도입해 단기간 완공
 - 경성군: 관내 전 농장에 벼모재배온실 건설 계획 수립·추진
- (규모) 벼모재배온실 100여 개
- (위치) 함경북도 온성군, 화대군

□ 평안남도, 물확보사업 추진(노동신문, 04.23, 4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가뭄 대응 물확보 사업 추진

- 수일 만에 우물·줄짚·굴포 1,000여 개소 신규 확보, 강하천 보막이 100여 개소 시행
- 물길 확장공사와 물길 정비로 통수능력 제고
- (규모) 우물·줄짚·굴포 1,000여 개소, 강하천 보막이 100여 개소
- (위치) 평안남도

□ 황해남도, 삼천군 물확보사업 추진(노동신문, 04.30, 5면)

- (내용) 삼천군에서 가뭄 대응 물원천 확보 사업 추진
 - 우물 여러 개를 신설한 룡천농장의 사례를 군내에 확대 적용
- (위치) 황해남도 삼천군

□ 황해북도, 은파군 물확보사업 추진(노동신문, 04.30, 5면)

- (내용) 은파군에서 가뭄 대응 물확보 및 물주기 사업 추진
 - 군급기관 일군들이 발관개양수장을 분담 관리
 - 신촌·옥현농장 등: 저류지 확장 및 대용량 변압기 교체
 - 갈현·묵천농장 등: 이동식 양수기, 물차, 경운기, 발동발전기 등 동원
 - 사리원설비조립사업소와 연계해 강우기 수십 대를 대청·광명농장 등에 공급
- (주체) 은파군당위원회, 사리원설비조립사업소
- (규모) 강우기 수십 대
- (위치) 황해북도 은파군

□ 평안북도, 염주군 우렁이 동면장 건설(노동신문, 05.03, 4면)

- (내용) 염주군에 자동화 우렁이 동면장 신규 건설, 연건축면적 수백㎡
 - 유기농법 장려 정책에 따라 겨울철 온도 자동조절로 우렁이 생존율 제고
 - 군내 농장 수요 충족을 위한 추가 건설 추진
- (주체) 염주군당위원회
- (규모) 연건축면적 수백㎡
- (위치) 평안북도 염주군

□ 평안북도, 창성군 양 사육장 조성(노동신문, 05.04, 5면)

- (내용) 창성군에서 창성양 사육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풀판 1,000여 정보 조성 및 고지대 무원덕지에 이동방목지 설치
- (규모) 풀판 1,000여 정보
- (위치) 평안북도 창성군

□ 평안남도, 평원군 저수지 물확보능력 제고 공사(노동신문, 05.06, 5면)

- (내용) 평원군에서 저수지 물확보능력 제고 공사 추진
 - 저수지 바닥파기에 굴착기, 중량화물자동차 등 기계수단 집중
- (위치) 평안남도 평원군

□ 황해북도, 젓소분장 건설(노동신문, 05.11, 6면)

- (내용) 황해북도 시·군에서 젓소분장 건설 추진
 - 곡산군·봉산군: 젓소우리, 보리짚배장, 풀절입탱크 등 옥내사육 시설공사 진행
 - 송림시: 기존 젓소우리와 젓가공시설을 확장·개건현대화, 지방자재 이용 확대
 - 장풍군: 농촌 리 젓제품 생산설비 실태 파악 후 신규 설비 공급 / 판문구역: 젓제품 생산설비 정비
- (주체) 곡산군, 봉산군, 송림시, 장풍군, 판문구역
- (위치) 개성특별시

□ 자강도, 장강군 무덕축산농장 젓소우리 조성(노동신문, 05.15, 4면)

- (내용) 장강군에서 젓 생산토대 강화 및 젓가공공장 자체 건설 추진
 - 대용량 젓가공설비 확보, 시멘트·강재 등 자재보장 선행
- (위치) 자강도 장강군

2. 어업시설

□ 함경북도,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 준공(노동신문, 01.17, 5면)

- (내용)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 신규 건설, 1.16 준공식 진행
 - 사무청사, 알깨우기 및 어린고기기르기장, 새끼고기기르기장 구비
 - 연관단위가 평화기, 압축기 등 수습 종 설비 조립·설치
- (규모) 설비 수습 종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 황해남도, 웅진서해바다양어사업소 조기종어장 준공(노동신문, 01.20, 5면)

- (내용) 웅진서해바다양어사업소에 조기종어장 신규 건설, 1.19 준공식 진행
- (위치) 황해남도 웅진군

□ 남포특별시, 논판양어 준비(노동신문, 03.10, 5면)

- (내용) 남포시 구역·군에서 논 수습 정보 개조와 새끼물고기 생산, 먹이 보장 준비 완료
 - 시농촌경리위원회가 현지답사와 물보장 조건 검토를 거쳐 구역·군별 논판양어 면적 확정
- (주체) 남포시 농촌경리위원회
- (규모) 논 수습 정보
- (위치) 남포특별시

□ 함경남도, 신포시 수산물가공기지 신규 건설(노동신문, 03.14, 5면)

- (내용) 신포시에 수산물가공업소 신규 건설 진행
 - 단기간에 블록 수습만 장 생산, 시멘트·골재 등 자재 적기 보장
 - 골조공사를 기일보다 앞당겨 완료하고 내외부 미장 완료
- (규모) 블록 수습만 장 생산
- (위치) 함경남도 신포시

□ 전국, 논판양어 준비사업 추진(노동신문, 04.02, 4면)

- (내용) 각지에서 논판양어 준비사업 추진
 - 물보장 조건 검토 후 논판양어 면적 확정, 논갈이·물고기 다님길 조성·둑쌓기 시행
 - 재령군 삼지강농장, 태탄군 읍농장 등: 알깨우기 시설과 종어장을 조성해 새끼메기 자체 생산
 - 시·군: 종어사업소 물질적토대 강화 및 농장 종어기지 조성
- (주체) 재령군 삼지강농장, 태탄군 읍농장 등
- (위치) 전국

□ 황해남도, 그물우리양어장 조성(노동신문, 05.04, 6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수습 개 단위가 그물우리양어 방식 도입
 - 팽화메기 생산 확대 및 동물성 단백질 확보
- (규모) 수습 개 단위
- (위치) 황해남도 은천군, 웅진군

□ 황해북도, 종어생산토대 구축(노동신문, 05.07, 4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논판양어용 종어생산토대 구축 추진
 - 선진 물관리방법 도입 및 단백질 생산 공업화 추진
 - 올해 논판양어 시범단위로 선정된 농장 50여 개에 종어분조 조직 및 종어기지 조성

- 수질·먹이 조건을 검토해 종어기지 건설, 실무일군 농장 파견
- (주체) 황해북도, 양어부문 과학자·연구사
- (규모) 시범농장 50여 개
- (위치) 황해북도

3. 임업시설

□ 황해북도, 개성시 양묘장 준공(노동신문, 01.31, 3면)

- (내용) 개성시에 양묘장 신규 건설, 1.30 준공식 진행
 - 사무청사, 종자선별 및 파종장, 경기질생산장, 수지경판온실, 후생건물 구비
- (위치) 개성특별시

4. 농어업단지

□ 평안북도,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노동신문, 02.02, 1면)

- (내용)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식이 2.1 진행, 착공 1년 만에 대규모 온실군 완공
 - 기존 온실농장 대비 현대성·선진성·실리성 및 건축수준을 한 단계 높인 대규모 온실남 새생산기지
 - 청년돌격대와 군인건설자가 시공, 수해지역에 살림집 수천 세대와 제방 건설이 선행됨
 - 온실남새 품질·영양가 제고 과학기술대책, 우량 남새종자 보급, 전국 온실의 통일적 지도관리 기구 신설 과업 제시
- (주체) 청년돌격대, 군인건설자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평안북도, 운전군 삼광축산농장 조업(노동신문, 02.03, 1면)

- (내용) 운전군 삼광리를 현대적 축산기지로 전변, 조업식 진행
 - 분장·가공장·사육호동·문화후생시설과 태양열발전소 조성
 - 문화주택과 함께 사무청사, 문화회관, 유치원, 학교, 병원, 약국 등 공공시설 구비
 - 축산업발전 5대고리(우량품종 종자, 사료 보장, 과학적 사양관리, 수의방역, 생산·경영 관리의 정보화·지능화)에 따른 운영 제시
 - 축산농장 생산체계 일체화, 수의약품 생산 확대, 축산정보기술연구단위 신설 과업 제시
- (규모) 분장·가공장·사육호동, 태양열발전소 등
- (위치) 평안북도 운전군

□ 강원도, 원산온실농장 건설(노동신문, 05.04, 1면)

- (내용) 원산온실농장 건설 본격 추진, 건축공사 60% 공정
 - 물탱크 1,000m³, 물여과장, 영양액 소독 및 회수 펌프장, 집수정, 도로공사 병행
 - 반공룡식 2중박막 수경온실 건설
 -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이 비닐관 공급, 조군실원산공업대학이 수경온실 통합조종 체계 구축 및 자동화설비 설치
- (주체) 강원도,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조군실원산공업대학
- (규모) 물탱크 1,000m³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함경북도, 중평온실농장 원통형 남새재배장치온실 건설(노동신문, 06.18, 1면)

- (내용) 중평온실농장에 원통형 남새재배장치온실 건설
 - 남새 생육 조건 자동 조종, 낮·밤 주기 임의 조절 및 온도·습도·탄산가스 등 환경인자 정밀 제어
 - 도농촌경리위원회가 추진 담당
- (주체) 함경북도당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5. 기타

□ 황해남도, 수만 정보 토지 개량(노동신문, 03.19,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수만 정보 규모의 토지개량(흙갈이) 사업 진행
 - 해주시·장연군·태탄군·은천군: 원토장 확보 및 노력·운반수단 집중
 - 신원소석회공장 등 소석회 생산기지에서 증산, 필지별 토양특성에 맞는 소석회 살포계획 수립·시행
 - 냉습지 개량사업 병행(막돌 등 자재 보장)
- (규모) 토지개량 수만 정보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장연군, 태탄군, 은천군, 연안군, 삼천군

□ 남포특별시, 식목사업 추진(노동신문, 03.21, 5면)

- (내용) 남포시 양묘장들에서 나무모 생산 확대
 - 수유나무, 기름밤나무, 상원포플러 등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공업화·집약화 추진
- (위치) 남포특별시

□ 전국, 각 도 양묘장 나무모 2억여 그루 공급(노동신문, 03.21, 5면)

- (내용) 각 도 양묘장에서 올해 나무모 2억여 그루 생산 공급
 - 생산된 나무모를 산지 인근에서 1~2년 더 키워 3~4년생으로 이식하는 방식 적용
 - 자동화 설비 관리로 온도·습도·일조 조건 유지
- (규모) 나무모 2억여 그루
- (위치) 전국

□ 전국, 제2차 산림복구사업 계획(노동신문, 04.01, 5면)

- (내용) 제2차 산림복구사업을 2단계로 구분해 추진
 - 2단계: 별채지·활착 부진지에 대한 나무심기와 산림개조를 지속하고 보호육성을 강화해 산림축적과 자원생산량 증대, 생태환경보호능력 개선
 -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 활용 가능한 산림으로의 개조가 핵심
- (위치) 전국

□ 전국, 저수확지 개량 사업(노동신문, 04.14, 5면)

- (내용) 각급 농근맹조직에서 저수확지 개량 사업 추진
 - 함경남도 금야군 등 농근맹조직이 수천 정보의 저수확지 지력 개선
- (주체) 각급 농근맹조직
- (규모) 저수확지 수천 정보
- (위치) 전국

□ 황해북도, 기름작물 재배면적 확대(노동신문, 05.06,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기름작물 재배면적을 도 전체 수백 정보 확대
 - 시·군 원료기지와 다수 농장이 앞그루로 유채 재배
 - 곡산군·인산군: 원료기지에서 낙화생 재배로 기름원료 생산 확대
- (규모) 기름작물 재배면적 수백 정보 확대
- (위치) 황해북도

□ 양강도, 백암군 약초산 조성(노동신문, 05.13, 6면)

- (내용) 백암군에서 약초자원 확대를 위한 약초산 조성
 - 봄철 약초재배월간에 전년 대비 확대된 면적에 조성
- (위치) 양강도 백암군

□ 양강도, 헤산시 공예작물 재배면적 확대(노동신문, 05.16, 5면)

- (내용) 헤산시에서 우량품종 공예작물 재배면적 확대
 - 가뭄 피해 최소화 대책과 함께 원료기지에 중소농기구, 비료, 영양강화제 공급 및 목초액 생산 병행
- (위치) 양강도 헤산시

□ 평안북도, 구성시 당작물 재배면적 확대(노동신문, 05.25, 5면)

- (내용) 구성시에서 당작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
 - 과학연구기관과 연계해 현대적 추출설비를 제작·설치하고 당 생산 개시
 - 정보당 수확량이 높은 새 품종을 10여 정보에서 시험재배
- (규모) 재배면적 2배 확장, 시험재배 10여 정보
- (위치) 평안북도 구성시

□ 강원도, 김화군 발 수집 정보를 논으로 전환(노동신문, 05.27, 5면)

- (내용) 김화군에서 지방공업공장 원료 확보를 위해 원료기지 내 발 수집 정보를 논으로 전환
 - 굴착기, 유압식 적재기, 불도저, 대형화물자동차 집중 배치
 - 물 확보를 위해 하천 보막이공사와 10여 리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시행
- (주체) 김화군당위원회
- (규모) 발 수집 정보, 자연흐름식 물길 10여 리
- (위치) 강원도 김화군

□ 강원도, 원산시 기름나무림 조성(노동신문, 06.01, 5면)

- (내용) 원산시에서 지방공업공장 원료 확보를 위한 기름나무림 조성
 - 봄철 나무심기 기간에만 100여 정보 조성
- (규모) 100여 정보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전국, 수유나무림 개조 마감 단계(노동신문, 06.03, 5면)

- (내용) 봄철에 시작된 수유나무림 개조사업이 마감단계, 6월 중 완료 목표
- (위치) 전국

□ 함경남도, 고원군 기름나무모 증산(노동신문, 06.03, 5면)

- (내용) 고원군에서 지방공업 원료 확보용 경제림 면적 확대 추진

- 기름나무림 조성면적과 정보당 식재 그루수를 산정해 기름나무모 생산 확대

- (주체) 고원군
- (위치) 함경남도 고원군

□ 평안남도, 은산군 종이원료림 조성(노동신문, 06.03, 5면)

- (내용) 은산군에서 종이원료림 수백 정보 조성
- (규모) 종이원료림 수백 정보
- (위치) 평안남도 은산군

□ 전국, 발벼 재배면적 확대(노동신문, 06.11, 4면)

- (내용) 각지에서 발벼 재배면적 확대 추진
 - 물부족자·천수답 등에 발벼를 심은 데 이어 수천 정보에 뒗그루 발벼 재배 준비
 - 자강도: 재배면적 확대와 함께 정보당 수확고 제고 추진
- (규모) 수천 정보
- (위치) 전국

□ 자강도, 수백 정보 방목지 개간(노동신문, 06.22, 1면)

- (내용) 자강도에서 1단계로 방목지 900여 정보 개간 및 풀씨 파종 완료, 사덕등판에 풀판 수백 정보 조성 추진
 - 새 5개년계획 기간 풀판 조성면적과 초식가축 축산물 생산 확대 목표 수립
 - 도농촌경리위원회가 풀씨 수백 kg을 확보해 도내 축산농장에 공급
- (주체) 자강도당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 (규모) 방목지 900여 정보, 풀씨 수백 kg
- (위치) 자강도 초산군, 화평군, 희천시, 룡림군, 랑림군, 자성군

□ 양강도, 김형권군 종이원료림 조성(노동신문, 06.27, 5면)

- (내용) 김형권군에서 종이원료림 조성사업 추진
- (위치) 양강도 김형권군

X. 환경방재시설

1. 방재시설

□ 평안남도, 증산군 하천정리공사(노동신문, 01.31, 5면)

- (내용) 증산군에서 농경지 수천 정보 보호를 위한 하천정리공사 추진
 - 제방 보강, 바닥파기, 물길 직선화 및 폭 확장으로 통수능력 제고
 - 기술자·기능공으로 이동수리조를 조직해 유압식 굴착기 가동률 유지
- (규모) 보호 농경지 수천 정보
- (위치) 평안남도 증산군

□ 평안북도, 태천군 집수터 보수 등 산불방지 대책(노동신문, 03.03, 6면)

- (내용) 태천군에서 산불 대응 태세 구축
 - 산불진화 실동훈련 조직, 군 단위 선발 인원의 현장 체험 방식 적용
 - 산림구역 집수터 정기 대보수로 진화용수 확보, 산불막이 시설물 보수정비
- (위치) 평안북도 태천군

□ 황해남도, 연안군 하천 정리(노동신문, 04.06, 5면)

- (내용) 연안군에서 수십 km 구간 하천 정리 완료
 - 유압식 굴착기, 중량화물자동차, 시멘트 등 장비·자재 보장
 - 제방공사 병행으로 농경지 큰물 피해 방지
- (규모) 하천 정리 수십 km 구간
- (위치) 황해남도 연안군

□ 자강도, 희천시 제방쌓기공사(노동신문, 04.06, 5면)

- (내용) 희천시에서 강하천 통수능력 제고를 위한 바닥파기 및 제방쌓기공사 추진
 - 3월 초 시당위원회가 현지에서 공사방향을 확정하고 임무분담, 노력·중기계·시멘트 보장 대책 수립
- (주체) 희천시당위원회
- (위치) 자강도 희천시

□ 전국, 국가치수전망계획(2026~2040) 추진 (노동신문, 04.17, 5면)

- (내용) 2026~2040년을 기간으로 하는 전국 치수전망계획 추진

- 청천강 새 제방 건설 및 보강공사를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는 과업 제시

- (위치) 전국

□ 평안북도, 물길구조물 대보수 및 신설공사 완료(노동신문, 04.18, 5면)

- (내용) 물길건설사단이 태천5호발전소~운전·정주·곽산 물길구조물 대보수공사와 석화·애도·일해 간석지 물길구조물공사를 기한 전 완료
 - 토량 처리 6만여㎥, 콘크리트 타설 7,400여㎥, 장식쌓기 수천㎥로 관개구조물 100개 가까이 대보수 및 신설
- (주체) 물길건설사단
- (규모) 토량 6만여㎥, 콘크리트 7,400여㎥, 관개구조물 100개 가까이, 수혜 1만 수천 정보
- (위치) 평안북도

□ 황해북도, 연탄군 강하천 정리(노동신문, 05.03, 4면)

- (내용) 연탄군에서 강하천 바닥파기, 제방공사, 장식입히기 추진
 - 큰물 위험개소 확정 후 단위별 임무분담 세분화
 - 수십 리 구간 바닥파기, 토량 수만㎥ 처리, 장식쌓기 1만여㎥가 과제
- (규모) 바닥파기 수십 리, 토량 수만㎥, 장식쌓기 1만여㎥
- (위치) 황해북도 연탄군

□ 평안남도, 강하천 정리(노동신문, 05.05, 5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강하천 정리사업 추진, 문덕군에 도 역량 집중
 - 수십 리 구간 하천 바닥파기와 제방성토 진행
 - 착공 15일 만에 하천 바닥파기 및 제방성토 100수십만㎥ 완료
- (규모) 하천 바닥파기·제방성토 100수십만㎥
- (위치) 평안남도 문덕군

□ 황해남도, 사방야계공사 완료(노동신문, 05.05,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수백 개소의 사방야계공사 완료
 - 시·군과 연계해 신규 공사 대상과 보수 대상을 구분·확정
- (위치) 황해남도 봉천군

□ 황해북도, 사방야계공사(노동신문, 05.14, 4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장마철 이전 수백 개소 사방야계공사 완료 추진
 - 연탄군: 책임일군의 현지 실태 파악과 자재보장 대책 수립, 군 역량 총동원
- (주체) 연탄군 책임일군들
- (규모) 수백 개소
- (위치) 황해북도 연탄군

□ 남포특별시, 금성간석지 제방보강공사(노동신문, 05.26, 5면)

- (내용) 남포시에서 금성간석지 제방보강공사 추진(전년도 착공)
 - 막돌 운반 등 계획된 공사과제 수행, 대형화물자동차 장거리 수송 및 중기계 정비 병행
 - 금성간석지 2호 제방의 마감막이 구간 보강공사 기본 완료
- (주체) 남포시
- (위치) 남포특별시

□ 자강도, 랑림군 강하천 제방공사 완료(노동신문, 05.28)

- (내용) 랑림군에서 수십 km 구간의 강하천 제방공사 완료
 - 재해성 이상기후 대비를 위해 장마철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
 - 위험개소 파악과 작업량 산정 후 단위별 임무분담, 중기계 가동률 제고
- (주체) 랑림군당위원회
- (규모) 수십 km 구간
- (위치) 자강도 랑림군

□ 함경남도, 요덕군 하천 물통과능력 제고(노동신문, 05.31, 4면)

- (내용) 요덕군에서 하천 바닥파기와 제방보강공사 추진
 - 하천 폭 확장, 바닥 준설, 제방 보강을 목표로 설정
 - 하천 바닥파기 수만^{m³} 시행, 다수 구간 제방 보강 및 신규 농지 확보
- (규모) 바닥파기 수만^{m³}
- (위치) 함경남도 요덕군

□ 강원도, 천내군 배수시설 보수사업(노동신문, 05.31, 4면)

- (내용) 천내군에서 재해성 이상기후 대비 배수설비·구조물 정비 및 보수
 - 단위별 임무분담과 자재 보장으로 배수시설 수리정비 진행
 - 배수양수기, 배수양수장, 배수문, 변압기 상태 재점검 및 배수로 정리

- 해안 배수문과 저수지 방수문의 긴급 시 정상 동작 준비
- (위치) 강원도 천내군

□ 황해북도, 연산군 사방야계공사(노동신문, 05.31, 4면)

- (내용) 연산군에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야계공사 완료
 - 기존 구조물 재조사 및 보강작업 시행
- (위치) 황해북도 연산군

□ 평안북도, 강하천 정리사업(노동신문, 06.08, 5면)

- (내용) 평안북도 시·군에서 강하천 정리사업 추진
 - 삭주군: 지휘력량 편성 후 읍지구 하천 바닥파기와 장석공사로 통수능력 제고
 - 운산군: 굴착기·유압식 적재기·대형화물자동차 동원 및 연유 보장
 - 도 전체 올해 강하천 바닥파기 수백만 m^3 , 제방성토 수십 km 시행
 - 정주시: 다수 하천의 바닥파기, 제방성토, 장석쌓기 진행
- (규모) 바닥파기 수백만 m^3 , 제방성토 수십 km
- (위치) 평안북도 삭주군, 운산군, 구장군

□ 황해북도, 강하천 정리사업(노동신문, 06.08,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수백 km 구간의 강하천 바닥파기와 제방보수공사 목표 수립·추진
 - 수안군: 공사대상별 일정계획 수립, 큰물 피해위험이 높은 구간 집중 바닥파기
 - 신평군: 굴착기 가동률 제고로 하천 바닥파기 진행
- (규모) 수백 km 구간
- (위치) 황해북도 수안군, 상원군, 서흥군

□ 평안북도, 청천강 정리공사 완료(노동신문, 06.28, 4면)

- (내용) 평안북도에서 청천강 정리공사 완료
 - 5월 도당위원회가 일군협의회를 열고 장마철 이전 완료 대책 수립
 - 지휘력량 재편성 및 굴착기, 유압식 적재기, 대형화물자동차 총동원
 - 구장군, 박천군, 영변군, 운전군에서 공사 진행
- (위치) 평안북도 영변군, 구장군, 박천군, 운전군

□ 황해북도, 수안군 강하천 정리공사(노동신문, 06.28, 4면)

- (내용) 수안군에서 다수 구간의 강하천 정리 완료

- 2개월간 위험구간 10여 개소에서 강바닥파기 수만^{m³}, 제방쌓기 2만여^{m²} 완료
- 수십 리 구간 추가 정리 목표 수립
- (규모) 위험구간 10여 개소, 강바닥파기 수만^{m³}, 제방쌓기 2만여^{m²}
- (위치) 황해북도 수안군

□ 황해남도, 장연군 해안방조제 보수공사 완료(노동신문, 06.28, 4면)

- (내용) 장연군에서 계획된 해안방조제 보수공사 완료
 - 책임일군의 현지 점검으로 취약 개소 파악 후 노력·자재 보장 대책 수립
 - 군내 여러 개소에서 보수공사 시행
- (주체) 장연군 책임일군들
- (위치) 황해남도 장연군

□ 함경북도, 배수체계 정비 사업(노동신문, 06.28, 4면)

- (내용) 함경북도농촌경리위원회가 농작물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체계 정비 추진
 - 어랑군: 배수양수장 고압전동기 교체 / 청진시 송평구역: 배수양수장 설비 가동 준비 완료
 - 도 전체 배수문 정비 수십 개소, 배수로·승수로 정비 수백 km 구간 시행
- (주체) 함경북도농촌경리위원회
- (규모) 배수문 수십 개소, 배수로·승수로 수백 km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어랑군, 경흥군 등

2. 환경기초시설

□ 남포특별시, 샘물공급소 신설 및 개건공사(노동신문, 04.02, 4면)

- (내용) 남포시에서 샘물공급소 수십 개를 신설 및 개건
 -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조성
- (규모) 샘물공급소 수십 개
- (위치) 남포특별시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전민동)

Tel 042-866-8326 Homepage <http://lhri.lh.or.kr>

LH 토지주택연구원(Land and Housing Research Institute)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설 연구원으로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결합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최고의 토지·주택·도시 분야의 종합연구기관입니다.

